

# 교육개발

EDUCATIONAL DEVELOPMENT

제 5 권 4 호 (통권 25호)

1983. 8

- 卷頭言 教育研究의 責務性
- 論 壇 地方教育財政의 課題  
靑少年 生活指導의 重要性과 方向  
컴퓨터 教育은 왜 해야 하는가
- 特 輯 主要 國家의 教育改革 動向  
美國의 教育改革 動向  
日本의 教育改革 動向  
英國의 教育改革 動向  
프랑스의 大學教育改革

한국교육개발원

Korea 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韓國教育開發院은 우리의 傳統과 現實에 알맞는 教育의 理念, 目的, 內容, 方法 등에 관한 綜合的 이며 科學的인 研究를 遂行하고, 韓國教育이 當面한 諸般問題를 해결하는 새로운 方案을 研究 開發하여 長期的인 國民教育發展에 寄與할 것을 目的으로 設立되었으며 韓國教育開發院 育成法(1973. 3 14 法律2616號)에 依하여 保護育成되는 研究機關입니다.

본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 연구 개발 및 현장 교육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교육 전문지로 교육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모으고 있는 바, 많은 의견을 편집자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지에 실린 논문의 결론이나 정책 건의를 포함한 특정 입장은 반드시 본원이나 편집 위원회의 공식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卷 頭 言  교육 연구의 책무성.....院 長 / 2

論 壇  地方教育財政의 課題 .....尹 正 一 / 4  
  靑少年 生活指導의 重要性과 方向 .....金 正 吉 / 8  
  컴퓨터 教育은 왜 해야 하는가.....柳 完 永 / 12

特 輯  主要 國家의 教育改革 動向  
  美國의 教育改革 動向.....李 君 賢 / 15  
  日本의 教育改革 動向.....孫 根 喆 / 19  
  英國의 教育改革 動向.....郭 柄 善 / 23  
  프랑스의 大學教育改革 .....張 幸 勳 / 28

研究報告  韓國兒童의 道德性 發達에 관한 研究.....趙 蘭 心 / 32  
  教育投資規模와 適正 單位教育費.....孔 銀 培 / 36  
  中·高等學校 學生의 科學的 思考  
  發達에 관한 調查研究.....崔 燉 亨 / 40  
  女性人力養成 및 活用方案研究.....朴 富 權 / 45  
  理論과 實踐의 邂逅.....朴 成 益 / 50

教育學 策  現場教育 相  授業獎學의 過程과 方法(3) .....金 洪 遠 / 53

紙上中繼  教育變化를 위한 研究·開發活動.....金 鎮 殷 / 58

教育資料 情 報  情報處理 理論 .....高 鎮 榮 / 62

院內動靜  消 息..... / 65

편집위원

- ◇  
 위원장 김 영 철  
 위 원 강 상 조  
 공 영 만  
 박 병 신  
 김 승 화  
 노 종 희  
 최 중 운  
 (가나다순)



# 라디오 교육방송 주간 편성표

(1983. 9. 1~84. 2. 29)

曜日 時分	月	火	水	木	金	土	日	
10:00	교 육 방 송 소 식							
	5	1 바른생활	1 바른생활	1 즐거운 생활	1 바른생활	우리함께 그 려요 (전학년)	1학년	즐거운 한자리
	15	2 바른생활	2 즐거운 생활	2 바른생활	2 바른생활	옛날 옛날에 (전학년)	2학년	
	25	이주일의 노래 / 실내체조						어 린 이 극 장
	45	3 도 덕	3 국 어	3 사 회	3 국 어	3 음 악	3학년	
		4 국 어	4 사 회	4 국 어	4 음 악	4 도 덕	4학년	
11:00	5 사 회	5 국 어	5 음 악	5 도 덕	5 국 어	5학년	우리자랑 학교자랑	
	20	6 국 어	6 음 악	6 도 덕	6 국 어	6학년		
	40	중 학 영 어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특집영어			
12:00	정오의 음악선물							
	다함께 체조를							
	이주일의 명작			작품해설과 감상	빛을 남긴 사람들			
	(국악)	음 악 감 상					시와 함께 노래들	
13:00	어 머 니 교 실				노래로 배우는 영어(고학년)	교사의 시간	교육방송 일요특집	
	우리함께 그 려요(재)	1 바른생활(재)	1 바른생활(재)	1 즐거운 생활(재)	1 바른생활(재)		과학 이야기	
	옛날 옛날에(재)	2 바른생활(재)	2 즐거운 생활(재)	2 바른생활(재)	2 바른생활(재)	야! 토요일이다		
	왜 그럴까요?							
	3 음 악(재)	3 도 덕(재)	3 국 어(재)	3 사 회(재)	3 국 어(재)			
14:00								
*주간 총 115편 (1,680분) 본방 100편 (1,505분) 재방 15편 ( 175분)								

# 교육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주간 편성표

1983. 9. 1 ~ 1984. 2. 29

방송망 : KBS-3 TV

요 일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6 : 00						국교체육	
16 : 20						국 교 음악 미술	
16 : 40						국교실과	
17 : 00	화 면 조 정						
17 : 30	텔레비전유치원				교사 의 간		
17 : 50	국교 1 학년	국교 2 학년	국교 3 학년	국교 4 학년	국 교 특 별 활 동		
18 : 10	국교도덕	국교 5 학년	국교 5 학년	국교 6 학년	국교 6 학년		
18 : 30	중학영어	중학영어	중학영어	중학도덕	중학과학	중학기술	
19 : 00	고교수학 I	고교수학 I	고교수학 I	고교영어	고교영어	고교영어	
19 : 30	고교국어 I	고교국어 2	물 리	정경 세계사	화 학	국토지리 인문지리	
20 : 00	( K B S )						
22 : 00	고 3 영어	고 3 영어	고 3 국어	고 3 국어	고 3 수학	고 3 수학	
22 : 30	생 물	국 사	지구과학	사회문화	국민윤리	진로지도	학부모시간
23 : 00							

## ERIC 자료의 원문을 제공합니다

※ ERIC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미국>)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ERIC 자료의 원문이 실린 Microfiche를 소장하고 있으며, 열람 복사를 위한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국내 교육학 관계 인사 및 연구자에게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내 용 : ERIC에서 전세계적으로 수집한 교육관계 연구보고서 및 연구논문

- 1975년 이후에 생산된 최신 자료
- 교육학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자료
- 각과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자료

자료이용 : 수시로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면동 산 20-1, 전화 567-5021, 512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자료국

# 교육 연구의 책무성

홍        응        선  
(원                    장)

## I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에게 내재하고 있는 正體性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또한 교육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수단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한편 교육이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여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은 교육의 두 측면의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교육에 주어질 사명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개인의 발전과 아울러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역할과 기능의 수행이 수동적인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현실에 대처해 나가는 것일 때에 개인의 발전과 국가 사회의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 최근에 교육의 책무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재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 II

교육 발전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는 일과 아울러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이 흡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 발전을 지원하는 교육 체제 내·외의 인적·물적 지원의 투자와 아울러 교육 연구의 내용과 방법의 쇄신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교육 발전이 정상적으로 이룩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복잡한 교육 상황 속에서 인간의 이상 실현을 위해 어떠한 활동이 전개되고, 제반 교육 자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인가, 그리고 그 투자 가치를 극대화할 것인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가치 선택 내지는 정책 실천을 위한 결정은 타당하고 신뢰로운 연구의 결과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 연구의 책무성을 찾아 보는 것이다.

### III

이와 같이 교육 연구가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은 연구의 결과 하나 하나가 교육 발전을 위해 직접·간접적으로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발전과 교육 연구의 발전은 서로 밀접한 상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 연구는 교육의 실천 행위를 다루는 것이든지, 교육 및 사회 현상의 분석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든지 간에 교육의 개선, 효율화, 객관화, 법칙 발견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성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교육 연구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훌륭한 교육 연구의 결과는 인간·개개인 및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연구는 규범적, 역사적, 정치·경제적, 행태적 및 체제 내지는 技能的인 접근 중에서 어느 관점을 따르든지, 또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記述的 연구, 실험 연구, 역사적 연구, 비교 연구 및 교육 현장 연구 등의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든지 그 결과가 시사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동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급격하게 변화하여 가는 고도 산업 사회 속에서 교육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를 정확하게 진단 조명할 수 있는 교육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교육의 실천 행위를 강조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한편 교육 현상의 적절한 분석 및 규명에 대한 미래 사회의 타당한 예측도 가능하게 하여 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교육 연구의 전개는 우리의 교육 발전에 밝은 전망을 안겨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상과 의욕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할 것이다.

### IV

이상에서 개인 및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교육 및 교육 연구의 책무성을 살펴 보았다. 그러한 교육 연구의 책무성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모든 연구원은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교육 연구의 중요성 및 그것이 지나고 있는 책무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교육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는 것이다. 본원의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교육 발전을 위한 우리의 책무성의 막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

# 地方教育財政의 課題

尹 正 一\*

## I. 緒 論

1982년도에 총 1,120만 학생을 위하여 투자된 公·私教育費는 34,030억 원으로서 GNP의 10.36%이었고, 이 중 公教育費만을 보면 GNP의 6.4%이었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時限附의 教育目的稅를 징수하게 된 그 첫해인 1982년에는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 중 文敎豫算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게 되었으며, 1983년에는 문교 예산이 21,748억 원에 달하게 되어 정부 예산의 20.88%가 되었다. 이는 실로 防衛費(정부 예산의 32.8%) 다음으로 큰 규모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이 經濟發展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先進祖國창조를 목표로 하고, 2000년대를 향한 國家長期發展을 構想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당연하며 오히려 보다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韓國教育은 幼稚園教育의 확충, 二部制 및 過密學級의 해소, 義務教育의 연한 연장, 高校平準化 정책의 정착화, 高等教育의 質의 개선, 敎員處遇改善, 平生教育體制的 확립 등 시급히 해결해야 될 課題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의 先進化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는 義務教育 연한 연장, 過密學級 解消, 敎育施設 현대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째, 義務教育의 연한 연장은 교육의 機會均

등과 韓國國民의 教育熱, 그리고 교육의 國際競爭力 강화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필연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인 것이다. 모든 先進主要國이 9~10년의 의무 교육을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國民所得이 1,000\$이 넘는 국가로서 6년간의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5個國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1985년부터 중학교 의무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1991년에 완성할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늦은 감은 있으나 先進敎育은 이를 기반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중학교의 過密學級 현상은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主要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구미의 先進諸國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20~25명, 교원당 학생수 15~20명을 유지·운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의 法定基準이 60명이나 되며 이를 초과한 학급이 1982년 현재 22,000여 학급이나 되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法定基準이 70명이나 되며 이를 초과한 학급이 1,300여 학급이 되고 있다. 20명과 70명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이다. 이를 解消하지 않고는 교육의 先進化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교육의 非人間化, 情緒的 불안정, 競爭意識, 靑少年 문제 등이 여기에서 잉태되어 성장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韓國敎育의 危機인 것이다.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면 한국 교육의 諸問題는 70% 이상 해결

\* 교육발전연구부장·철학 박사.



할 수 있다고 본다.

세계의 課題는 教育施設, 특히 초등학교 시설의 현대화라고 본다. 자라는 새싹들이 꿈을 키우고 배우는 터전인 국민학교의 시설 환경은 사회의 공공 시설보다도 생활에 편리하고, 학습하는데 효과적이고, 快適한 것이어야 한다. 먼지나는 비포장 도로, 5~60년 전에 지은 낡은 木造建物, 컴컴한 제단과 좁은 복도, 통풍과 채광이 안되는 좁은 교실, 냉·난방은 커녕 선풍기 한대 없는 교실, 몇 십년을 썼는지 칼자국 투성이의 책·걸상, 악취가 풍기고 현기증나는 재래식 변소, 대부분 가정의 장식품이 되고 있는 피아노 한대 없는 학교, 이것이 바로 국민학교 시설의 현실이다. 당신의, 나의, 우리의 귀여운 자녀가 이런 학교 환경과 시설 속에서 배움이 아닌 戰爭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投資를 주저한다면 밝은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학부모들에게 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한다면, 낙후된 그들 자녀의 교육 시설에 대한 인식과 결의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II. 地方教育財政의 問題點

地方教育財政의 문제는 總量規模, 財政自立度, 公教育費 중 학부형 부담률, 教育稅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1983년도 地方教育費 特別會計의 總量規模를 보면 약 22,421억 원으로서 1982년도보다 9.1% 증가되었으며, 政府豫算과 대비하여 보면 21.5%가 된다. 이를 다시 세출 항목별 구성비로 보면 이 중 人件費가 63.6%이고, 經常費가 11.4%, 施設費가 18.4%, 그리고 其他 6.6%로 되어 있다. 교육비의 규모를 主要國의 현황과 비교하기 위하여 학생 1인당 公教育費로 환산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82년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국민학교 290\$, 중학교 278\$, 고등학교 451\$로서 主要國 1975년 현황의 1/4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학교 급별 教育投資의 優先順位를 主要國의 것과 비교하기 위하여 教育費 差異度(cost differentials)를 산출하여 보면·국민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基準 1.00으로 했을 경우 중학교는 0.96, 고등학교는 1.55, 대학은 6.11

로 나타났다. 主要國의 1975년 현황을 보면 중학교 1.48, 대학 3.37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값싼 교육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와 대학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에 초·중학교에는 상대적으로 투자를 적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 교육 재정의 自立度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방 교육비 특별 회계를 財源別로 보면 國庫負擔이 77.8%이고, 地方負擔이 22.2%에 지나지 않는다. 國庫負擔의 내역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72.7%, 起債가 5.2%이며, 地方負擔의 내역은 自體收入이 20%, 轉入金이 2.2%이다. 따라서 지방 교육 재정의 自立度는 22%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1982년 4월에 개정된 地方教育 財政交付金法을 보면 普通交付金은 초등 교원 봉급의 100%, 중등 교원 봉급(서울 제외)의 50%와 內國稅의 11.8%, 그리고 教育稅로 하고, 特別交付金은 國家豫算이 定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教育稅가 신설된 대신 內國稅의 1.18%로 규정하였던 特別交付금이 국가 예산 사정에 따라 결정되도록 되었다. 1983년의 현황을 보면 教育稅 수입이 2,587억 원이 된 반면에 特別交付金은 713억 원에서 약 600억 원이 감소된 118억 원에 불과하여 教育稅 신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증가된 액수는 1,990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市·道로부터의 轉入金의 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여타의 道에는 轉入金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總公教育費 중 학부형 부담률을 보면 1982년에 45.7%나 되고 있다. 이를 설립별로 구분하여 보면 國·公立의 경우에는 25.3%인데 반하여 私立의 경우에는 77.6%나 되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73~75%가 학부형 부담 공교육비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總公教育費 중 11.2% 정도가 학부형 부담이며,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총 공교육비의 76%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부형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教育正常화와 過熱課外 解消를 위한 長期對策으로 채택된 교육세의 문제점은 우

선 總規模가 零細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文教豫算 총액 중 교육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2년에는 12.4% 정도이었고, 1983년에는 11.9%에 불과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세는 1986년까지 5년간이라는 時限附의 目的稅인데 반하여 교육 재정의 수요는 중학교 의무 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1985년부터 1991년까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환경 개선과 교원의 처우 개선을 주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教育稅가 1986년까지만 징수된다면 過密學級의 문제와 의무 교육 연한 연장의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더우기 현행 교육세는 附課對象이 利子配當所得, 金融·保險收益, 그리고 酒稅와 煙草代이다. 그런데 교육의 필요는 매년 증대하는 반면에 禁煙과 禁酒를 하는 사람은 매년 늘어나 교육세로부터의 稅收가 감소되어 財源의 彈力性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教育稅를 내는 사람은 도시와 農·漁村 지역을 막론하고 누구나 내게 되는데 投資對象을 교육 환경 개선에 두고 있음으로 인하여 過大規模 학교와 過密學級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대도시 지역 이외의 지역과 私立學校에 자녀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는 교육세는 내되 그 혜택은 차별적으로 받는 결과가 된다. 즉, 교육세의 負擔者가 衡平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 Ⅲ. 地方教育財源 確保方案

일반적으로 교육 재원은 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또는 학부모), 사회(또는 집단), 국가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3者 간에 어느 정도 衡平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학생과 국가만을 교육 재원으로 생각하고 사회의 참여를 고려하지 못했다. 초·중학교가 완전 의무 교육화되고, 南北分斷의 특수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생 부담률과 국고 부담률을 더 이상 증대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제 社會團體, 企業家, 篤志家들이 스스로 교육 사업에 참여하고 이들이 직접·간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誘因體制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사회 또는 집단을 중심으로 地方教育財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

한 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 社會 또는 集團으로부터의 財源確保

① 寄附金 및 教育誠金의 유치·확보: 우리 국민의 높은 教育熱을 고려한다면 寄附金과 教育誠金은 가장 가능성이 높고 이로부터 상당한 財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유명한 私立大學의 경우 각종 기부금에 의한 재원은 總教育費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기부금에는 個人 篤志家에 의한 것, 企業體에 의한 것, 학부모에 의한 것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교육에 대한 부작용이 따른다는 消極的인 측면에서 寄附金의 流入을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積極的으로 誘致·活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私教育費의 주종으로서 교육의 暗市場으로 흘러 들어 갔던 課外授業費를 고려한다면 학부모로부터의 기부금 또는 교육 성금도 크게 기대할 만하다. 단, 이 경우에 기부금이나 교육 성금에 대하여는 손비 처리를 하여주는 등 稅制上的 혜택을 부여함은 물론 교육에 대한 寄與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며, 기부금의 운영·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② 宗教團體로 하여금 教育活動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 開化期에 많은 私立學校가 각종 종교 단체에 의하여 설립·운영되었으며, 현재에도 국민 교육과 신앙 생활에 종교 단체가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구라파의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종교 단체가 교육에 참여하는 정도는 높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각종 宗教團體로 하여금 학교를 설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종교 단체가 설립한 私學에 대하여 정부에서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③ 企業體의 産業教育投資 誘致: 교육 기관에서 양성한 인력으로 생산성을 높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은 企業體임으로 이러한 기업체가 産業教育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산업 교육을 위하여 企業體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企業體의 業種과 관련있는 학교의 설립·운

영, 研究·開發費의 투자, 장학금의 설치, 高級人力 고용 비율에 따라서 수익액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재투자하는 방법 등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교육 기관에 대한 投資額에 대하여는 免稅는 물론 은행 융자의 우선 배려 등 특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④ 市·道로부터의 轉入金 확대 : 지방 교육은 그 地域住民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지 他地域住民의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政治的 中立性과 독자적인 발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교육이 一般行政으로부터 분리·독립하였다고 하여 市·道는 地方教育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 여타의 市·道에서는 교육에 대한 轉入金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교육에 대한 일반 행정의 간섭은 없어야 하지만 적극적인 支援은 지방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市·道로부터의 轉入金額은 대폭 증대되어야 하며 최소한 초·중등학교의 시설 및 건축 부지에 대하여는 市·道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稅制를 개편하여 地方稅를 늘리는 한편 地方自治制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 國家로부터의 財源確保

① 教育稅의 年限延長과 課稅對象 확대 :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앞으로의 教育課題와 이에 따른 財政需要를 감안할 때 현행 교육세의 연한 연장은 필연적이며, 아울러 교육세의 세율 인상, 또는 課稅對象의 확대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교육세의 연장 기간은 교육 환경이 先進國 수준으로 향상될 때까지로 해야 할 것이며, 교육세로부터의 財源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율을 현재의 倍로 인상하든지 아니면 각종 사치품에 대하여도 교육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야만 교육세 신설의 당초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② 長期償還의 教育施設公債 發行 : 교육 공채 제도의 합리적 타당성은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世代들이 미래의 福祉社會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자신들이 받는 혜택에 대한 代價로서 과거에 자신들의 교육을 위하여 投資된 교육비를 상환하여야 한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교육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래의 財源을 앞당겨 활용하는 방법이므로 현재의 부채를 미래의 세대에 轉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의 필수적 요건은 長期償還으로서 전국민의 參與動機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利率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 學生으로부터의 財源確保

育成會費 및 등록금 인상 : 위에 제시한 재원 확보 방안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할 때 궁여지책의 최종적인 방안으로서 학생들이 납부하는 育成會費와 登錄金의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국민학교 육성 회비는 서울과 부산이 470원,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 310원으로서 수년 전에 책정된 액수 그대로이다. 따라서 중학교 의무 교육 실시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초·중학교의 육성 회비를 인상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 대도시 지역만 한정하여 육성 회비를 책정하되 학부모의 경제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差等制를 적용하고 평균적으로 현재의 수준보다 100%~200% 정도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초·중학교 育成會費의 인상은 “義務教育은 無償教育이다.” 라고 하는 개념의 수정과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가능한 데 이 경우에는 교육의 機會均等을 보장하기 위하여 獎學金制度和 政府貸與獎學金, 혹은 교육비 용자 제도의 대폭 확충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

# 青少年 生活指導의 重要性和 方向

金 正 吉\*

## I. 序

青少年 問題인 學生 生活指導는 學習指導와 生活指導로 區分된다는 事實을 누구나 다 알고 있으나 重要한 것은 青少年 生活指導를 通해 青少年(學生)들의 生活에서 行動의 變化인 바람직한 民主市民 像이 造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人間教育에 關하여 그 哲學的 立場과 方法에 따라 見解를 달리할 수 있듯이 青少年 生活指導에 있어서도 그 대상이 되는 인간을 보는 觀點에 따라 그 지도의 方向을 달리할 수가 있다. 그러나 變遷하는 사회 속에서 자라고 행동하는 力動的인 인간을 敎育하는 일이라면 人間成長 발달 및 학습에 대한 心理的 事實이나 民主社會의 요구; 그리고 社會變遷에 關한 基本原理에 一致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生活指導를 함에 있어서 指導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基本的으로 理解하고 指導에 臨하는 基本原理를 認識하는 것은 重要한 일로서 이를 다음에 要約해 본다.

## II. 青少年의 基本的인 理解

1. 모든 청소년은 敎育과 環境에 따라 슬기롭고 健康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다. 인간의 形成은 遺傳的 要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環境적 요인과 상호 작용을 통해서 身體的 條

件, 能力, 人性, 態度 및 價値觀 등이 결정된다.

2. 청소년은 독립된 존재이며 그들의 個性은 尊重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成人의 豫속물이 아닌 독립적인 自律人으로 성장하고 발달해야 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 인간의 個人差를 認定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3.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은 처벌하기에 앞서 적절히 指導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成人이 되는 過渡期로서 自我正體感의 危機, 反抗性, 所屬에서의 離脫, 身體的 急變과 情緒의 可變性, 社會的 未成熟性 등의 特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4. 청소년에게서 발견되는 모든 행동 양식은 어른 사회의 反映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그릇된 행동을 배우게 되는 環境을 淨化하고 社會의 健全氣風을 造成해야 한다.

5. 청소년의 敎養과 생활은 가정, 학교, 사회의 일치된 指導方向과 方法에 의한 긴밀한 협력과 公平한 指導로 이루어지며 청소년들은 부모, 교사, 이웃의 신뢰와 따뜻한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 III. 生活指導의 基本原理

1. 모든 개인은 각각의 처지에 따르는 可能性을 지니고 있으며 그 가능성이 충분히 啓發되고 伸張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을 거부하지 않고 사회의 重要한 一員으로

\* 문교부 생활지도 장학관.

받아들이는 개인의 尊嚴과 受容의 原理가 적용되어야 한다.

2. 生活指導는 모든 개인이 正常的으로 발달하도록 도움을 주는 助力의 過程이다. 문제를 가진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把握하고 問題解決을 위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며 最終의인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것은 바로 自律的인 能力과 態度를 強調하는 自律性의 原理이다.

3. 학교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문제 행동은 결국 適應의 결여에서 발생된다. 學業的 不適應, 社會的 不適應, 情緒的 不適應 등은 주로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洞察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生活指導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촉구하고 助力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므로 適應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4. 生活指導는 態度를 形成하고 價値觀을 가지며 動機를 育成할 수 있는 사회적 學習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態度의 形成과 같은 情意的 特性의 習得과 變化는 認知的 學習의 경우와는 다른 原理에 의하여 支配되며 그것은 참된 人間關係를 필요로 한다. 즉, 基本的으로 信賴할 수 있고 깊이가 있으며 상대방을 현실적으로 受容하며 感情이 交流하는 관계가 성립되는 人間關係를 말한다.

5. 自我實現은 인간의 唯一動機이며 創造의 性向의 根源이고, 인간이 보다 안전하고 충분하게 발달하도록 하는 힘이다. 自我實現의 概念은 生活指導의 중요한 原理의 하나이며 全人的인 인간으로의 자기 완성의 개념이다.

#### IV. 生活指導의 當面問題

이상에서 살펴본 청소년의 이해와 生活指導의 基本原理를 바탕으로 開放社會를 指導하는 自律化 措施에 副應하며 教育改革에 따른 生活指導의 內實化를 기하고 다가올 2000년대의 先進工業社會, 民主福祉社會, 國際社會 및 學習社會에서 主人公이 될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간적 특징인 創意的인 인간, 正義로운 인간, 成就하는 인간, 統合的인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生活指導의 當面 主要 事項을 다음에 간략하게 적어본다.

1. 학생 頭髮·服裝 自律化의 健全 定着指導  
학생의 두발·복장 자율화는 대체로 건전하게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 措施의 意義에 대한 認識이 未洽한 것 같고 더욱이 조치로 말미암아 學生 非行이 增加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認識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國力의 伸張과 政治的 안정으로 先進祖國 建設의 새로운 역사를 展開해야 하고, 政府의 開放政策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자율화를 이룩하고 있으며, 教育改革의 內實은 推進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자율적 행동의 訓練機會를 부여해야 하며, '88올림픽, '86 아시안 게임에 대비한 우리의 생활 문화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등 시대적 요청이 학생 두발·복장 자율화 措施의 背景이며 이 措施의 意義는 ①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될 학생들로 하여금 主人意識과 責任感이 강하고 自發的이며 創意性이 있는 民主市民으로 育成하는데 寄與되며, ②人間教育을 위한 教育風土 刷新의 轉機를 마련하고, ③학생 신분을 교복으로 구분하여 社會的·特殊階層으로 優待하거나 또는 統制의 대상으로 삼던 舊時代的 傳統을 脫皮하며, 學生指導에서 가정·학교·사회적 연계 지도 體制確立의 機會가 될 수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앞으로 두발·복장 자율화가 건전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정한 머리, 儉素하고 實用的이며 학생다운 옷차림이 되도록 淸準하게 지도해야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학생의 人格을 尊重하는 바탕 위에 사랑과 이해로 인내심을 갖고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 2. 全教師의 教導教師 役割遂行

물론 學習指導와 生活指導는 불가분의 것이며 一般教師가 統合的으로 指導해 오고 있으나 各種檢査 및 測定, 結果의 解釋, 處理 및 管理, 生活指導를 위한 諸般資料 및 情報蒐集, 組織管理, 相談, 교정 지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進路指導 등 전문적인 분야를 위해서 教導部의 役割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教導專擔 인력 및 시설의 부족, 過大規模學校(主로 大都市)에서 오는 학생 相談機會의 부족으로 하여 相談活動의 중요성을 심분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全

教師로 하여금 최소한의 相談理論과 技法을 익혀 일차적인 활동이라도 강화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敎導部의 組織的인 활동, 不斷한 學校內 自體研修가 있어야 할 것이다.

### 3. 進路指導의 強化

학생들에게 生涯의 設計를 위한 指導가 필요한 것은 生産手段의 발달이 증가됨에 따라 職業世界가 複雜·多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개인과 직업과의 연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進路指導에 있어서는 먼저 학생 스스로의 能力的 要因, 人性的 資質, 身體的 條件, 職業的 興味, 家庭環境의 要因에 대한 自己理解가 필요하며 여건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고 그것이 제한된 것일 때 그로 인해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自己設計의 土전으로 삼도록 하는 指導가 중요하다. 또 職業世界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여 삶의 형태 및 일에 대한 價値觀을 정립하고 職業情報도 수시로 傳達하여 장차 알맞은 職業을 選擇함으로써 幸福한 개인 생활의 營爲는 물론 社會發展에 貢獻케 하여야 한다.

進路敎育을 위한 현실적 애로가 있기는 하나 그간 文교부가 市·道敎育委員會에서 제작 보급한 각종 指導資料를 활용하여 關聯敎科 시간이나 特設時間, 그리고 相談活動을 통하여 국민학교에서 부터 段階的으로 指導하여야 하며, 특히 高3 학생의 進學指導도 進路指導의 脈絡에서 進學도록 하고, 아울러 平生敎育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專門大學, 放送通信大學, 開放大學을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 4. 性敎育의 推進

性敎育은 性差에 따른 남녀 간의 특성과 인간으로서의 평등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는 바탕 위에 科學的인 性知識의 전달이 건전한 性意識으로 학생들의 인격 속에 內面化되어 행복한 家庭人, 有用한 社會人이 되게하는 全人敎育이어야 하며, 또한 복잡한 사회에서 汎濫하는 刺戟的인 性情報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性에 대한 건전한 비판력과 선별 능력을 길러 性非行과 性犯罪를 예방하여야 한다.

현재 性敎育을 위한 獨立敎科는 없으나 關聯敎科 時間, 特設時間, 個別 및 集團指導를 통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製作·普及된 각종 指導資料를 參考하여 학교별, 교사별로 指導計劃을 세워 指導에 임하여야 한다.

### 5. 立志敎育의 推進

우리 사회가 경제 발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건실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에게까지 刹那的, 快樂的, 價値 追求的, 便法主義, 利己主義가 스며들어 自己節制力을 잃고 나약하게 자라고 있다.

높은 理想과 確固한 人生 目標를 設定하고 萬難의 어려움을 克服하면서도 자기 目標를 끈질기게 追求하는 強忍한 意志力을 培養하기 위한 指導가 切實하다. 학교에서는 逆境을 이겨낸 立志의 人物에 대한 紹介, 體驗談, 講演, 修練 등을 통하여 人生의 참뜻 찾기와 세우기 그리고 부단히 정진하기 指導에 힘을 써야 한다.

### 6. 秩序敎育 強化

3大 否定心理 追放의 과제로까지 設定하여 거리·交通秩序, 行樂秩序, 競技場秩序, 公共秩序 지키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88 올림픽에 대비한 文化國民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려는 것만은 아니다. 秩序야 말로 民主社會의 表象이며 자유와 自律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어릴 때 부터 秩序生活을 생활화하여 先進祖國의 一翼을 담당하여야 한다.

### 7. 學生 健全活動 指導

◇ 餘暇指導 強化: 餘暇指導는 학생이 다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뜻있게 보낼 수 있도록 풍부하고 광범위한 學習環境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학생의 精神健康 增進 뿐만 아니라 공부나 일의 能率向上에 중요하다.

한참 자라나는 학생이 餘暇時間을 善用치 못하고 放置하면 오히려 나쁜 행동으로 誘導되기 쉬우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餘暇時間을 잘 測定하여 發達段階에 알맞은 指導 프로그램을 개발, 어릴 때부터 다음 事項에 留意하여 指導에 힘써야 한다.

○ 精神的 活動과 身體的 活動이 함께 이루어

지도록 指導한다.

○ 趣味生活, 心身の 개발, 精神衛生, 素質의 개발 및 創意的인 생활이 될 수 있게 指導한다.

○ 개인의 적성, 취미를 고려한 選擇的인 내용으로 構成한다.

○ 學校 特別活動 시간과 관련시켜 效率的으로 指導한다.

◇ 學生自治活動의 活性化: 어린이會(初), 學生會(中), 學徒護國團(高)의 自治的인 活動能力을 향상할 수 있도록 指導하고 全體學生이 學藝 및 體育 등 各部 活動에 적극 참여하여 自治活動의 經驗을 쌓을 수 있도록 指導하여야 한다.

◇ 現場學習의 活性化: 自然觀察, 史蹟地踏查, 戰蹟地見學, 聖域巡禮, 產業施設見學, 鄉土文化 찾기 등 학교 밖의 現場學習活動을 강화하므로써 폭넓은 學習經驗을 쌓게 하여야 한다.

◇ 學生修練 強化: 學生教育院, 學生修練場, 學校生活館, 청소년 野營場, 自然의 집 등을 利用한 修練活動과 臨海學校, 林間學校의 運營 등을 통하여 透徹한 國家觀과 國民意識을 培養하고 秩序 있고 自制力 있는 生活訓練을 갖도록 해야 한다.

## 8. 離脫行動의 豫防과 指導

A.K. Cohen은 離脫行動을 어떤 社會體制 속에서 正當한 것으로 承認되고 있는 기대를 깨뜨리는 행동이라 한다. 예를 들면 非行이나 犯罪行爲와 같은 反社會的인 행동이 그것이다.

근래 學生들의 問題行動을 보면 暴力, 金品喝取, 集團 싸움, 절도 행위, 家出, 風紀紊亂, 頽廢遊興業所 出入, 吸煙, 飲酒, 음화 돌러 보기, 학업 기피, 兇器所持 등이다. 이와 같은 問題行動이 증가하는 원인으로서는 現代社會가 나타내는 家族의 弱體化, 靑少年期의 延長, 價値觀의 混亂, 유흥적 환경, 未熟한 自律性 등으로 생각된다.

離脫行動의 豫防指導를 위해서는 早期豫防을 위한 專門的인 방법과 道具가 연구되고 있으나

이것은 여기에서 論外로 하고 당면한 학교에서의 指導努力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要善導 學生 및 불량 모임의 파악 善導

○ 問題性 발견을 위한 繼續的인 觀察指導

○ 스승과의 對話機會 擴大

○ 學生 非行 유발 퇴폐 업소 告發

○ 生活指導 脆弱地區에 대한 隨時指導

○ 家庭과의 連繫指導

○ 각종 非行 豫防 프로그램 개발 활용

9. 學父母 啓導를 통한 가정의 教育樣態 強化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은 생활의 根幹이 되는 가정에서의 役割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學生指導의 1차적인 責任은 가정에 있다. 가정의 教育機能 강화를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學生指導의 2차적인 責任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의 役割이 現實的으로 보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學父母 啓導를 위한 連繫體制를 確立하고 要善導 學生 學父母의 來校 相談 雰圍氣를 造成하여, 學父母 啓導 내용을 意圖的으로 選定하여 計劃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V. 結

인간이란 일정한 生活 共同體의 질서, 制度와 機構 안에서 생활하고, 그러한 秩序와 制度와 機構 안에서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存在이다. 따라서 人間性의 成熟이나 最善의 自我實現 등을 위한 人間教育은 그러한 生活 共同體의 秩序, 制度, 機構 등과 關聯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生活指導의 모든 過程도 우리 民族의 文化的인 正體性의 重要性을 깊이 認識시키는 교육, 그리고 이데올로기 批判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한 사회의 構成員으로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한 시대의 生活人으로서 바르고 뜻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成熟을 指向해야 할 것이다. —◆—

# 컴퓨터 敎育은 왜 해야 하는가

柳 完 永\*

## 序

컴퓨터의 사용 영역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 점점 확대되어 감에 따라 신문과 방송은 컴퓨터의 사용 예와 프로그램 언어 등을 매일이다시피 보도하고 있다. 그 목적이야 어디 있든지 간에 이와 같은 보도들은 컴퓨터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한다. 실제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 시코이기는 하지만 많은 分野에서 컴퓨터가 이미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계획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징후들은 컴퓨터가 차지하는 사회적 역할이 더욱 커질 것임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문교부에서는 商·工高에 이어 일반 高等敎育에서도 내년부터 컴퓨터 敎育을 실시 한다고 하며, 머지않은 장래에 中敎敎와 國敎敎에서도 컴퓨터 敎育을 확대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변혁은 敎育에 영향을 주고, 敎育자들은 이와 같은 변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게 된다. 컴퓨터 敎育도 예외없이 그 실시 여부를 놓고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컴퓨터 敎育을 반대하는 입장을 살펴보고, 컴퓨터 敎育을 해야 할 當爲性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컴퓨터 敎育의 확대 실시에 대한 저항이나 비

판의 辨은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에 대한 막연한 혐오감, 敎育이 業者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는 저항감, 인간이 컴퓨터의 종속물이 되지 않느냐 하는 두려움, 그리고 敎育을 실시할 여건의 미비 등등이 반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방향으로 반대의 이유들을 대별해 보면 컴퓨터 敎育은 하기는 하되 시기를 보아서 차차 실시하자는 쪽과, 컴퓨터가 인간 고유의 영역을 침범할 염려가 있으니 아예 컴퓨터를 멀리 하자는 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는 컴퓨터 敎育의 當爲性을 논하면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敎育 실시 여건의 미비 때문에 미루자는 의견만을 살펴 보겠다.

컴퓨터 敎育의 실시 여건으로서는 하드웨어 등의 시설·설비 문제, 소프트웨어, 敎科書, 敎育課程 등의 敎材 문제, 그리고 가르칠 敎師의 확보 문제 등으로 나누어 진다. 컴퓨터 기자재 값은 아직까지는 비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마이크로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컴퓨터 하드웨어들은 과거에 비해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MIT 大學의 Papert 敎授는 서기 2000년이 되기 훨씬 이전에 현재의 대형 IBM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용량과 필적할 만한 마이크로 컴퓨터가 아이들에게 장난감 사주는 정도의 값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Papert의 예언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알 수 없지만 계산기의 값이 과거에 비해 훨씬 저렴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하드

\* 敎育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철학 박사.



웨어의 값도 많이 떨어질 것은 사실이다. 教材 문제는 항상 量보다 質과 관계가 있다. 오래 전부터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 온 美國에서도 소프트웨어의 質에 대한 논란은 끊임이 없고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教育課程 또한 없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教材란 일반적으로 교육의 실시에 앞서 나타날 수는 없다. 教材는 교육을 실시하는 過程에서 나타나고, 수정과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이다. 教師의 확보 및 質 문제 또한 컴퓨터 교육의 실시 여건으로 흔히 대두된다. 프랑스의 경우 초기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때 전국에서 100명씩을 뽑아 1년간씩 훈련 과정을 거쳐 내보내는 방법을 써서 教師의 확보 문제를 해결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각종 연수를 통해 教師들을 再教育하고, 새로이 대학에 신설된 電算學科를 통해 교사들을 배출해냄으로써 컴퓨터 교사 확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전망이다.

## II

그러면 컴퓨터 教育은 왜 해야 하는가? 컴퓨터 교육의 當爲性을 論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좋은 점들을 먼저 파악해야 되리라 본다.

컴퓨터란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일련의 간략한 지시에 따라서 기호화된 情報들을 조작하는 하나의 전자 기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컴퓨터란 단순한 전자 기제가 아니고 인간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고도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해 주는 기제이다. 컴퓨터는 또한 수백만번 되풀이되는 일거리들도 저증을 내지 않고 일을 해 주는데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컴퓨터를 배우게 되면 컴퓨터의 고속성, 정확성, 그리고 인내성을 이용하여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힘을 절약하면서도 신속하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사람들은 오늘날의 社會가 産業社會에서 情報社會로 전환되었다고 말한다. 科學 文明의 발달로 수많은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인간 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혹은 인간 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수많은 정보들을 다뤄야만 하게 되었다. 오늘날 미국에 있어서 과학에 기초한 정보 산업은 국민 총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

다. 따라서, 이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일일이 사람 눈으로 읽고 머리 속에 기억한다는 것은 시간상, 능력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은 이와 같은 정보들을 찾는 데에만 온통 정력을 쏟을 게 아니고 폭발된 지식이나 정보들을 통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도 통달하여야 할 것이다. 그 예가 바로 컴퓨터에 폭발된 지식과 정보들을 기억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간편하고도 빨리 컴퓨터로 하여금 찾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75년 이후에 간행된 컴퓨터 교육 분야의 「교사 훈련」에 관한 글이나 논문을 추적한다고 할 때, 컴퓨터는 이 세 가지 분류어를 모두 만족시켜 주는 글이나 논문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또 어느 하나만 만족시켜 주는 자료 목록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자료의 양이 많고 적음은 분류어의 수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오늘날의 「안다」는 개념은 우리의 머리 속에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과정을 갖고 있다는 뜻도 된다. 情報社會에 있어서 신속한 情報의 획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속한 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컴퓨터 공학의 이해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컴퓨터 교육은 情報社會에서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길러준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하겠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 보면 많은 일들이 이미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은행, 가게, 회사, 관공서, 공장 등 그 예는 헤아릴 수 없다. 이와 같은 컴퓨터의 활용은 일상 생활에 더욱 보편화되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사회에 나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人力資源의 양성을 위하여 학교의 컴퓨터 교육은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 수에 비해 국토의 면적이 좁은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우수한 두뇌를 활용하여 지식, 기술 집약형의 산업과 높은 부가 가치 생산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컴퓨터 서어비스 산업이야 말로 이러한 기본 방침에 적합한 전략적 중요 산업이다. 그러므로 컴퓨터 교육은 컴퓨터 科學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시급히 요청된다.

### Ⅲ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면 컴퓨터가 일을 수행하는 과정처럼 인간의 思考力을 구속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컴퓨터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컴퓨터에 대한 過信이 아니면 誤解에서 비롯된 것이다. 컴퓨터는 빠른 속도와 정확성을 갖고 있다는 데서 위대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하는 主體는 어디까지나 인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컴퓨터가 인간을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컴퓨터를 프로그램화한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간이 컴퓨터를 프로그램화하여 컴퓨터로 하여금 인간을 부리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 그 원인은 어디까지나 컴퓨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다. 실령 컴퓨터와 인간이 함께 일을 한다고 해서 兩者 사이에 主從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컨베이어에 실려 나오는 제품을 담은 인부가 휠 사이도 없이 손을 놀리도록 제품이 쏟아져 나온다고 해서 그 인부는 컨베이어의 노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교육은 또한 인간의 思考力을 퇴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신장시킨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 경우 먼저 문제를 완전히 파악해야 되고, 답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구체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특정한 프로그램 언어로 바꾸어 넣어야 하는 등의 思考過程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직선 거리로의 방법을

모색하게 되므로 思考를 정리하는 훈련도 겸하게 된다. 문제는 컴퓨터가 인간을 구속하느냐 아니냐라기 보다는 인간이 얼마나 컴퓨터를 잘 다루느냐에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컴퓨터 공학의 사회적 역할을 증시하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공학적 발전과 일반인의 공학에 대한 이해 사이가 점점 벌어져 가고 있다고 본다. 실상 일반 대중의 컴퓨터에 대한 이해와 응용은 컴퓨터의 능력과 사용 가능 범위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컴퓨터 공학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대한 일반인의 느린 이해 사이에 생기는 괴리는 과학은 물론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 Ⅳ

지금까지 컴퓨터 교육 실시상의 문제점과 컴퓨터 교육의 당위성을 몇 가지 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컴퓨터와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는 文化가 공학도만의 專有物로 계속 남아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컴퓨터 문화를 형성하는 過程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知的 환경을 새로이 형성할 것이냐하는 기로에서 있다. 이는 또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靑신을 신고 설 사이도 없이 뛰어가는 운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1분 내에 도착하여 일을 보고 남은 시간에 맑은 냇물에 발을 적시고 감상하는 운치를 택할 것인가 하는 말로 비유될 수 있다.

바야흐로 컴퓨터 교육은 시급히 실시되어야 할 당면한 과제이며, 아울러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必然的인 歸結이다. —————◆

## 美國의 教育改革 動向\*

李 君 賢\*\*

### I. 序

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실 개혁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 때, 미국의 教育改革 動向을 고찰해 보는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한 일이다. 교육의 質的 低下는 바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국제적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國家의 危機를 초래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교육 동향을 알아보고 우리 교육의 과제를 찾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981년 美國 教育省의 위촉에 따라 18인으로 구성된 국가진흥위원회(NCEE)는 미국의 教育危機에 대해 경고하고 미국의 教育改革에 대해 이미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만민에게 교육의 機會均等의 보장을 위해 소위 어떤 最低基準을 정해놓고 그 最低基準의 달성에 관심을 쏟아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와서는 초·중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도 教育의 質을 높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난 1981년도에 교육진흥위원회가 출간한 보고서의 건의안을 중심으로 먼저 미국의 교육 현황 및 교육 개혁의 추세를 개괄해 보고자 한다.

### II. 聯邦政府와 州政府의 관계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미연방정부와 州정부와의

\* 이 글은 본원의 『海外教育情報 IEI 83-1』을 기초로 해서 쓴 것임.

\*\* 교육발전연구부 책임연구원·철학 박사.

1) 여기서 영향력이란 행정적 負擔과 干涉을 뜻함.

관계를 잠깐 살펴보기로 하면,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美國의 教育은 사실상 주정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연방정부가 인권·극빈자·소수 민족 및 특수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影響力을 행사하고 있으나, 현 헌법하에서는 주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협력없이 所期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한 예로, 지난 1970년대는 평등권, 특수아 및 인종 차별에 대한 政策 등에서 연방정부의 바라는 바와 주정부의 실제 수행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연방정부가 주장하는 교육 내용과 주정부가 실제로 실시하는 교육 내용과는 一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주마다 초·중·고의 卒業狀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기준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一貫性있는 국가 교육의 수행이 쉽지 않은 것이 현 미국 교육의 실정이다. 더구나 1982년 제14차 갤럽 조사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영향력<sup>1)</sup>이 훨씬 더 감소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다.

### III. 미국 교육의 문제점 및 개혁안

#### 1. 教育內容의 문제

현재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득한 학점의 25% 정도가 체육, 보건 교육, 교외 실습, 보충 영어 및 보충 수학, 그리고 성인 교육 및 결혼 준비 교육과 같은 主知科目 이외의 과목들이다. 미국의 중등 교과 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가 필수

과목의 수가 적고 많은 과목을 선택하게 하므로서 졸업을 하기 위한 최저 기준만을 만족시키면 되는 데에 있다.<sup>2)</sup> 한 예로, 미교육진흥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교육 과정 분석 결과를 보면 中級代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중 31% 정도만이 이를 수료하고 있을 뿐이고 미적분은 학생의 60%가 수강하고 있는데도 이를 완전히 마친 학생수는 6%에 불과한 실정이다.<sup>3)</sup> 따라서 주립 및 지방 고등학교의 졸업 자격 기준을 強化시켜 일단 학교에 들어와서 졸업을 하려면 모든 학생은 최소한 고등학교 4년(9학년~12학년) 동안에 영어 4년, 수학 3년, 과학 3년, 사회 3년 및 컴퓨터 6개월의 교육 과정을 이수케 함으로써 5개의 基礎科目에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 건의안에서 컴퓨터 교육을 기본 교과 중에 하나로 본다는 사실에 특히 注目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를 이해하여 정보·통신·제산 도구로 사용함은 물론 다른 기초 과목을 공부하는데 응용하고 과학·기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등학교에서의 컴퓨터 교육의 목표이다. 미국의 교육 개혁 중 두드러진 것의 하나가 교육 공학의 발달 및 擴張인데 특히, 컴퓨터가 더욱 그러하다. 컴퓨터 공학에 관여하고 있는 대기업체의 役割은 마치 교과서의 출판업자와 마찬가지로 지이다. 교육에 있어서 미래 학생들은 컴퓨터의 보급이 교사의 역할 및 책무를 대신함으로써 교사의 숫자까지도 줄일 것으로 내다 본다.

이상의 다섯 가지 기본 과목 외에도 외국어 교육의 강조를 들 수 있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외국어를 이해함으로써 상업·외교·국방 등에서 國益을 증진할 수 있으므로 외국어 교육은 국민학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 내용 개혁과 연관해 볼 때 또 하나의 문제는 4년제 미국 공립대학의 20%가 고등학교 때의 성적이나 履修科目에 관계없이 같은 州內의 고등학교 졸업생은 모두 입학시키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학업 적성 검사(SAT) 결과를 보면 어휘 점수는 평균 50점, 수

학 점수의 평균도 거의 40점 가까이 떨어지는 등 계속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은 필수 과목 지정, 필수 과목들의 이수 조건 및 취득 과목의 성적 등 입학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 2. 연간 수업 일수 및 일일 수업 시간의 문제

교육진흥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수업 일수 및 일일 수업 시간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훨씬 적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고등학교 학생이 보통 하루에 8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연간 220일의 수업 일수를 갖는다. 이와 비교하면, 미국에서는 대부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6시간 정도이고 1년의 수업 일수는 고작 180일이다. 더우기 요리나 운전 같은 과목을 배우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나의 實踐方案으로 教育위원회는 教育구청과 州의회에 대하여 고등학교의 경우 적어도 하루 7시간 수업과 1년에 200~220일의 수업 일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실은 영재아 몇 지진아를 위한 교과서 개발 기금의 확보와 이들의 요구에 알맞는 별도의 시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학교들이 점차적으로 우수반 편성 및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여기에 在籍하고 있는 학생들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간에 관한 또 하나의 실천 방안으로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현재와 비교해서 숙제량을 대폭 늘리도록 하고 있다.

## 3. 敎職에 대한 문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학문적인 면에서 우수한 전문적 교육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교직에 대한 適性이 맞고, 교육에 대한 信念, 즉 인간 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교육이 국가의 번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소명감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教育진흥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현 미국 교사들의 대다수가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2) 13개 州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수 과목의 50% 이상을 학생 자신이 선택할 수 있음.

3) 教育진흥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학을 1년만 이수하면 되는 州가 35개 州, 과학을 1년만 공부하면 되는 州가 36개 州임.

교 졸업자 중 성적이 하위권에 속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교사의 養成課程을 개선하고, 교직이 존경받고 좀 더 보람된 專門職이 되도록 건의하고 있다. 실천 방안으로는 다른 직종과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도록 現實性이 있어야 한다고 前提하고 능력있고 우수한 교사는 응분의 우대를 받고, 유능하지 못한 교사는 再教育을 받도록 해서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사직하도록 해야 한다는 強硬案을 提示하고 있다.

현재 수학, 과학(특히 물리), 외국어, 영재 교육 및 특수 교육을 담당한 교사가 특히 부족하다. 우수한 학생들을 이와 같은 교사 부족 사태가 심각한 과목의 교직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조급, 용자급 등의 각종 장학 특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의 報酬가 낮고 현재 고용 계약이 9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교사가 평상시 방과 후 야간 부업(moonlight job)을 하거나 또는 하기 방학 동안 각종 일 자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이러한 현상이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구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진흥위원회는 교사에 대한 봉급 인상과 11개월간의 교사 임용 고용 계약제를 採擇함으로써 교육 과정의 개선 및 교사의 자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건의안을 내고 있다. 수학 및 과학 교사의 심각한 부족 현상을 解決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는 학교 밖의 자격있는 기관, 산업체 및 퇴직 과학자들을 적절한 준비 과정을 거쳐 활용할 수 있는 方案을 건의하고 있다.

#### 4. 早期教育和 平生教育의 실시

미국에는 유치원 이전에 Day Care Center, Preschool 및 Nursery School 등의 조기 교육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다. 더우기 최근에는 교육 공학의 발달로 2세 이전에 이미 TV 등의 교육 매체를 통한 학습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자신이 지닌 교육적 문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때 평생 교육의 실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正規教育은 앞으로 일생 동안의 학습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정규 교육의 뒤를 잇는 平生學問이 계속되지 않을 때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

은 곧 낡은 것이 되고 만다. 교육진흥위원회의 글을 빌릴 필요도 없이 급변하는 현대 또는 경쟁적이며 고도화된 산업 사회는 새로운 지식의 増大를 절대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필요를 절감하고 있고, 교육 개혁은 일생을 통하여 학습하는 사회를 創造한다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교사, 회사원 및 일반인 모두가 한결 같이 일생 동안 학습해야 한다는 자세를 취함은 물론이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많은 숫자의 40~50대의 成人들이 새로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학으로 되돌아 온다.

또한 현실적으로 교사의 경우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서의 이수 학점수는 봉급 액수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 이와 같이 미국은 평생 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시민의 資質을 갖추고 새로운 생애를 追求하고 있다.

#### 5. 開放社會 추구 및 국제 사회의 이해

물론 이러한 추세는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바 있듯이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함으로써 그 국가의 문화에 접하고, 국방·외교·교육·상업에 있어서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미국 교육은 國際理解를 증진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학교도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적 발달 추세 및 이러한 발달이 주는 개인적·사회적 의미를 배우게 하고 있다.

#### 6. 학교 재정 지원의 改革

물론 이것은 1970년대 초부터 꾸준히 變革되어 온 것이다.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州가 학교 재정을 Local Property Taxes(教育區內的 주민들로부터 학교 재정을 위해 징수하는 재산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나 1971년과 1975년 사이에 무려 18개 州가 공립 학교의 재정 부담률을 평균 39%에서 평균 51%로 인상하는 法案을 만들었다. 상대적으로 1971년에서 1979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에 지방 자치 단체의 공립 학교 재정 지원 부담률이 평균 52%에서 44%로 감소했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주정부의 공립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미국 교육의 趨勢이다.

#### IV. 結

이상에서 우리는 교육진흥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최근의 미국 교육의 움직임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미국 교육의 움직임은 對外的으로 국제 경쟁에서 앞서려는 미국민의 열망의 表出이라고 본다. 교육진흥위원회가 강조하듯 미국이 바라는 바 소기의 교육 개혁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주정부의 주도하에 연방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협력이 상호 有機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납세자들, 즉 教育區 내의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교육 개선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그들의 적극적인 參與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서 학생 자신이 학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인들의 위기에 대처한 결의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미국민의 교육에 대한 개혁안이 앞으로의 우리 교육 개선을 위하여 시사할 수 있는 몇 가지 課題를 간단히 기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 행정가의 專門化가 시급히 요청된다. 교육 내용의 개선과 재구성, 평생 교육과 조기 교육의 실시,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한 학교 기능 및 역할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학력, 경력 및 경험을 고루 갖춘 統合된 자질을 갖춘 전문인을 要한다. 따라서 현재의 몇 주에 걸친 교육 행정가 자격 연수로는 앞으로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교육 행정가 양성 제도 및 자질 개선 방법에 대해 허심 탄회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현재 偏重化되어 있는 중앙 집권 제도의 개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방 교육 행정 기관의 장점과 역량을 최대한 살리는 教育運營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교육 행정 조직 간의 권한과 책임의 재분배 및 조정을 위한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교육의 質과 교원의 자질 개선을 위한 자금의 확보 방안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수한 人材를 교직에 유치하고 그들의 계속적인 자기 발전, 나아가서는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재원의 다양화 및 확보 방안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연구와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

#### ● 교과서를 기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이 한국(한국 2중교과서협회) : 먼 나라 역사(1953년간) 외 600권
- 구 지역(교육과정연구부 연구원) : 各科指導法綱要(1942년간) 외 2권
- 박 창규(인천여고 교사) : 新撰小物理學(1906년간) 외 6권
- 최 상운(교학도서주식회사 사장) : 신편 고등 생물(1960년간) 외 299권

## 日本の 教育改革 動向

孫 相 喆\*

### I. 日本 教育이 안고 있는 難題

요즘 일본은 교육 문제로 모든 매스 미디어가 동원되어 법석이다.

文部省에서 公立中·高校를 대상으로 校內暴力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학교에서는 1,388개교, 고교는 415개교에서 교내 폭력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全公立 中學校의 13.5%, 全公立 高等學校의 10.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또 對教師暴力은 중학교 657개교에서 被害教師가 1,715명, 加害學生數는 2,810명이나 되고 高校의 경우, 118개교에서 被害教師 165명, 加害學生이 238명이나 된다.

지난 3월에 있는 졸업식 당일에는 중학교 269개교, 고교 11개교에서 學生暴力을 예방하기 위해 경관이 임회를 했다.

이 몇 가지의 統計値는 日本의 教育이 안고 있는 고민의 일단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지금의 靑少年 世代가 일본을 떠맡았을 경우, 지금의 이 經濟的인 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精神的 道德的인 荒廢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靑少年들을 어떻게 바르게 이끌 수 있을 것인가가 일본의 既成世代 모두의 課題가 되어 있다.

최근 나카소네(中曾根) 首相은 私的 諮問機關으로서 「文化和 教育에 관한 간담회」를 發足시

켰다. 나카소네 首相은 이 간담회의 主題를 “世紀를 향해 참된 人間形成을 꾀하기 위하여 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에 두고,

① 入試制度의 改革(偏差値中心의 受験戰爭의 問題)

② 6,3,3,4制 등 教育制度의 改革

③ 教育의 基本的인 問題研究 등에 중점을 둔 教育改革案을 조속히 만들고 싶어하고 있다.

公的 諮問機關인 中央教育審議會가 있는데도 이러한 私的 諮問機關을 나카소네 首相이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本人도 記者會見에서 밝힌 바 있지만 行政改革 다음으로 教育改革에 중점을 두고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다.

지난 6월 參議員 選舉로 日本 社會가 떠들석했다. 이 선거의 重要한 爭點의 하나가 「教育政策」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었고, 또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執權黨인 自民黨은 앞으로 日本을 젊어지고 나갈 靑少年을 豊富한 個性과 創造性, 社會性, 連帶感과 公共의 精神을 갖고 同時에 國民意識과 國際感覺을 갖춘 國民으로 기르기 위해,

① 資質과 指導力, 自覺과 使命感을 가진 教員養成 ② 入試制度의 改善과 適性에 응한 進路指導의 充實 ③ 武道를 義務教育의 正課로 하는 것의 檢討와 實施의 準備 ④ 용감하고 심성이 풍부한 兒童, 生徒를 육성하기 위해 特色있는 學校施設 整備促進 ⑤ 大規模 學校의 解消와 教

\* 駐日 韓國大使館 教育官.

師와 生徒의 마음이 서로 접하는 學校 만들기 ⑥ 公民館, 書館, 少年自然의 家, 기타 社會教育의 諸施設의 整備·擴充 ⑦ 育英獎學事業의 擴充 등을 들고 있다. 文部省은 이러한 山積한 教育問題를 中央教育審議會의 小委員會 活動을 통하여 여론 환기와 더불어 개혁을 꾀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改革을 몇 가지 部面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Ⅰ. 敎員養成의 問題

일본은 지금 良質의 敎員養成을 위해 새로운 敎員免許制度를 마무리지었다.

세토(瀬戶) 文部相은 「敎員의 양성 및 免許制度의 改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學校教育에 관한 諸問題가 複雜多樣化하고 있는 상황 아래서, 國民 및 教育界에서 敎員의 資質能力을 일층 높일 필요가 있다는 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고 세찬 情熱과 實踐的 指導力을 가진 敎員養成에 대한 요망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 6월 15일 敎員養成審議會가 발표한 諮問事項의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첫째, 敎員免許狀의 種類를 現行 2種類(1級, 2級)에서 3種類로 개선하고 있다. 大學院 碩士課程修了를 기초 자격으로 하는 上級免許狀과 大學卒의 普通免許狀, 短大卒의 初級免許狀이다 (명칭은 아직 가칭임).

둘째, 免許狀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專門科目(敎科專門科目과 敎職專門科目)에 있어서 그 最低履修單位數를 다음과 같이 높였다.

- 初級免許狀은 40單位 정도(現行 初·中學校 2級免許狀은 26~30單位)

- 普通免許狀은 70單位 정도(現行 中學校의 1級免許狀, 교교의 2級免許狀은 44~54單位)

- 上級免許狀은 94單位 정도(現行 高校의 1級免許狀은 66~76單位)

이것은 敎員으로서의 實踐的 指導力, 使命感을 일층 높이기 위한 것이다.

生徒指導, 特別活動, 教育方法 등의 分野가 필수로 되고 있다.

세째, 現행 教育實習의 最低履修單位數는 初

等教育關係(初·小)가 4單位, 中等關係(中·高)가 2單位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8單位로 높이고 있다.

지면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지만, 하여튼 지금 일본 교육은 학생은 교육의 능력만큼 指導된다는 判斷 아래서 제 1차적으로 교원의 문제에 力點을 두고 있는 것만은 틀림 없는 것 같다.

## Ⅲ. 敎科書 政策의 問題

두번째로 일본은 교육 내용의 개선에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다. 새로운 敎科書를 통하여 새로운 日本人像을 定立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의 具體的인 예가 敎科書政策이다.

내년 봄에 사용될 中·高校의 敎科書 檢定結果를 보면, 中學社會科의 公民敎科書에 애국심이 등장하는 것을 비롯, 自衛隊의 合法性이 거론되고 國民의 義務가 강조되고 反核·軍縮의 非現實性이 記述되어 있다.

지난 5월 30일에 文部省에 제출된 中央教育審議會 敎科書問題小委員會의 答申案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敎科書의 著述 및 編輯

敎科書가 지니는 公共性에 비추어 高等學校 敎科書 發行者의 指定制度를 검토할 것, 그리고 敎科書의 著作者名은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자의 명의로 할 것.

### 2. 敎科書의 檢定

1) 敎科用 圖書檢定調査審議會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것.

2) 檢定基準은 보다 명료하게 작성하고 학생이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익히고 앞으로 나라를 짊어지게 될 제 2의 國民임을 자각케 하고 학습 지도 요령 속의 「目標」와 「內容」등이 구체적으로 實現化될 수 있도록 檢定基準細目을 잘 것.

3) 檢定の 延宕성을 기하기 위해 檢定の 週期를 延長시킬 것(현행 3년을 4년 정도로).

4) 현행 敎科書의 檢定制度에서는 檢定의 主體인 敎科用 圖書檢定調査審議會가 著作者 및 發行者에 대해 基本方針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한 著作者側으로 부터의 意見提示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檢定審査의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다만 檢定の 結果에 대해서는 論點을 널리 公開할 것을 검토한다.

### 3. 教科書 採擇

教科書의 基準設定과 그 採擇業務間의 보다 긴밀한 相互連帶를 기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한다.

1) 道都府縣의 教育委員會가 교과서의 選定範圍를 정하고 市町村 教育委는 이 선정 범위 속에서 실제로 教科書를 채택하도록 한다.

2) 이 때 市町村 教育委의 교과서 채택 지구는 道都府縣 教育委의 하부 기관인 教育事務所(郡單位)의 관할 지구 또는 수개 사무소의 관할 지구로 확대할 것을 고려한다.

4. 義務教育 教科書의 無償支給 등이다.

이 答申案은 지난 6월 30일에 다시 확인되는 걸차까지 가졌다.

文部省은 이 答申書를 채택, 실시하기 위해, 다음 통상 국회를 겨냥, “教科書法案”의 整備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금 비틀어져가고 있는 靑少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教育을 통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禮節이 바른 사람으로 길러지도록 해야하고 이를 위해 教育內容이 담겨져 있는 教科書를 국가에서 意圖的으로 統制 強化하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 IV. 入試制度의 改革問題

入試制度의 改革問題는 大入 뿐만 아니라 高入까지도 절실하게 論議되고 있다. 이것은 教育改革 이전의 우리 나라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학교 교육은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수준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學歷偏重의 社會的 風潮 때문에 進路選擇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個性과 능력이 도외시되고 受驗戰爭의 渦中에서 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본래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에 응하여 知·德·體의 調和를 기한 풍부한 人間性을 길러주어야 할 學校教育의 現場이 그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고 지적되고 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능력을 伸張시키고 啓發하는 곳이 되고 있지 않아, 집에 돌아간 후에는 學習熱에 다니는 등 많은 학생들이 여유없는 무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受驗戰爭의 問題性은 國民意識과 社會의 構造的 問題에도 관련이 있어 入試制度 改革만으로 시정될 문제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개선되도록 檢討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다.

高校入試: 高校入試는 중학교를 중심하여 많이 일어나고 있는 非行, 學校教育의 荒廢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되고 있다.

현행의 公立 高校入試는 1966년부터 시작되었다. 入試의 전체적인 태두리는 文部省에서 결정하지만 試驗科目數나든지 內申書의 比重 등은 各道都府縣에 일임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高校進學率이 94%를 넘어, 高校進學 希望者는 거의 고교에 진학하고 있는데 弊害가 많은 選拔制를 存續시켜야만 하는가 하는데 있다.

文部省은 지난 4월 28일, 처음으로 9개 道都府縣 教育委의 高校入試 擔當課長들을 초청,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것은 구체적인 入試改善作業의 第1步에 불과하지만 뜻은 크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난 5월 19일에는 두번째로 「高校入學者 選拔方法에 관한 意見交換會」를 개최하였다. 이 모임에서 ① 調査書(學習의 記錄)의 記載內容 및 取扱 ② 推薦入學의 取扱 ③ 中學校에 있어서 進路指導의 方法 ④ 高校教育을 받기에 족한 資質 능력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의견과 실정을 교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調査書란 우리 나라의 內申書와 비슷한 것으로 여기에는 學習態度, 生徒會, 學級會活動, 클럽 활동, 學級指導, 學校行事 등의 觀察記錄과 學習記錄이 수록된다.

地方教育委에 따라 비율은 다르지만 대체로 學力檢査 25~35%, 調査書 75~65%의 비율로 선발하고 있다.

大學入試: 大學入試는 國立大學協會가 주가 되어 5年 전부터 해마다 共通一次 試驗을 치르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豫備考査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反面 이에 대한 의견과 비판이 각 방면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入試方法을 근본부터 재검토하여 문제의 소재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적절한 大入方法을 모색 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國立大學協會는 지난 6월 21일과 22일 양일간 會議를 열고 入試改善特別委員會를 설치했다. 지금까지 第2常置委員會가 自由討議로 추진해 온 共通一次의 出題科目數, 二次試驗의 수험 기회의 확대 등의 문제에 있어서 第2常置委員會와 연계를 유지하면서 審議를 진행, 가급적 빨리 보고서를 매듭지을 方針인데 1년 半 정도의 검토 시기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V. 育英獎學事業의 改善

育英獎學事業은 교육의 機會均等を 確保하고 國家社會에 유용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觀點에서 量的 擴充과 내용의 多樣化를 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無利子貸與制度, 長期低利의 有利子貸與制度, 그리고 教育職, 研究職에 대한 返還免除制度 등으로 大分할 수 있다.

文部省은 「育英獎學事業에 관한 調查研究會의 答申書에 따라, 事業의 擴充整備의 具體案을 來年度의 예산 편성시까지 매듭지어 次期通常國會에 日本育英會法 改正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특히, 이 育英獎學事業에는 教育職, 研究職에 대한 返還免除制度가 설정되어 있어 國家社會의 유용한 人材育成과 確保에 유효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장래의 발전의 기본이 되는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확실한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基本的 施策으로서 매우 높은 評價를 받고 있는 제도이다. 요즘 日本의 教育現場에 갖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자질이 높은 敎員의 確保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데 이러한 狀況 아래서 人材確保施策의 일환으로 返還免除制度는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환

영을 받고 있다.

## VI. 改革을 향한 끊임 없는 努力

일본 교육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是認하면서도 일본 사회의 保守性 때문에 좀처럼 改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文部省은 中央教育審議會의 小委員會를 적절히 활동시켜 활용하고 있고 각종 調查會 등의 活動內容도 알차고 바람직하다.

지금 中央教育審議會의 「教育內容」등 小委員會에서는 「국민학교 저학년에서 教科構成方法」등에 중지를 모으고 있다.

日敎組에서는 12年制 義務教育論을 提起했지만 日經聯에선 中學校 義務教育廢止論을 내세웠다. 非行學生은 公立 中學校의 退學處分이 불가능하고 3년이 지나면 성적에 관계없이 졸업이 가능하여 좋으나 싫으나 거의 高校進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온 주장이다.

地方教育費 分析內容을 보니까 學校種別의 아동, 생도 1인당 學校教育費가 幼稚園 31萬圓, 국민학교 45萬圓, 중학교 55萬圓, 고교가 65萬圓이었다. 公立 高校의 半數가 마이크로 컴퓨터의 施設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역시 主體, 客體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일본도 돈만으로 解決 못하고 있는 너무도 많은 教育難題를 안고 있다.

쉽게 해결될 展望도 복안도 아직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으나 서두르지 않는 것도 인상적이다. 日本 成人들은 몇이든 모여 옛날에 즐기던 軍歌를 合唱하면 마음이 합쳐진다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이들은 底力을 갖고 있다. 이런 底力 위에도 教育을 再建하려고 意圖하고 있는 것 같다.

어디를 가나 섹스, 폭력의 영화 잡지, 實演現場을 목격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靑少年의 非行은 두려워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본은 발전하고 教育的 難題는 점진적으로 해결되어 갈 것이란 점이다. —————◎

## 영국의 교육 개혁 동향

과 병 선\*

### 영국이라는 나라

영국하면 대체로 노대국(老帝國), 넬슨 제독, 처칠, 런던탑, 의회 민주주의 나라 등 여러 가지를 연상케 한다. 런던 중심가에 가보면 트라팔가 광장이 있다. 그 가운데는 약 50m 정도 기둥 위에 세워진 넬슨 제독이 여왕이 있는 버킹검 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국회 의사당 옆에는 처칠의 동상이 온화한 얼굴로 행인들을 바라보고 있다. 과거 국사범을 가두었던 유명한 런던탑에서는 전통적 의상을 입은 병사들이 런던탑의 열쇠를 전달하는 의식이 밤마다 거행되고 있는데 7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켜 내려오고 있다. 영국 사람들은 그들이 과거에 자랑스럽게 가졌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다. 파리나 베를린과는 달리 런던은 길거리가 반듯반듯하지도 못하고, 길폭도 유난히 좁다. 그것은 길을 낼 때, 개인 땅 소유주들의 권리를 존중하느라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처럼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그들의 오래된 민주적 태도 때문에 그런지, 생활 방식에서 다양성과 관용이 유독 눈에 띄는 것 같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異質을 수용하면서도 어느 한 가지 극단으로 몰고가지 않는 것 같다. 지금도 영국 런던 옥스포드 거리 근처에는 막스가 죽을 때까지 살았던 집이 있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영국 사람들, 그들은 막시즘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인간 막

스는 수용해 주었던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영국인의 민주적 기질이 아닌가 싶다. 어쩌면 그러한 생활 방식은 비능률적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영국은 서방 유럽 국가들 중 스페인, 이탈리아 다음으로 세번째로 못사는 나라다. 우리와 비슷한 땅덩어리에 인구 5,600만, 일인당 국민 소득은 8,000여 달러로서 13,000~15,000달러를 훨씬 웃돌고 있는 독일, 불란서, 스위스 등에 훨씬 못미친다. 그러나 작년 5월 포클랜드 사태에서 보인 것처럼 본국 아일랜드의 긴장, 높은 실업율에도 불구하고 본토에서 5,500km나 떨어져 있는 무인지경의 군도를 거국 아르헨티나와 서슴없이 싸워 탈환했다. 영국인의 상식이 보인 지력의 한 가지 예가 아닌가 한다. 이처럼 이 모든 것에서 영국이 영국답도록 된 배경에는 아마도 교육의 힘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 교육의 일반 모습

우리에게 영국은 그 교육에 관해서 그렇게 잘 알려진 나라가 아니다. 영국의 교육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교육 정책, 교육 과정 존립 방식, 학교 제도가 우리와 다르다. 우선 영국의 교육 개혁을 보기 전에 그들 교육의 전반적 모습과 우리와 다른 것부터 살펴 보기로 하겠다.

교육 정책 : 정부의 교육 정책은 학교 조직에 있어서 학부모의 참여와 선택을 넓히며, 지방의

\* 교육과정연구부 책임연구원 · 철학 박사.

교육관청이 지방의 필요에 합당한 공립학교를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며, 빈곤한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데 있다. 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 교육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학교 교육 과정의 기본 체제에 관한 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별히 영국 교육에서 학교 교육 과정 체제안을 구성했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를 시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뒷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될 것이다. 이외에 또한 현재 중등학교에서 과해지고 있는 두 종류의 중등 교육 자격 시험 제도를 단일 제도로 대치하는 계획이 실행 중에 있다. 모종의 자격증 없이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학교 성적에 관한 기록을 제공해 주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또한 16~19세 사이의 학생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갖는 학생들을 위해서 보다 좋은 직업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려는 계획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또한 '제 6 형태'의 학교 교육 과정으로 불리는 주로 대학 진학을 위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과정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가 계획되고 있다. 특별히 교육 과정 개혁에서는 산학 협동체 간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산학 협동 연계 강화와 관련하여 한 가지 예를 들면 마이크로 전자 공학의 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 산업체의 발전을 목표로 4년 과정의 마이크로 전자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행정:** 교육과학부 장관이 고등 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모든 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그는 또한 일반 시민의 기초 과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다).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도 독립된 주장권이 있는데 이들은 고등 교육을 제외한 교육 부문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행정은 지방 분권화 되어 있다. 책임은 중앙과 지방 교육관청, 그리고 자발적 조직의 삼자가 나누어 갖는다.

대학을 제외한 학교 운영과 모든 학교의 교육에 대해서는 지방 교육청이 책임을 진다. 교직원 의 채용, 건물의 제공과 유지, 교구 교재의 공급, 고등 교육으로 가는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등이 지방 교육청의 권한에 속한다. 지방 교육청

의 권한과 책임은 주에 따라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다.

**교육비:** 교육비의 5분의 4가 지방 교육청에 의해서 충당된다. 중앙부서가 점점 담당하는 것은 대학 기관에 대한 지원과 대학생 보조이다. 1980년도에 지출된 총 교육비는 11,880파운드(약 200억 달러)로서 국민 총 생산의 6%, 정부 부문 비중의 약 40%를 차지했다(우리 나라는 같은 연도에 10,991억 원(약 15억 달러)로 국민 총 생산의 약 3%, 정부 부문 비중의 약 19%를 차지했음). 1983~'84년에는 학생수의 감소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식사와 우유 비용이 상당히 절감돼 교육비의 지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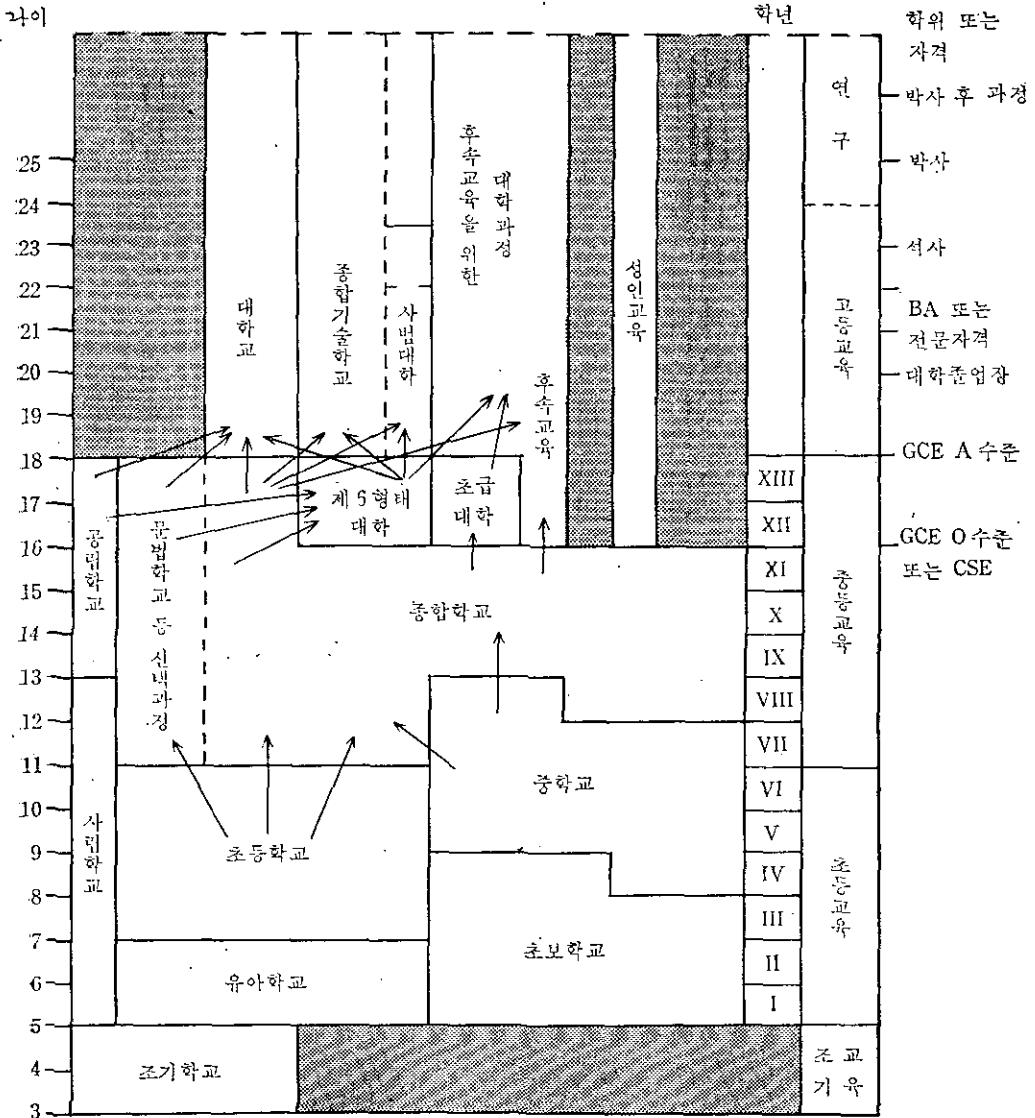
## 학교 제도

영국의 학제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다음 그림은 영국의 학제를 간략한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5세에서 16세의 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법에 의해서 그들의 자녀에 대한 의무 교육의 책임이 있다. 11백만 이상의 어린이가 38,500개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다. 공교육비 보조를 전혀 받지 않는 완전 사립학교에 다니는 소수 학생들(약 6%)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무상으로 교육받고 있다. 이 무상에는 수업료, 책, 기타가 포함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88% 이상의 중등학교가 남아 공학이다. 공교육비의 지원을 받는 학교는 준공립과 사립의 두 가지가 있는데, 준공립학교는 지역 교육관청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사립학교는 대부분 영국 교회, 카톨릭 교회 등 종교 단체가 설립한 것으로 설립자가 기본 자산을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종류의 사립학교는 약 전체 학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의 관리를 위한 조직체는 1980년부터 교육법에 의하여 최소한 2명의 학부모와 2명의 교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여 학교 경영에 대한 참여를 강화시키고 있다.

**조기 및 초등 교육:** 4세아의 반 이상과 3세아의 5분의 1 정도가 조기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아동들이 부모나 또는 자발적인

## 영 국 의 학 제



기관이 운영하는 비공식적 초기 교육 그루우에 참여하고 있다. 의무 교육은 5세에 시작되고 초등 교육에서 중등 교육으로 넘어가는 나이는 일반적으로 11세이다. 그러나 학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5~7세를 위한 유아 학교, 7~11세를 위한 초등학교가 있는가 하면, 5세에서 8~10세를 위한 초보학교(first school)가 있고, 이에 이어 9~14세를 위한 중학교가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초등학교는 7~12세의 어린이를 돌보고 있다.

중등 교육: 11~18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등 교육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학령 아동의 85% 이상이 등록하고 있는 종합학교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16~18세 아동 중 특별히 고등 교육을 지양하는 학생들을 위한 제 6 형태(sixth form)의 학교가 있다. 나머지는 11세에 선택 과정을 거쳐 문법 학교나 현대 중등(secondary modern) 학교로 불리어지는 학교에 나간다. 영국의 중등학교는 2차대전 직후 문법 학교, 기술 또는 직업 학교, 그리고 이들 중 어느 계통에도

속하지 않는 나머지 학생들을 위한 학교(현대 중등학교로 불리우는)의 세 가지가 있었다. 이 가운데 문법 학교나 직업 기술 학교는 선택 과정이었는데 11세에서의 조기 진로 선택이 사회의 정의와 교육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비판으로(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진보진영에서 제기됐다.) 1965년에 이 세 가지 학교를 한 울타리 안으로 묶는 종합학교가 채택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교사 :** 정규, 임시직을 포함하여 500,000여명의 교사가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9명이다.

**학력 관리 :**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교육과학부는 1974년에 국가 학력 관리를 위한 학력 평가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매년 점검하고 있는데, 영어, 수학은 11세와 15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은 11, 13, 15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983년에는 외국어를 포함시킬 예정이며, 예술, 체육, 기술 부문에 대하여도 확대시키는 것을 고려 중에 있다.

**수업 보조 시설 :** 거의 모든 학교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수업에서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영국 방송공사(BBC)를 포함한 방송 회사들이 일년에 송출하는 프로그램은 학교 라디오 방송이 500시간 이상, 학교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600시간 이상이다. 비비씨는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기록물이 딸린 저렴한 테이프, 슬라이드 자료 단원을 생산하고 있다. 컴퓨터가 수업의 보조, 시간표의 작성, 수업 경영 등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1982년 말까지 모든 중등학교가 적어도 소형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다.

**고등 교육 :** 영국에는 46개의 종합대학교와 30개의 폴리테크닉(종합공과대학)과 군소 대학을 포함 약 900여개의 고등 교육 기관들이 있으며, 852,000명의 정규 학생들이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산업체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3백 60만명의 비정규 학생들이 등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명한 것은 개방 대학 제도이다. 이 개방 대학은 일정한 장

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교육 기관으로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통신 교재, 하계 학교, 전국에 걸쳐 있는 시청 센터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위도 수여한다. 등록에는 어떤 공식적인 학력 자격을 요구하지 않지만 수료하는 데는 다른 대학과 동등한 수준을 필요로 한다. 1971년에 시작하였으며, 1981년에만 75,000여명의 학생들이 학부 과정을 비롯한 여러 과정을 밟고 있다. 이 개방 대학 제도는 다른 나라에 유사한 제도를 설립하도록 하는 데 많은 조언을 제공하였다.

### 영국의 교육 개혁

이상으로 영국의 교육 현상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우리의 사정과 비교하는데, 또 그들이 추구하는 교육의 단면을 알아보는 데 다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교육 개혁이라는 말은 우선 영국에서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방향을 관찰해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다.

첫째, 사회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교육적 혜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다는 점이다. 1965년 초등학교를 마치는 11세에 진로를 결정해 버리는 종래의 중등학교 조기 선별 제도를 철폐하고 종합학교로 전환한 것이라던지 1971년 누구에게나 고등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방 대학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개설한 예는 이러한 점을 잘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영국은 그 오래된 전통적 구조 때문에 계층 간의 구분이 쉽게 드러나는 사회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는 엘리트층을 위한 인문 교양 중심의 전통적 교육은 근로 계층의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불이익을 주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교육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되어 교육 기회의 확대와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교육이 움직여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교육 기회의 개방화가 교육의 탁월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근래 학교 교육의 비능률성은 그 제도의 차원에서 보다 열심히 가르치지 않거나, 부적절

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데서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교육 과정에 대한 정부 관심의 증가이다. 영국은 문서화된 현법이 없는 나라인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수준에서 문서화된 교육 과정은 없었다. 교육 과정은 학교, 교사의 고유 권한으로 오래동안 인정되어 왔었으며, 학교 밖의 아무도 이 권한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할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은 국민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의 정원(secret garden)으로 불리어질 정도였다. 물론 1964년에 학교에 새로운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 및 평가 연구·개발을 위한 학교 교육평의회(Schools Council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교원 노조는 이 기관이 교사들에 대한 위협 세력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이룩한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개발 성과는 학교 현장에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1970년에 들어오면서 학교 교육이 너무 안이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976년 당시 수상이었던 켈러헌이 러스킨 대학에서 영국의 교육은 기본 과목에 있어서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훈련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영국 교육 현황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가했다. 이러한 영국 교육에 대한 자체 반성은 학교 교육에 일반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였으며, 중앙 정부가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노력에서 주도성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한 가지로 모든 학교 급별 교육에 일차적 지침으로 삼기 위한 정부 수준의 20쪽 짜리 교육 과정안이 1981년에 교육과학부에서 작성되어 공개 검토를 거치고 있다. 이 외에 1964년에 설립된 학교교육평의회를 평가 전담 기구와 교육 과정 전담 기구로 완전히 독립시켜 평가 전담 기구는 금년부터 가동시키고 있으며, 교육 과정 전담 기구의 발족은 아직 착수되지 않았으나 과학 교육 과정 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앞으로 새롭게 개발될 교육 과정에서는 그 성패가 교사에게 좌우되는 만큼 교사 재훈련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평가 제도의 개선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영국의 교육 과정은 지방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국가 수준에서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이 평가이다. 영국에서 종전에 실시해 오던 평가 제도는 16세 이상 평가 제도(sixteen plus examination)라고 해서 16세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 치르게 되어 있는 보통 일반 학력 검사(GCE: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보통 수준(O level)과 중등 교육 자격 검사(CSE: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의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검사는 5년 과정의 중등 교육을 마친 후에 보도록 되어 있다. 이 외에도 16세 이후 2년 과정을 더 거친 학생들이 치는 고급 일반 학력 검사(GCE: A level)가 있다. 중등 교육 자격 검사의 최고 점수 수준은 보통 일반 학력 검사의 C등급과 비슷하다. 고급 일반 학력 검사는 대학 또는 그 상위권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장하는 기준이 된다. 최근 영국 정부는 이 두 가지 평가 제도의 중복성과 학교에 주는 번거로움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통 일반 학력 검사(GCE)와 중등 교육 자격 검사(CSE)를 통합하여 단일 제도로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학력 평가 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기구를 종전의 학교교육평의회에서 평가 부문을 독립시켜 발족시키고 그 개선 작업 착수에 들어 갔다.

이 외에도 중등학교 수준에서 학교 교육 질 관리를 위하여 전국 학력 관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어, 수학, 과학, 외국 과목에서 전국 표집을 통하여 학력 수준을 정부가 계속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교육 과정 개발에 반영시키고 있다. 앞의 두번째에서 언급한 새 과학 교육 과정 개발 계획은 지난 1970년대 후반에 이뤄진 과학과 학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취해진 조치였다. 솔직히 말하여 지난 1960~70년대에 영국에서 이미 개발된 과학 교육 혁신 프로그램은 15여 가지가 넘는다는 것을 지적해 두겠다.

이처럼 영국의 교육은 그 전반적인 현황에 있어서 우리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고 있다. 그리고 학교 교육 개혁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와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다르지만, 그들 자신의 학교 교육을 부단히 재평가하고 재수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프랑스의 大學教育改革

張 幸 勳\*

### 序

제 5 공화국 수립 이후 23년만에 처음으로 집권한 社會黨은 1981년 5월 이후 각 분야의 社會主義 改革을 단행해 왔다. 대학 교육 개혁도 이러한 개혁의 일환이었다.

사회당 정권의 교육 개혁은 국민학교에서부터 大學에 이르기까지 教育全般에 걸친 것이었다. 초·중등 교육 개혁이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서 大學教育改革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은 개혁 대상인 大學의 구성원, 즉 학생과 교수가 批判意識이 가장 높은 知識人들이며 이들이 캠퍼스 밖에 있는 정치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었다. 大學改革이 지닌 이례적으로 기적인 성격 때문에 大學改革은 현재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左派 집권 세력과 야당인 右派 세력 간의 정치적 쟁점을 제공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改革은 카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사립 학교를 국립화하려고 하는 사립 학교 개혁안과 함께 가장 민감한 정치적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 문제가 되었다.

그래도 대학 개혁은 카톨릭 교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사회당 정부가 아직 개혁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립 학교 개혁에 비하면 말쑥은 있었지만 일단 어려운 고비는 넘긴 셈이다.

### I. 사바리(Savary) 改革

대학 교육은 문교부 장관 알랭·사바리(Alain Savary)의 이름을 따서 '사바리 개혁'이라고 부

르고 있다. 실제로 제 2의 줄·페리(Jules Ferry)라는 별명을 가진 열성 사회주의자이며 파리 6대학 교수인 끌로드 장페(Claude Jeantet)를 위원장으로한 대학개혁위원회가 사회당 집권 이후 18개월 동안 작업 끝에 채택한 改革案이었다.

사바리 改革은 주변 환경과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는 大學, 대규모의 사회 낙오자 양성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大學을 국가와 사회의 필요를 분석하고 그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고등 교육 기관으로 만든다는데 근본 취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정신 아래 사바리 改革은 1968년 학생 혁명 후 채택됐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에드가·포르(Adgar Faure)대학 개혁법이 제시한 自治, 사회 참여, 相異한 學問分野間의 交流의 3개 슬로우건에다 大學의 民主化, 대학 교육의 專門化, 직업 지향화를 進路方向으로 정했다.

사바리 改革案은 우선 民主化를 具現하는 방법으로 大學의 문호를 모두 지방자에게 개방하고 있다. 入學을 가로막는 選拔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선발은 제 1 cycle 기간인 첫 2년을 끝마치고 제 2 cycle이 시작되는 3학년 진급시에 바로소 등장한다. 이처럼 모순돼 보이는 내용 때문에 사바리 改革案은 대학의 質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入學時에 선발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改革 반대파는 물론 모든 선발은 교육의 民主化에 역행한다고 생각하는 左派 학생 단체까지도 반대하는 奇現象을 초래했다. 사회당 정권에 반대하는 右派 학생 단체는 "선발을 더욱 강화하라"고 외치는가 하면 親社會黨 정권의 左派 학생 단체는 "선발을 철폐하라"고 외쳤다. 사회당 당원이며 파리 1대학 총장인 사펠라가 사바리 改革은 내용보다 서툰 法案 작성으로 필요 이상의

\* 東亞日報社 駐佛 特派員.



반발을 자극했다고 말한 것은 확실히 근거가 없지 않았다.

또 改革案이 대학 운영에 외부 인사를 대리 참여시키는 내용이나 1968년 이후에도 여전히 존속해 온 大學內의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대학 관료”들의 특권을 건드린 것은 大學內 보수적인 교수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改革案이 改革의 원칙만 法案에 明示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모호하게 놓아두고서 시행령으로 改革案의 未備點을 보충하게 한 것도 사바리 改革 반대자들과 右派의 의심을 더욱 깊게 하는 원인이 됐다.

## II. 사바리 改革의 主要 爭點

그러므로 총 68條로 된 改革法案 중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됐던 爭點은 ①선발 문제 ②첫 2년(제 1 cycle)의 교육 내용 ③지나친 施行令의 존 ④大學의 운영 문제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 1) 選拔基準

사바리 法案 제12조는 대학 입학시의 선발을 일체 배제하고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원칙을 힘을 주어 재확인하고 있다. 사바리 改革이 내세우고 있는 “大學教育의 民主化” 원칙에서 파생되는 自明한 결론이다. 그 결과 “바칼로레아 所持有者나 바칼로레아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 받은 자 또는 충분한 경험을 쌓아 이러한 조건을 면제받은 모든 지망자”에게 제 1 cycle 인 대학 2년 교육을 개방하고 있다. 대학의 문호를 가로막는 일체의 장벽을 부인한다는 뜻이다. 그 결과 바칼로레아를 가진 사람은 물론 바칼로레아가 없는 사람까지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改革法案은 두 가지 예외, 즉 선발을 인정하고 있었다.

첫째는 입학시의 선발이다. 대학과 대등한 연구 기관(instituts), 직업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名門 그랑제콜(grandes écoles) 준비반, 고등 기술 대학 및 이미 전국적인 선발을 실시하고 있는 고등 교육 기관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은 누구나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既存 선발 제

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으로 門戶開放 정책으로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는 뜻도 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藥師는 매년 “국민의 필요”와 “지방적인 불균형”, “學科의 교육 능력”에 따라 定員을 책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자가 대학의 수용 능력을 초과할 때는 대학 총장이 학생의 住居地, 가족 상황, 학생의 희망을 참작해서 지원자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12조는 구체적인 例外事項을 길게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학의 문호를 선발 절차에 의한 제한은 일체 금하고 있다.

두번째로 인정하는 선발은 제 2 cycle, 즉 3학년 진급 때 실시되는 것이다. 제 2 cycle의 진급 여부는 대학의 “수용 능력”과 “雇傭市場 展望”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대학 2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해서 반드시 제 2 cycle의 진급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진급 여부를 결정하는가? 法案은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일부 학과”에 대해서는 시험이나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일부 학과”를 明示하지 않고 있다(제13조).

그러므로 法案만 보고는 1984년 새 學期에 제 2 cycle의 선발이 어떻게 실시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문교부에서도 내년에는 “선발이 실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하는 불분명한 태도를 보여 선발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불안을 더욱 깊게 했다.

사바리 改革案 반대자들은 시설, 교수의 充員, 예산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大學의 모든 지망자를 全員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그럴바에는 住居地와 같은 우연 요인이나 고용 전망과 같은 불확실한 요인을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학생의 資質과 학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오히려 대학의 民主化 방향에 합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레이몽·아롱같은 碩學이 이러한 주장에 앞장 서 있다. 그는 오늘날 의과대학이 과도한 의사의 생산으로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이 10년 전부터 선발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결과라고 주장하고 선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의 무조건 개방

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學生數를 늘리는 것이 곧 교육의 民主化일 수는 없다고 말하고 중학 교육의 質低下가 문제화되고 있는 지금 대학 입학을 무조건 개방해 놓으면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지게 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칼로레아 제도 지지자들은 改革案이 바칼로레아 所持者 뿐만 아니라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大學入學을 개방해서 실질적으로 바칼로레아 制度를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또 고용 시장 전망”에 따라 제 2 cycle의 진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나 10년 이후의 고용 전망을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지적하고 “매년” “국민의 수요”나 “지방적인 불균형”을 척도로 의과나 藥學科의 定員을 定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왕 선발을 실시할 바에야 入學 때부터 선발을 실시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2년을 낭비하지 않고 일찍 장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론에 대해서 사회당 정부는 대학 교육의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개방하는 左派政府의 目標을 현실적인 조건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또 지금까지 학생의 절반이 아무 자격증도 없이 2년 내에 대학을 그만 두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2년간 이들에게 일상 생활과 관련 있는 지식을 교육, 제 2 cycle로 진급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6개월 내지 1년간 직업 교육을 실시하여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본인이나 사회에 유익한 것이라고 개혁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2) 제 1 cycle 2년 교육 내용 시비

改革法案 12조는 大學의 첫 2년을 “기초 분야의 지식을 深化하고 多樣化”하며 “일하는 방법을 터득”시키는 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을 학생으로 하여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평가하고 직업 선택에 필요한 요인들을 결합시키는데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제 2 cycle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학생들에게는 “就業에 필요한 補充教育”을 권장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제 1 cycle 교육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게 없고 잘못하면 豫科教

育을 재연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법과나 경제학과·경영학과 처럼 학생들의 자질이 높은 大學에서는 일반 교양 과목의 학습으로 채워질 제 1 cycle의 2년이 낭비되기 쉬운 기간으로 보고 2년간의 교육 내용을 各 大學에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改革支持측에서는 그 동안 학생의 절반이 아무 자격증도 획득하지 못한 채 入學 후 2년 이내에 대학을 그만두고 있는 사실이 제 1 cycle 교육의 실패를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이러한 실패의 피해를 줄이고 2년간의 교육을 마친 학생에게 6개월 또는 1년의 직업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효과적이고 젊은 중간 간부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제의 수요에 부응하는 길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3) 지나친 施行令 依存

사바리 法案은 그 중요성이 모두가 같지 않은 68개 條文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施行을 위해 33개의 施行令을 예견하고 있다. 法의 施行에 施行令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사바리 改革法의 경우는 그 依存度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비판이 강하다.

반대측에서는 大學理事會의 임원 선거에 임후 보하는 방법과 같은 2차적인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중요한 개혁 내용을 明示하지 않고 그것을 施行令으로 보충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핵심적인 개혁 내용을 공백으로 남겨 두고 있는 정부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말씀을 두려워해서 우물우물 改革法을 통과시킨 다음 施行令으로 개혁 내용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白紙委任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大學總長의 선거 방법(제25조), 대학 운영 이사회에 참여하는 外部人士의 數와 지정 방법(제50조)과 같은 주요 내용을 施行令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바리 장관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문교부가 너무 관료적으로 모든 것을 중앙에서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施行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施行令에 위임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 4) 大學의 운영

종래 단일 위원회 조직에 의해 운영되던 大學이

改革法案에서는 3개 위원회로 기능이 갈라진다.

먼저 30명 내지 60명으로 구성되는 대학 운영회가 있다. 운영 위원회는 外部人士를 30%~40%, “使用者”(학생) 대표 15%, 사무 직원 대표 10%를 포함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는 대학 교수 대표로 충당된다. 운영 이사회는 대학의 전반적인 정책과 재정 정책을 결정한다.

대학의 운영 방침을 결정하게 되는 이사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는 사실과 그 選定을 大學이 아니라 해당 인사가 속해 있는 외부 단체가 지정한다는 사실이 특히 右派 학생과 교수들의 강력한 반발을 자극시켰다. 大學과 社會와의 거리를 좁히고 대학 교육을 직업과 밀접하게 연결시키려는 大學改革의 취지에서 볼 때 대학 운영에 經營者나 勞組代表, 대학이 속해 있는 지방 자치 단체 대표, 기타 영향력있는 민간 단체 대표가 대학 운영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大學을 文化的 순수성을 지키고 어떤 경제적 이해 타산에 오염되지 않은 領域으로 간주하고 있는 학생이나 교수들에게는 외부 인사의 대리 참여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더구나 외부 대표가 左派인 사회당이나 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로 구성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右派 학생이나 교수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이들은 대학의 운영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左派 대표들에 의해 영향받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학문 연구 분야에 관해서 운영 위원회에 그 방향을 건의하는 학술 위원회(Scientific Council)가 있다. 20명 내지 40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50%~70%를 교수·연구원으로 배운다. 세번째로 학사 위원회(Council of Studies)가 있다. 역시 20명 내지 40명으로 구성되며 25%~80%를 교수·연구원으로 배우며 운영 위원회에 학습(studies), 교육(pedapogy) 및 대학 생활에 관한 방향을 건의한다.

그런데 두 위원회의 임원이 되는 교수는 교수들이 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 專任, 助教를 망라한 교수단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해서 교수의 權限이 줄어들고 지금까지의 大學內 위계 질서를 흔들어 놓았다. 교수들이 불만스럽게 생각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 밖에 대학 총장을 3개 위원회가 공동으로 선출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는 외부 단체에 영향력이 있는 左派 인물이 총장에 선출될 가능성이 많다 해서 右派들의 반발이 있었다.

그러므로 改革 反對派들은 社會黨 정권의 改革이 大學을 左派人의 지배하에 두기 위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타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의심하고 大學의 知的 獨立을 수호한다는 명분을 세우고 사바리 改革에 반대했다.

5월 24일부터 下院의 심의에 들어간 사바리 法案은 17일간의 격론 끝에 6월 13일 일단 下院을 통과했다. 右派는 심의를 방해하기 위해 무려 2,204개의 修正案을 제출했으나 下院에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社會黨 의원의 數的 優勢에 눌러 뜻을 이루지 못했다. 189개의 修正案이 채택되기는 했으나 그 내용은 右派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기 보다는 일부 개혁 내용에 반대하는 左派 학생 단체의 요구와 사회당 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고, 사바리 改革法案의 骨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左派 학생회의 선발 반대를 참작해서 제 2 cycle 진급시의 선발을 원칙이 아니라 몇 개 분야를 제한된 예외적인 것으로 制限했고 大學內의 강력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대학 운영 이사회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의 수를 30~40%에서 20~30%로 줄이고 학생과 교수 대표의 수를 늘렸으며 대학의 自治幅을 늘렸다. 그러나 국가는 예산 監督權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제 1 cycle의 교육 내용에 관한 各大學에 일임해 달라는 右派 교수단의 요구는 관철되지 못했으나 사바리 장관은 교과 내용을 명령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설득”의 방법을 선용하겠다고 다짐함으로써 반대자들을 무마했다.

下院에서 통과된 사바리 法案은 올 가을 上院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上院에서는 下院과 달라야양인 右派가 우세하기 때문에 法案은 또 다시 修正이 가해지게 되겠지만 下院을 사회당과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교육 改革은 이미 下院에서 통과된 대로 확정될 것 같고 1984년 9월 새 學期부터는 사바리 改革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韓國兒童의 道德性 發達에 관한 研究\*

趙 蘭 心\*\*

### I. 研究의 必要성과 目的

道德教育의 궁극적인 목적이 被教育者의 도덕성 향상에 있다는 것은 自明한 論理이다. 따라서, 도덕 교육을 論함에 있어서 아동의 도덕성이 어떤 狀態에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다루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또한, 실제로 도덕성 발달에 관한 理論과 測定道具의 개발은 도덕 교육의 성격을 결정짓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쳐 왔었다. 도덕 교육이 1970년대부터 학교의 正規 教科目の 하나로 자리잡기 시작한 우리 나라의 경우 해가 거듭할수록 도덕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만큼 우리 나라 아동들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관심도 高潮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論理的 當爲性和 現實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나라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 왔다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필요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콜버그(L. Kohlberg)를 중심으로 발달된 이른바 도덕성의 認知發達的 接近<sup>1)</sup>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認知發達的 接近은 아동의 도덕성 발달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도덕 교육에 가장 직접적인 示唆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채택되었다. 콜버그에 의하면,

도덕성이 점차 더 높은 段階로 발달한다는 말인 즉, 아동이 점점 더 적절한 도덕적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상위 단계인 6단계의 被驗者는 가장 적절하고 理想的인 도덕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 단계를 제시하는 것과 도덕 교육의 목표 설정이 無關하지 않음을 밝히면서, 그가 제시한 6단계가 도덕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런데, 콜버그 理論은 그것이 처음 발표된 이래로 계속적으로 새로 다듬어지고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그가 사용한 도덕성 발달 단계의 測定方法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조금씩 다른 形態로 개발되고 사용되어져 왔다. 그리고, 그의 測定道具는 특히 被驗者들의 反應을 해석하고 단계를 査定하는데 있어서 채점자에게 高度의 技術적인 技術(혹은 眼目)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근래에 외국에서 이루어진 콜버그系列의 도덕성 測定方法에 관한 몇 가지 연구들을 재검토해 봄으로써 일선 교사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덕성 檢査紙를 개발하고 그 檢査紙의 적용 결과를 살펴 보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 II. 測定道具의 開發 및 檢査實施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아동들의 도덕성 발달을 測定하기 위한 道具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 이 논문은 김안중·박천환·신재철·조난심이 연구한 「연구보고 RR 82-23」을 요약한 것임.

\*\* 교육과정연구부 연구원.

1) 이제까지 이루어진 道德性 發達에 관한 心理學的 理論들은 크게 精神分析學的 (psychoanalytic) 接近, 行動主義的 (behavioristic) 接近, 人本主義的 (humanistic) 接近, 認知發達的 (cognitive-developmental) 接近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콜버그系列의 연구에서 개발된 것 중 가장 두드러진 測定道具인 OISE 테스트와 DIT 方法을 검토하였다.

### 1. OISE 테스트

OISE 테스트<sup>2)</sup>는 캐나다의 온타리오 教育研究所에서 제작한 도덕성 검사지를 말한다. 이 검사지는 콜버그의 도덕성 測定理論을 실지로 도덕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초·중·고교 교사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 檢査道具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意圖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OISE 테스트는 5개의 딜레마 스토오리와 그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딜레마 스토오리는 콜버그가 원래 意圖했던대로 이렇 수도 저렇 수도 없는 道德的 葛藤을 포함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딜레마 스토오리에 대해 하인즈는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옳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왜 그런가? /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서 약제사가 그토록 높은 값을 부를 권리가 있는가? / 판사는 하인즈에게 벌을 내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석방해야 할 것인가? 왜 그런가?”와 같은 질문들을 주어 被驗者가 주어진 갈등 사태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충분한 反應을 얻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OISE 테스트에는 위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얻은 반응들을 평가하고, 단계를 査定하는 방식이 구체적인 예와 함께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 2. DIT 方法

콜버그의 도덕성 測定方法은 被驗者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被驗者의 반응을 평가하는 過程에서 평가하는 사람의 개인적 變因이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難點을 갖고 있다.

콜버그 테스트의 이와 같은 難點을 해결하려는 意圖로 레스트(J.R. Rest)가 고안한 것이 “DIT (Defining Issues Test)”<sup>3)</sup>方法이다. 레스트는 어떤 주어진 問題事態에 대한 각 단계별 推理形式을 뽑아내고(이를 레스트는 “prototypic statements”라 부른다), 이것들을 그 문제 사태에 대한 解決策으로<sup>4)</sup> 例示하여서 被驗者들이 자신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陳述들 각각은 콜버그 6단계 중의 어느 한 단계에 속하는 판단을 나타내며, 그 중에 1~2개의 陳述는 被驗者의 眞摯性과 無作爲選擇(random choice)을 알아내기 위한 항목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레스트는 모두 6가지 문제 사태에 대하여 72개의 진술로 이루어진 DIT를 제작한 바 있다.

그런데, DIT에 포함된 陳述들은, 높은 단계에 해당되는 陳述일수록 그 내용이 抽象的이고 理論的인 性格이어서, 그 陳述에 포함되어 있는 말의 意味를 아직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아동들은 제대로 選擇을 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단점 때문에 주로 초·중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DIT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 연구에서는 DIT를 실시하지 않았다.

### 3. 測定道具의 製作

이 연구를 위하여 제작된 도구는 도덕적 갈등 사태인 “하인즈 이야기”, “탈옥수 이야기”, “중대장 이야기”와 각각의 이야기에 相應하는 질문들이다.

이 이야기들과 질문들은 본래 OISE 테스트나 DIT에서 사용된 것인데, 이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翻案하였다. 그리고, 문제 사태에 대한 질문의 제시 및 採點方式은 OISE 테스트를 따랐다.

2) N. Porter and N. Taylor, *How to Assess the Moral Reasoning of Students* (Toronto: The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1972).

3) 레스트의 DIT 方法은 J.R. Rest의 *Development in Judging Moral Issues* (Univ. of Minnesota Press, 1979)와 “Revised Manual for the Defining Issues Test,” (Minneapolis: Minnesota Moral Research Projects, 1979)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4)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을 말한다.

#### 4. 研究對象의 選定 및 檢査의 實施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4대 도시(부산, 대구, 광주, 전주)의 국민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 중에서 도시별, 학년별로 남녀 각각 10명씩을 標集하여(標集된 아동들은 학교 성적 5% 이내인 우수한 학생들이었다) 이 연구에서 제작된 도덕성 발달 검사를 實施하였다.

이처럼 小標集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연구가 그 주된 목적을 한국 아동의 전반적인 도덕성 발달 수준을 測定하는데 두지 않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수행될 미래의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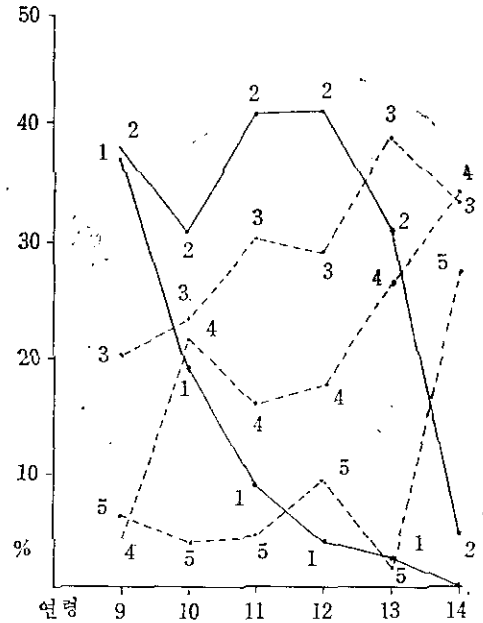
### Ⅲ. 結果 및 解釋

#### 1. 道德性 發達段階의 變化

아동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도덕성 발달에서 점차 더 높은 단계를 나타낸다는 것은 콜버그의 테스트 결과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公理이다. 물론, 우리 나라 아동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다 주의해서 파악해야 할 점은 각각의 단계들이 연령에 따라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變化해 가는가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불분명하게나마 한국 아동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 속한 아동들은 9세(국민학교 4학년)를 基點으로 하여 14세(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단계의 변화는 11~12세를 頂點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단계는 각 연령에 크게 차이가 없이 나타나고 있다. 즉, 9세부터 14세에 이르기까지 3단계 수준에 있는 아동들의 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3단계 수준이 이 연령층의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도덕성 발달 단계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4단계의 변화를 보면 10세에서부터 14세에 이르기까지 4단계에 속한 아동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단계의 변화는 2단계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2단계의 경우 14세에 이르러 현저한 減少를 보이는 반면, 5단계는 9세에서부터 13세까지 거의 차이가 없이 나타나다가 14세에 이르러 상당한 증가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 연령에 따른 도덕성 발달 단계의 변화

(각각의 連結線에 표시된 숫자는 도덕성 발달 단계를 나타냄)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로써 얻어진 아동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우리 나라 평균 아동들의 도덕성 발달 수준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대도시의 우수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제까지 이루어져 온 콜버그의 연구에 의하면 도덕성 발달과 지적 발달은 正的인 相關을 나타내기 때문이다.<sup>5)</sup>

#### 2. 段階別 思考類型 分析

콜버그가 도덕성 발달을 3수준 6단계로 구분할 때의 주된 基準은 도덕적 판단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었다.<sup>6)</sup> 즉, 응답자가 어떤 도덕적 推理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냐 하는 것이 도덕성 발달 단계의 査定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아동들이 주로 어떤

5) J.B. Arbutnot and D. Faust, *Teaching Moral Reasoning* (N.Y.: Harper & Row Pub., 1981), pp. 86~87.

도덕적 推理形式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各 段階로 대표적인 응답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 의해 보고된 것과는 다른 우리 나라 아동들의 독특한 도덕적 사고를 보이고 있는 부분만을 제시할까 한다.

1단계에 속한 대부분의 아동들에게서 “도둑질은 그 자체로서 커다란 죄악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된다”는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다. 1단계에 속해 있는 국민학교 4학년 학생 29명 중 23명이 그렇게 답하였다(이는 4학년 전체 응답자의 30%를 차지한다). 이렇게 응답한 학생들은 “도둑질은 죄악이다”라는 판단에 대한 자신의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절대로 훔치지 않겠다/아무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해도 우리는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훔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陳述들은 테스트의 표현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도덕성(You do what you're told)”을 나타내며, 아동들이 평소에 어른들로부터 받은 “나쁜 짓은 하지 말아라”라는 가르침을(특수한 상황의 고려 없이) 盲目的으로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응답자들은 같은 문제 사태에 관한 다른 질문에 대해서 위의 陳述와 모순된 發言을 하고 있다(아무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해도 도둑질은 나쁜 것입니다. ...채포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철수가 아버지를 살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그 효성이 저극합니까? ...그러므로, 용서를 해주어야 합니다).

위의 陳述에는 “罰의 回避”를 위해 나쁜 일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1段階的思考)과 行爲者의 動機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3段階的思考)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 “현상”은 우리 나라 도덕 교육 자체의 문제에 비추어 해석함이 타당할 것 같다. 그 해석인즉, 이 현상은

도덕 교육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 나라의 도덕 교육은 학생들에게 낱낱의 德目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각각을 학생들이 실천에 옮기도록 요구하는 일이 主가 되어 왔었다. 즉, “遵法”도, “孝道”도, “寬容”도 중요한 德目이라는 것만 가르치고, 그것들이 서로 갈등을 이루고 있을 때 어떤 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도덕 교육의 결과로 앞에 제시된 사례와 같은 陳述이 나왔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IV. 結論 및 提言

이 연구는 비록 소규모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지만, 자료를 해석한 결과 우리 나라 아동들의 도덕성 발달 경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OISE 方式을 일선 교사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補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컨대, 採點過程에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가 그 代表的인 것이다. 즉, 被驗者들의 응답 가운데는 콜버그가 구분하고 있는 3수준 6단계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혹은 상관이 없는) 陳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採點者에 따라 단계 査定에서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이 연구에서는 이 難點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採點結果를 cross check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다 적합한 도덕성 발달 검사지에 대한 探究도 계속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연구의 結論의인 示唆點을 밝힌다면, DIT와 OISE 方式의 절충 또는 統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다. 理論적으로는 그러한 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IT에서 사용되는 “代案”들의 陳述形式을 더 쉽게 바꾸고 이와 함께 OISE 方式의 評定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도덕성 발달 검사지의 보편화는 가능해질 것이다. —————

6) 이에 관한 자세한 論議는 L. Kohlberg. "From Is to Ought," in T. Mischel (ed.), *Cognitive Development and Epistemology* (N.Y.: Academic Press, 1971), pp. 151~236을 참조.

# 教育投資 規模와 適正 單位教育費\*

孔 銀 培\*\*

## I. 研究의 概要

해방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교육 발전을 가능케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교육 투자 규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교육 투자 규모는 한때 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한 집중 투자를 구실로 급격히 저하되었으나(1972. 8. 3 措置), 교육 활동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계속 증대되어 왔다. 더욱이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財政脆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교육의 과제를 해결하고 教育福祉의 增進을 期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の 法定交付率이 復活되었으며, 教育稅<sup>1)</sup>가 新設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狀況의 변화가 山積된 교육의 과제 해결을 위해서 充分條件은 될 수 없지만, 教育問題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財政絕對規模의 增額에 관한 정부의 意志表明은 所望스러운 노력이었다.

이에 따라 1982년도 文教豫算은 1兆 9,894億 원으로 정부 예산의 20.8%를 점하게 되었다. 이것은 해방 당시의 8% 수준과 비교한다면 대단한 증가를 보인 것이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증대는 정부 예산이 지나치게 硬直化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教育財政의 當面課題는 絕對規模의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정적인 재정, 즉 주어진 財政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經費의 支出效果를 極大化시키느냐에 있다. 文教豫算 뿐만 아니라 學父母가 부담하는 모든 經費를 포함하여 浪費要因을 제거하고 財政의 效率性을 提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 나라의 교육 투자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교육 재정을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할 수 있는 準據의 하나인 適正 單位教育費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 재정의 配分過程을 파악하며, 公·私教育費 등의 총 교육비 규모를 분석하고, 학교 급별 단위 교육비를 분석·추출하였다.

교육 재정의 배분 과정과 公教育費 추출을 위해 문교부 소관 예산, 시·도 및 시·군 교육비 특별 회계 예산, 사립학교 교육비 예산, 육(기)성 회비 예산, 학도 호국단비 예산 등을 분석하였다. 사교육비 조사는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각급 학교 학생과 학부모 4,000명을 類層無選標集하여 1982년 3~4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학교 급별로 100명의 小標集을 선정하여 3~8월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사교육비

\* 이 논문은 김영철·공은배·이윤식이 연구한 「연구보고 RR 82-1」을 요약한 것임.

\*\* 교육발전연구부 연구원.

1) 교육세는 1982~1986까지의 5년간 時限附稅로서 총 1兆 5千億 원을 정수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내국세 규모의 증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차질을 빚고 있으며, 국민의 期待만큼 큰 財源이라고는 할 수 없다.



月別 支出動向指數를 개발하여 연간 加重值를 산출하였고, 이에 3~4월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연간 1인당 사교육비를 추출하였다.

적정 단위 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학교 급별·지역별·학교 규모별로 학교 교육비 지출 현황과 追加 財政所要額을 조사하였으며, 이 추가 재정 소요 비율을 반영하였다. 학교 교육비 지출 현황 조사 대상 학교수는 63개교이었고, 추가 재정 소요액 조사 대상은 문교부에서 조사한 267개교를 분석·활용하였다.

## II. 教育投資 現況

### 1. 公教育費

公教育費란 公共會計 節次를 거쳐 教育部門에 投入되는 일체의 經費를 말한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單位學校에서 지출하는 경비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公教育費는 크게 2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廣義와 狹義로 구분되는 公教育費가 그것이다. 廣義의 公教育費에는 문교부 및 기타 교육 행정 기관에서 집행하는 인건비, 管理·行政費 및 諸 教育事業費와 학교 교육비가 포함되며, 狹義의 公教育費란 순수한 학교 교육비만을 지칭한다. 따라서 狹義의 概念은 실제로 단위 학교에서 공공 회계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되는 校費가 대부분이며, 여기에 육(기)성 회비와 학도 호국단비 등이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 총 공교육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학교 교육에 투자되는 狹義의 公教育費를 산출하였다.

우리 나라의 1982년도 총 공교육비 규모는 3兆 5,023億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校費가 83.7%, 육(기)성 회비가 12.9%를 각각 점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를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이 전체의 61.1%, 사립이 38.9%를 점하고 있으며, 학교 급별로 보면 국민학교가 34%로 가장 높고 대학 25.2%, 고등학교 18.6%, 중학교 15.5%의 순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이러한 公教育費는

文教豫算의 1.76배에 해당되며 GNP의 6.4% 수준에 해당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규모에는 학생(학부모)이 부담하는, 즉 私負擔 규모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정부 예산 배분 과정에서 가장 높은 優先順位를 보장받는 防衛費<sup>2)</sup>가 「GNP 對比 最低 6%線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公教育費 규모는 실로 巨大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요국의 GNP 對比 公教育費 수준이 미국 6.4%, 영국 6.2%, 프랑스 5.8%, 스웨덴 8.4%, 일본 5.4%, 자유중국 4.8%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나라 공교육비 규모의 수준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sup>3)</sup>

이러한 公教育費 중에서 학생이 부담하는 私負擔 公教育費, 즉 入學金 및 授業料, 育(期)成會費, 학도 호국단비를 산출하면 그 규모는 1兆 5,989億 원으로 총 공교육비의 45.7%에 달하고 있다. 설립별로 공교육비 중의 私負擔 비중을 보면 국·공립이 33.9%, 사립이 66.1%로 나타나 사립학교 학생일수록 교육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부담 공교육비의 재원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체의 73.3%, 육(기)성 회비가 25.5%, 그리고 학도 호국단비가 1.2%를 각각 점하고 있다.

한편, 총 교육비 규모를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전체의 60.7%, 운영비가 18.2%, 시설비가 21.1%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건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학교 단체가 낮을 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운영비와 시설비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총 공교육비를 기초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산출한 결과, 교육대학 학생이 1,954.1천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대학 1,331.7천 원, 전문대학 891.7천 원, 고등학교 338.0천 원, 국민학교 217.8천 원, 중학교 208.5천 원, 그리고 유치원이 153.2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학생 1인당 사부담 공교육비는 사립학교 학생이 국·공립보다 훨씬 높은

2) 여기서 제시한 防衛費 규모는 정부의 一般會計豫算에서 配分되는 것을 나타내며, 防衛費는 그 외에 防衛誠金 등의 막대한 歲入이 있다.

3) 외국의 공교육비는 일반적으로 시설비를 제외한 경상비만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정확한 비교·분석은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외국 자료는 1977년도 기준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비 수준에 따라 교육의 質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사립학교 학생은 국·공립학교 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質이 낮은 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다.

## 2. 私教育費

사교육비란 公共會計節次를 거치지 않고 교육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교육비로 교재대, 부교재대, 학용품비, 과외 활동비, 학교 지정 용품비, 단체 활동비, 하숙비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항목들을 조사·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유치원 학생이 99.4천 원으로 가장 적고 대학생이 686.9천 원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지역별 사교육비의 수준은 전체적으로 서울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대도시, 도시, 농촌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울과 농촌의 隔差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構成項目 별로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 단제가 낮을수록 부교재대, 학교 지정 용품비, 과외 활동비 등의 비중이, 학교 단제가 높을수록 하숙비, 교재대, 단체 활동비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항목별 사교육비를 한국교육개발원이 1977년도에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과외 활동비가 과거에는 과외 수업비의 지출이 대부분이었으나 이의 금지로 인하여 그 구성비가 훨씬 낮게 산출되었으며, 그 외에 교재대, 학용품비, 교통비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부교재대, 학교 지정 용품비, 하숙비 등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기초로 산출한 사교육비의 총량 규모는 2兆 1,627億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급별로 보면 국민학교가 전체의 32.7%, 대학 21.0%, 중학교 19.7%, 고등학교 19.6% 등의 순으로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이 전체의 58.7%, 사립이 41.3%를 각각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사교육비 총량 규모는 GNP의 3.96%수준에 해당되며, 1977년도의 2.51%와 비교하면 1.45%「포인트」증가된 결과이다.

## 3. 機會經費

교육의 機會經費란 就業을 했으면 所得이 있었을텐데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교육 기간 동안에 벌 수 없었던 流失된 所得을 말한다. 그러므로 機會經費는 就業을 할 수 있는 연령(13세 이상)에 도달하여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經費는 교육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할 때 적용되는 間接教育費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機會經費의 推定은 학력별, 연령별 기대 소득에 연령별 사망률 및 취업률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는데, 학교 급별 학생 1인당 교육 기회 경비는 중학생 137천 원, 고등학생 233천 원, 전문 대학생 290천 원, 대학생 658천 원으로 추정되었다.

## 4. 總教育費

總教育費는 앞에서 분석한 公·私教育費를 합한 直接教育費에 機會經費인 間接教育費까지 합하여 산출될 수 있다.

우선 直接教育費 규모는 5兆6,400億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公教育費가 62.1%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直接教育費 규모는 GNP의 10.3%수준에 해당되는 막대한 규모이다. 이러한 직접 교육비를 학교 급별 구성비로 보면 국민학교가 전체의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이 대학 23.7%, 고등학교 19.0%, 중학교 17.2% 등의 순으로 集計되었다.

이와 같은 직접 교육비에 간접 교육비까지 포함하여 총 교육비를 산출하면, 그 규모는 6兆9,464億 원으로 GNP 對比 12.7%에 해당되고 있다. 이러한 총 교육비는 機會經費가 없더라도 국민학교가 가장 많으며, 다음이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총 교육비는 直接教育費가 81.2%, 간접 교육비가 18.8%로 구성되고 있다. 총 교육비 중에서 私負擔 教育費 규모는 3兆 7,365億 원으로 直接教育費의 6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84.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문대학, 대학, 유치원 등으로 각각 79.3%,

學校級別	設立別	總教育費	直接教育費			間接教育費 (機會經費)
			公教育費	私教育費	合計	
유치원	공립	221.1	121.7	99.4	221.1	—
	사립	284.9	185.5	99.4	284.9	—
	계	252.6	153.2	99.4	252.6	—
국민학교	국·공립	342.1	217.6	124.5	342.1	—
	사립	729.4	230.6	498.8	729.4	—
	계	347.4	217.8	129.6	347.4	—
중학교	국·공립	522.0	210.7	173.6	384.3	137.7
	사립	487.0	204.5	144.8	349.3	137.7
	계	509.5	208.5	163.3	371.8	137.7
고등학교	국·공립	815.1	373.5	208.5	582.0	233.1
	사립	775.0	313.8	228.1	541.9	233.1
	계	791.3	338.0	220.2	558.2	233.1
전문대학	국·공립	2,136.8	1,353.8	493.0	1,846.8	290.0
	사립	1,596.3	813.3	493.0	1,306.3	290.0
	계	1,674.7	891.7	493.0	1,384.7	290.0
교육대학 대학	공립	2,779.1	1,954.1	535.0	2,489.1	290.0
	국·공립	2,667.0	1,400.8	607.7	2,008.5	658.5
	사립	2,680.9	1,306.1	716.3	2,022.4	658.5
	계	2,677.1	1,331.7	686.9	2,018.6	658.5

75.0%, 72.9%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총 교육비를 기초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면 <표>와 같다. 학생 1인당 直接教育費를 보면 교육대학이 2,489.1천 원으로 가장 많고, 대학 2,018.6천 원, 전문대학 1,384.7천 원, 고등학교 558.2천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설립별로 보면 국민학교에서는 사립이, 전문대학은 국·공립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 외의 학교 급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間接教育費까지 합하면 1인당 교육비의 규모는 훨씬 더 증대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한 학생이 국민학교에서 대학까지 교육받는데 드는 직접 교육비를 산출하면 1982년 경상 가격으로 총 1,295만 원에 해당되고 있다. 여기에 기회 경비인 간접 교육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1,670만 원에 달하고 있다.

### Ⅲ. 適正 單位教育費

適正 單位教育費란 교육의 正常化를 지원하는 가장 效率的이고 바람직한 수준의 교육비이기 때문에, 이의 산출은 이러한 교육비를 보장해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단위 교육비는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運營費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上級學校일수록, 그리고 實業系 學校일수록 학생 당 운영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학교의 학생 당 단위 운영비는 10,740원인데 이를 1.00기준으로 할 때 각급 학교의 指數는 중학교 0.77, 인문고 1.18, 농업고 4.11, 공업고 6.13, 수·해양고 13.43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학교·학급 규모가

# 中·高等學校 學生의 科學的 思考發達에 관한 調查研究\*

崔 燾 亨\*\*

## I. 緒 論

###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基礎科學 分野의 教育을 상당히 重視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이 분야의 高級人力 양성을 위해 基礎科學 教育의 진흥을 정부 차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수학을 포함한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등의 기초 과학 교과목들이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상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학교 교육에서 중시되는 기초 과학 분야의 教育을 效果面, 結果面에서 본다면 강조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분야의 教育 結果가 投入한 노력에 비하여 극히 저조한 효과<sup>1)</sup>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에는 교수 방법의 비效率性, 教育 內容의 困難性, 學習者의 學習 태도와 열의 및 능력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원인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문제는 教育 內容의 곤란성과 學習者의 能力이다. 이 두 원인은 서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教育 계획 또는 教育 과정 설계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여러 차례 기초 과학 분야의 教育 과정과 교과서를 개편하였다. 개편 때

마다 이렇다 할 分명한 準據도 없이 教育 目的의 再記述, 教育 內容의 再調整에 그치는 것이 고작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능력과 요구 중에서 특히 과학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학습자의 科學的 思考의 특성인 論理性的의 형성 발달 정도를 조사 분석하여 보다 나은 科學科 教育 과정과 과학 교과서의 연구·개발에 準據가 될 기초 자료를 마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 2. 科學的 思考와 思考發達 理論

#### 1) 科學的 思考

과학적 사고는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論理性을 내포한 사고를 의미한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論理性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保存性 論理, 比例性 論理, 變因統制 論理, 組合論理, 確率論理, 二元, 또는 三元의 接近論理, 假說 演繹的 論理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자연 현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직면하면 이를 분석, 또는 종합적으로 관찰한 연후에 이를 理論的으로나 假說的으로 설명하고, 事象을 통제하거나 예언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로부터 특징적인 몇 가지 論理性을 내포한 과학적 사고를 관찰할 수 있다.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창안하는 知識, 法則, 理論 등은

\* 이 논문은 한 중하·최돈형·김영진이 연구한 「연구보고 RR 82-24」를 요약한 것임.

\*\* 교육과정연구부 연구원.

1) 1980년 대입 예비 교사 결과의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입 시험 준비 과정에서 수학 교과에 適當 거의 6~10시간씩 투입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학생들이 대입 예비 교사에서 얻은 平均 點數는 100점 만점으로 기준했을 때 25%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그러한 과학적 사고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사고의 특성, 즉 論理性이 형성되지 않고는 과학 지식의 창안은 물론 이해 조차도 못한다는 것이 피아제(Jean Piaget 1973)<sup>2)</sup>의 주장이다.

한편, 과학적 사고를 과학적 방법, 또는 과학적 탐구 방법과 결부시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을 대표하는 학자가 바로 듀이(John Dewey 1933)<sup>3)</sup>이다. 듀이는 과학적 방법을 문제의 인식, 가설 설정, 실험, 데이터 수집 및 해석, 결론(일반화)등의 5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칙, 이론, 원리 등의 과학 지식은 모두가 앞서 언급한 5단계의 과학적 방법을 거쳐서 발견되거나 과학자들에 의해서 창안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형성화된 과학적 방법 보다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대부분의 과학 지식이 발견된다고 코난트(Conant 1951)<sup>4)</sup>는 주장하고 있다.

## 2) 思考의 發達理論

앞에서 언급한 과학적 사고의 특성, 예컨대 保存性 理論, 比例論理, 組合論理, 確率論理, 二元的 接近論理, 變因統制 論理, 假說 演繹的 論理 등이 어떻게 형성, 또는 발달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린 理論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과학적 사고는 훈련, 또는 학습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는 行動主義 心理學者들의 입장과, 그런 사고는 자율적이고 자연적인 발달에 의해 형성된다는 認知發達 心理學者들의 입장이 있다.

이 중에서 認知發達 理論은 인간의 사고 발달을 설명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으로 학계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피아제이다. 피아제(1969)<sup>5)</sup>는 인간의 사고는 몇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고 하였다. 각 단계의 사고 수준은 質적으로 다르며, 이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과학적 사고의 특성들은 성인의 思考類型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린이 때에서

출발하여 몇 단계의 발전을 거듭하여 그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피아제의 發達段階를 크게 나누면, 感覺 運動 知能期(sensori-motor intelligence period: 0~2세<sup>6)</sup>), 前操作的 思考期(preoperational thinking period: 3~6세), 具象的 操作的 思考期(concrete operational thinking period: 7~12세), 形式的 操作的 思考期(formal operational thinking period: 13~16세)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피아제의 사고 발달 段階論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피아제의 발달 단계별로 예시한 연령층과 자기 다른 문화권 국가에서 조사 연구한 결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연령층의 청소년들 간에 사고 발달의 速度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 3. 研究의 問題

앞에서 논의한 사고 발달 이론을 기초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의 과학적 사고의 특성인 7가지의 논리(系列化 論理, 組合 論理, 確率論理, 假說 演繹的 論理, 二元推理, 比例 論理, 變因統制 論理)가 연령별로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며, 학년별, 성별, 지역별 형성 정도에 각각 의의있는 차이가 있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 II. 研究方法 및 節次

### 1. 調查對象

多段階 類層群集 無選標集(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에 의해서,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학년 학생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 2학년 학생을 調查對象으로 하였다. 「논리 검사 A」의 표집수는 중학교 3,318명(全集의 0.1%), 고등학교 2,128명(全集의 0.3%)이었으며, 「논리 검사 B」의 표집수는 중학교 2,312명(全集의 0.1%), 고등학교 1,399명(全集의 0.2%)이었다.<sup>7)</sup>

2) Piaget, J., *To Understand Is To Invent* (New York: Grossman Publishers, 1973).

3) Dewey, J., *How We Think* (Boston: Heath Co., 1933).

4) Conant, J. B., *Science Common Sens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1).

5) Piaget, J. and Inhelder, B., *The Psychology of the Child* (New York: Basic Books Inc., 1969).

6) 여기에 제시한 연령은 Piaget가 조사한 연구 대상의 연령을 의미함.

7) 1982년 현재, 우리 나라 전국의 중학교 총 학생수는 2,603,433명이고, 인문계 고등학교 1,2학년 총 학생수는 745,587명임.

## 2. 檢査道具 및 檢査의 實施

이 조사 연구에서는 두 가지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논리 검사 A」는 피아제의 認知發達 理論에 근거하여 그레이와 생물교육과정연구위원회(B.S.C.S.)가 고안한 “How’s Your Logic Test”를 번안한 것인데, 系列化 論理, 組合論理, 確率論理, 假說 演繹的 論理, 二元推理의 형성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이다.

「논리 검사 B」는 카프러스와 피터슨이 고안한 “The Ratio Puzzle”과 “Control of Variables Task”를 翻譯한 것인데, 比例論理와 變因統制論理의 형성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이다.

검사 실시 방법으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했기 때문에 연구자와 훈련 받은 검사자로 하여금 시·도 교육위원회 및 시·군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2차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 3. 資料의 處理

수집된 답안지는 채점 방법에 따라 각 論理의 형성 정도에 따라 형성, 과도기, 비형성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채점 결과를 학년별, 성별, 지역별로 정리한 다음 연령, 학년, 성, 지역에 대한 系列化 論理, 組合論理, 確率論理, 假說 演繹的 論理, 二元推理, 比例論理, 變因統制 論理의 형성 경향과 특성을 밝히고, 학년별, 성별, 지역별 형성 정도에 각각 의의있는 差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원의 PRIME 400/500의 SPSS 프로그램에 의해서  $\chi^2$  검증을 하였다.

## Ⅲ. 研究結果 要約

각각의 논리에 대해 먼저 연령별 형성 경향과 특성을 밝히고, 학년별, 성별, 지역별 형성 정도에 각각 의의있는 差가 있는지를 밝혀보는 순서를 택하였는데, 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系列化 論理 : 연령별 형성 경향과 특징은 만 12세부터 만 16세까지의 각 연령층 학생 중에

서 대부분(92.1~94.8%)에게 系列化 論理가 형성되어 있으며, 학년별 형성률도 중 1부터 고 2까지 전학년에 걸쳐 대부분(90% 이상)의 학생에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 형성 정도에 의의있는 差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형성 정도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중학교의 경우는 도시 학생이 농어촌 학생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오히려 농어촌 학생이 도시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組合論理 : 연령별 형성률을 보면, 12세의 경우 극소수(1.7%)만이 형성되어 있으며, 연령이 증가한 16세의 경우에도 소수(11.1%)에게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형성 정도의 특징은 조사 대상 全年齡에 걸쳐서 각 연령별로 과도기에 있는 학생의 비율이 40% 이상 된다는 점이다. 학년별 형성률은 중학생의 경우 극히 저조하나(5% 미만), 학년에 따라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며, 학년별로 의의있는 형성 정도의 差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1의 경우는 중학생보다 높으나, 형성률은 14.9%에 그치고 있다.

성별 형성 정도에 있어서는 중학교의 경우 성에 따라 의의있는 差가 없으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형성 정도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 모두 도시 학생이 농어촌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確率論理 : 연령별 형성 경향과 특성을 보면, 12세의 경우 형성률이 5.6%이며, 연령에 따라 형성률도 높아져서 16세의 경우에는 2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형성 정도의 특징은 조사 대상 全年齡에 걸쳐서 과도기에 있는 학생의 비율이 적다(10% 내외)는 점이다.

학년별 형성 정도는 중 1의 경우 4.0%의 학생이 형성되어 있고, 학년에 따라 증가하여 고 1의 경우 30.0%의 학생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중·고등학교 전체에 걸쳐 남학생의 형성 정도가 여학생의 형성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형성 정도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 모두 도시 학생의 형성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假說 演繹의 論理 : 연령별 형성 경향과 특성을 보면, 12세의 경우 형성률이 2.9%이며, 연령에 따라 증가하나 12~16세의 全年齡에서 저조(10% 미만)한 형성률을 보이고 있다.

학년별 형성 정도는 중학교의 경우 의의있는 差를 보이며, 고 1의 경우도 중 3의 경우보다 높은 형성률을 보이고 있다.

성별 형성 정도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중·고등학교 전체에 걸쳐서 도시 학생의 형성 정도가 농어촌 학생의 형성 정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二元推理 : 연령별 형성 경향과 특성을 보면, 형성률은 12세의 경우 39.0%이며, 연령에 따라 높아져서 16세의 경우 68.6%로 나타났는데, 다른 논리들의 형성률에 비하여 연령별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형성률은 중 1의 경우 33.1%이고, 학년에 따라 증가하여 고 2의 경우 70.7%에 이르고 있다.

성별 형성 정도에 있어서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의의있는 差가 없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여학생의 형성 정도가 남학생의 형성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형성 정도에 있어서는 중학교의 경우 도시 학생이 농어촌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도시 학생이 농어촌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 比例論理 : 연령별 형성률을 보면 12세의 경우 8.6%이고, 연령에 따라 높아져서 16세의 경우 46.2%로 나타났다.

학년별 형성률은 중 1의 경우 5.8%이고, 학년에 따라 높아져서 고 2의 경우 5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형성 정도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형성 정도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 全年齡에 걸쳐서 도시 학생이 농어촌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變因統制 論理 : 연령별 형성률은 12세의 경우 4.8%이고, 연령에 따라 높아져서 16세의

경우 17.2%로 나타났다.

학년별 형성률은 중 1의 경우 3.8%이고, 학년에 따라 높아져서 고 2의 경우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형성 정도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모두 도시 학생이 농어촌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論理들의 形成順序와 形成時期 : 논리들의 형성 순서와 형성 시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논리의 연령별 형성률과 과도기에 있는 학생의 비율의 폭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論理	年 齡 ( 歲 )					과도기
	12	13	14	15	16	
系列化 論理	92	93	94	94	95	3~7
組合論理	2	2	6	11	11	42~67
確率論理	6	7	14	23	30	8~13
假說 演繹的 論理	3	4	6	10	8	18~34
二元推理	39	37	47	58	69	5~10
比例論理	9	12	27	37	46	13~25
變因統制 論理	4	6	8	10	17	24~36

(단위는 %임)

각각의 논리가 형성된 학생의 비율만을 가지고 형성 순서를 알아보면, 系列化 論理가 가장 먼저 형성되고 그 다음이 二元推理, 比例論理, 確率論理, 變因統制 論理, 組合論理, 그리고 가장 나중에 假說 演繹的 論理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도기에 있는 학생도 문제 해결에 그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系列化 論理 다음에 組合論理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으며, 確率論理가 가장 나중에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또, 각 논리가 많이 형성되는 시기를 보면 系列化 論理는 12세 이전이며, 二元推理, 比例論理, 確率論理는 14세 전후이고, 變因統制 論理, 組合論理, 假說 演繹的 論理는 고등학교 高學年 시기인 것으로 類推할 수 있다.

#### IV. 提 言

이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우리 나라의 과학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몇 가지 示唆點을

던져 준다.

첫째, 중·고등학교의 과학과 교육 과정을設計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학생들의知的 능력인데, 이 연구는 이러한 知的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나 다른 연구가 말해 주듯이, 14~16세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知的 능력을 形式的 操作的 단계의 수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具象的 操作的 단계의 수준으로 보고, 목표 수준과 내용 수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나라 과학 교육에서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앞서 具象的 操作的 思考期에 있는 학생들의 특성에 있어서 言語 또는 抽象的 표현 방법보다는 具體的 활동과 체험을 통한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의 과학 교육 프로그램은 관찰, 실험, 실습 형태의 학습 형

태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과학적 사고의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道具를 보편화시킬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이런 道具를 통해 학생들의 知的 능력을 수시로 관찰하므로써 교사들의 교수-학습 설계에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學力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네째, 이 연구에서는 지필 검사에 의존하여 知的 수준, 발달 정도를 관찰하였는데, 면담 방법을 사용하여 좀더 深層的인 測定研究가 필요하다.

다섯째, 이 연구는 地域間的 知的 발달 속도에 差가 있음을 관찰하였는데, 그 원인을 究明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그리고, 외국 학생들과의 深層的인 비교 분석이 가능한 協同研究도 필요하다. 〇

〈39페이지에서 계속〉

적은 관계로 학생 당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단위 운영비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적정 단위 운영비의 산출 결과를 보면, 1급지가 지역의 학교 규모로 학생수 2,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국민학교는 12,910원(1.00)으로 산출되었고, 중학교는 21,320원(1.65), 인문고는 22,360원(1.73), 농업고는 49,060원(3.80), 그리고 공업고는 107,430원(8.32)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수·해양고는 1,000명 규모의 학교에서 학생당 적정 운영비가 342,250원인데 이는 같은 규모의 국민학교 수준보다 21.24배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은 학교 규모가 커질수록 국민학교와 비교한 각급 학교의 학생 당 적정 운영비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학생이 많을수록 1인당 운영비는 적게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정 단위 운영비 이외에도 適正 人件費 및 適正 施設費에 관해서도 학급당 및 학생당으로 구분하여 추정되었다.

#### IV. 結 言

이상에서와 같은 教育投資 規模와 適正 單位教育費 分析結果는 財政政策 내지는 教育政策 수립을 위한 중요한 판단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교육 제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準據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교육 투자 우선 순위의 설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教育財源確保 내지는 財政制度의 改善을 위한 판단 자료로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單一年度의 결과만으로 정책 결정을 위한 판단을 내리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교육비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가 앞으로 계속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單位教育費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 연구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教育財政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〇



## 女性人力 養成 및 活用方案 研究\*

朴 富 權\*\*

### I. 서 론

부존 자원이 빈약한 우리 나라가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풍부한 인력 자원 덕택이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선진국을 향한 고도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는 기술 집약적 산업 구조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국내의 우수 기업 중에는 이미 정보·지식 및 서어비스 산업 등의 제3차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이와 같은 산업의 체질 개선은 필연적으로 잘 훈련된 전문적인 고급 인력의 수요 증대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다분히 남성 위주로, 그리고 남녀 차별적으로 되어 있는 고용 구조와 고용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 한 여성 고급 인력은 계속해서 고용에서부터 배제될 것이며, 고용된다 해도 여성이 가진 전문성과 능력이 심분 발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럴 경우 국가적으로는 고급 인력의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고, 교육 투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여성 개인에게는 많은 실의와 좌절을 안겨 줄 것이다.

여성 인력 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들로서는 노동 시장의 불명등 구조와 남녀 차별적인 고용 관행 외에도 교육 체제, 家父長的인 의식

구조, 각종 지원 체제의 미비 등 실로 枚擧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요인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여성 인력 활용에 직접·간접으로 작용하고 있는 많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되 대졸 여성을 중심으로 특히 다음 사항에 연구의 초점을 맞췄다. 첫째, 여성 인력 양성 및 활용 현황과 국가 경제 발전에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둘째, 여성 인력 활용을 저해하는 노동 시장, 교육 제도 및 의식 구조상의 불명등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셋째,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 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넷째, 대졸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가 요인 분석, 다섯째, 여성 인력 양성 및 종합 대책의 수립 등이다.

### II.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여성 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과거의 근로자수와 임금 자료에 여러 가지 추정 함수를 적용, 과거 추세와 여성 인력 활용에 관한 경제적 行態分析을 시도한 것 이외에도 다음 네 가지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대학 졸업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요인과 이들의 취업에 대한 요구 분석을 위하여 대졸 여성 1,200명을 대상으로 「여성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탐색을 위한 실태 및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 논문은 주 경관·박 부권·유 현숙이 연구한 「연구보고 RR 82-21」을 요약한 것이다.

\*\* 교육발전연구부 연구원.

둘째, 남편의 성역할 지각 및 아내의 취업에 대한 태도가 대졸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산업별 직업별 기혼 남성 175명을 대상으로 「여성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탐색을 위한 남성들의 태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 졸업 여성 인력 활용 실태 및 고용 관행, 즉 채용, 배치, 승진, 재교육 및 훈련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38개 기관의 고용자를 대상으로 여성 인력의 채용 방법, 활용 현황, 임금, 승진, 훈련 등에 관하여 면담하고, 아울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넷째,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대학 졸업 여성의 초기 사회화가 이들이 직업인으로 되는 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직 여성 44명을 대상으로 직업을 갖게 된 동기, 사회화 과정에 미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 자신의 성격, 역할 모형, 남편의 태도와 남편의 구체적 후원 내용, 직업인으로서의 애로점 등에 대하여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 Ⅲ. 여성 인력의 활용 현황과 국민 경제적 역할 분석

과거 10년 동안 여성 인력의 공급 및 수요의 변동 구조를 살펴 보면 여성 취업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산업은 사회 간접 자본 부문이며, 1980년 현재 여성 취업자의 구성비가 가장 높은 산업 분야는 전체 취업 여성의 반을 차지하는 농업·수산업 부문이다. 이것을 다시 직종별로 살펴 보면, 사무직이 가장 높고, 다음이 전문 기술직으로서 비록 행정·관리직이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성 인력의 활용 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수준별로 살펴 보면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여성 취업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대학 졸업자이며 특히, 대학 졸업의 경우 여성 취업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남성 취업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 노동력의 임금 구조도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80년 현재 여성의 임금 수준은 서서비스업 부문이 가장 높고 그 다

음이 농업, 사회 간접 자본, 광공업 부문의 순이며, 남녀별 임금 격차가 가장 낮은 분야는 농업과 서서비스업 부문이며, 광공업과 사회 간접 자본 부문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 여성 인력의 명목 임금 증가율도 서서비스업 부문을 제외하면 남성의 명목 임금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직종은 행정, 관리직이며, 그 다음이 전문·기술직, 사무직 순이다. 남녀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직종은 농·어업적 생산직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교육 수준별로 보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의 격차 폭은 줄어들고 있으며, 1970년 이후 미약하나마 학력 수준 간 임금의 평준화 추세가 엿보이고 있다.

1970년 이후의 여성 취업자수와 임금 자료를 토대로 여성 인력이 국민 경제 활동에 미친 영향을 생산 비용 측면과 노동 생산 요소 자원의 배분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우선 지체할 수 있는 것은 여성 인력이 비용 상승(cost-push)에 미친 효과는 남성 노동력에 비하여 1970년대의 경우 평균  $\frac{1}{3}$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노동 자원 배분 측면에서 볼 때 남성과 여성 노동력 간에는 대체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1970년대의 자료를 기초로 한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 대체 탄력성이 0.05 수준으로 상당히 미약하였다. 그러나, 이는 1980년대 여성 인력 활용의 커다란 잠재력을 시사해 준다.

여성 인력 자원 배분 및 활용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 보면 첫째, 농업·어업 부문의 여성 인력과 대체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 인력의 소득 탄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광공업 분야로 0.76이며, 다음이 0.19의 서서비스 부문이고 그 밖의 부문은 0.05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직종별 여성 인력의 소득 탄성치는 생산 관련직이 0.65로 가장 높고 전문·기술직과 판매 및 서서비스 직종의 여성 인력은 0.05의 미약한 수준이다. 그리고 전문·기술직과 판매 및 서서비스 직종간, 행정직 및 사무직과 생산 관련직 간의 요소 대체 탄력성이 특히 두드러진다. 셋째, 교육 수준별 여성 인력의 소득 탄성치는 중졸 이하가 0.68로 가장 크

고, 다음이 고졸로 0.25 수준이며, 대졸 이상이 0.07로 가장 낮다. 그리고 중졸 이하의 여성 인력과 초대졸 이상의 여성 인력 간에는 경쟁적 대체성을 고졸과 초대졸 간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 IV. 여성 인력 양성 및 활용의 불평등 현황

대부분의 여성들은 신규 채용에서부터 제한당하고 있으며, 일단 입직(入職)한 후에는 단순·반복적 남성 보조적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 더우기 직업별, 산업별, 학력별, 남녀 간의 고용 격차도 뚜렷하며, 그 중에서도 학력별 고용 격차가 가장 크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임금 격차는 학력이 낮을수록 커지고 있으며, 초급·전문대학 남녀별 임금 격차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남녀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기는 입사 후 3~4년이다. 전체 관리직 종사자 중 여성 관리직은 1% 미만에 불과한데 이것은 우리와 여성 취업자의 직종별 구조가 유사한 일본, 대만과 비교하여도 극히 낮은 비율로 여성들의 승진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기혼 취업 여성들은 직장 생활과 가사를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이른바 二重職 여성들이다. 이들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남성들이나 미혼 여성들보다 많은 애로에 부딪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사 및 자녀 양육, 남성 직원과의 갈등과 과중한 업무, 건강 및 과중한 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이들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혼 여성들은 가사와 자녀 양육의 병행이 용이한 정시제 취업을 원하고 있으며, 기업측에서도 일의 성격에 따라 정시제 취업이 바람직한 형태로 환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우리 나라는 정시제 취업에 대한 통일된 개념 규정과 현황 파악이 아직도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교육 및 직업 훈련의 기회에 있어서도 남녀 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선진 주요국에서는 남녀 간의 평균 교육 연수의 차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나 우리 나라는 1975년 현재 여성이 5.7년, 남성이 7.6년으로 약 2년 간의 교육 격차를 보이고 있다. 취학률에 있어서도 중등 교육 단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12% 정도 떨어지며, 고등 교육 단계의 취학률은 여학생이 남학생의  $\frac{1}{3}$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학교 조직의 구조적 불합리점으로서 여교사들은 대체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수가 적어짐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남녀의 차등적 지위를 학습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남녀 차별적인 교육 내용과 성역할 묘사 및 진로 지도의 미흡으로 인한 전공 계열의 편향적 선택 등도 여성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대학 확장 프로그램, 대학원 진학, 기존 대학에의 학사 편입, 방송 통신 대학의 석·박사 과정의 형태를 원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계속 교육의 기회는 대단히 제한되어 있는 형편이며, 직업 훈련의 경우도 대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 훈련 기관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전문·기술직 및 행정 관리직에의 종사 비율이 극소함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주어지는 훈련 및 연수 기회에도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여성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남성들과는 다른 배려가 요구되며,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예를 들면 많은 여성들은 직장 부설 탁아소, 집 근처의 탁아소, 유치원 등 다양한 탁아 시설 및 유아 교육 형태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는 유치원과 유아원이 단조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취원율도 1982년 현재 14.7%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임신 및 수유부를 위한 건강 보호법이 상세화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며, 현재 근로 기준법상에 60일로 되어 있는 산전·산후 휴가(maternity leave)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하며, 육아 휴직 제도 또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여성의 취업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남녀 불평등 의식 구조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가부장적 여성관은 오늘날 대다수의 남성들이 여성에 대하여 차별적인 편견을 갖게 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대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의

견 조사 결과 여성들은 아직도 가정·전통 지향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남성들의 조사 결과 역시 전통적인 차별 의식이 아직도 보편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별 직종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종은 토목 기술자, 항공기 조종사, 기계 기술자, 대통령 등과 같이 어렵고 위험하며 전통적으로 남성적 직종이라고 생각하는 분야이며, 간호원, 약사, 초등 교원 등과 같이 타인을 간호하고 돌보아 주는 직종이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녀 공통된 생각인데 그 정도는 남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 V. 대학 졸업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요인 분석

대학을 졸업한 기혼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가에 다음의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째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는 교육 수준과 자격증 소지 여부이다. 둘째, 사회적 변인으로는 본인의 성역할 태도와 과거의 직업에 대한 포부, 세제, 경제적 변인으로는 본인의 소득 및 타소득(other family income), 세제, 가족 관련 변인으로서 남편이 아내의 취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6세 미만의 자녀수 등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전문직 여성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들의 초기 사회화 과정을 살펴 보면 부모·형제 등으로 이루어지는 원초적 집단(primary group)의 높은 성취 수준과 이들의 기대 및 지원 등이 이들의 전문직·이중직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면담 대상자에 따라서는 교사, 교수, 현존하는 여류 명사, 역사적 위인 등으로 부터도 영향을 받았음을 술회하고 있다. 또한 면담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이중직 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남편의 긍정적 태도와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IV. 전망 및 대책

앞으로 여성 인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예상

되는 변화는 노동 집약적 형태에서 기술 집약적 형태로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전문·기술직, 행정 관리직, 서비스직의 여성 진출 증대, 직업 과정의 기계화와 자동화에 따른 여성 인력 활용의 구조적 개선, 25세 이상의 중·고년 연령층의 인력 공급 및 이중직 여성의 증대, 여성의 고학력화와 평생 교육에의 요구 증대, 남녀 평등의식의 고조 및 여성 진로의 다양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망 위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과 양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취업 기회와 확대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여성 인력 활용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즉, 작업 스케줄의 조정, 직무의 재배분은 물론 사무실과 공장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여성 인력 채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과 공공 기관은 궁극적으로 모든 직종에의 여성 채용을 목적으로 기업 내부의 체계 정비와 함께 지금 당장은 건축가, 전산 프로그래머, 체제 분석가, 공인 회계사, 상담자, 번역자, 정보 처리 전문가 등의 직종에서부터 공개 채용을 실시해 가야 할 것이다. 세제, 정사제 취업 기회와 확대가 필요하다. 기업이 정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작업의 표준화와 다양한 정시제 형태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노동부 산하에 정시제 취업 담당과 혹은係를 설치하여 정시제 취업의 현황 파악과 정사제 취업자들의 근무 조건 개선을 담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

#### 2. 노동 시장의 불평등 구조 개선

상당수의 여성들이 채용된 후에도 단순 반복적 업무에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고용 차별을 해소하여 지금까지 여성의 능력과 소질을 무시한 남성 보조적 단순 반복적 업무를 부과함으로써 초래되었던 기업 부담의 증가와 여성 노동력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임금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임금 체계는 학력 간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심하고 기업의 경우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4년제 대졸 사원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임금 체계는 동일 학력, 동일 경력일 경우에는 남녀의 출발점 임금을 동일하게 하고, 그 이후부터는 생산성과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보수 체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 기준법의 수정 보완도 요구되고 있다. 여성 인력 활용을 촉진하고 노동 시장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로 기준법 제 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 대우를 못하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모집, 채용, 승진, 직업 훈련, 특전, 해고, 근무 조건 등에서 남녀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며……」로 차별 항목이 보다 상세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야업 금지, 시간 외 근로의 제한, 생리 휴가 등의 여성 보호 조항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남녀 차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3. 교육 및 직업 훈련의 개선

지금까지 아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던 상급 학교의 진학과 고등 교육의 기회는 적성과 능력에 따라 딸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 확장 프로그램, 기존 대학에 학사 편입 및 대학원 입학 완화, 방송 통신 대학의 계열의 다양화 및 석·박사 과정의 신설을 통하여 계속 교육과 취업과 재임직에 대비한 직업 교육 및 재훈련 기능을 담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

한 남녀 차별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현행 교육 과정을 수정하고 여성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일부 직종에 편중된 진로 선택을 지향하고 여성들도 직업을 개인 성취의 중요한 통로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자녀 양육 지원 체제의 강화

탁아 시설 및 유아 교육 기관을 다양하게 확충하여 수용 유아의 연령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람직한 유아 교육의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아 교육에 대한 공공 재정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임신과와 수유부를 위한 「모성 보호법」의 임수는 물론 유아를 대리 담당자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돌봄으로써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의 병행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육아 휴직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5. 남녀 차별 의식의 개선

지금까지 가부장적 여성관의 특징으로 되어 있던 종속적 여성관, 남존 여비, 여성 무능 등의 유교적 가치관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각종 법규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들은 초기 성 역할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에서부터 남녀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여성의 직업 의식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㉔

## □ 교육학 신간 서적 소개 □

### ◇ 통합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육개발원 총서 5) ◇

한국교육개발원은 학교 교육의 전체적인 시야 속에서 교육 과정의 통합화, 또는 통합 교육 과정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찾아보고 학교 교육의 실제에 있어서 그 다양한 실현 가능성을 선도적으로 시사하기 위하여 총서 5를 내놓게 되었다. 이 책은 교육학계의 저명 인사들이 공동 집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합 교육 과정의 이념
- 통합 교육 과정의 구성 방법
- 통합 교육 과정의 학습 지도 및 평가
- 통합 교육 과정과 학교 운영
- 우리 나라 국민학교 저학년의 교과 통합 지도
- 전망과 과제
- ※ 발행처 : 교육과학사

## 理論과 實踐의 邂逅

朴 成 益\*

### I

教育은 어떤 理想이나 目的 혹은 어떤 價値基準에 의하여 인간의 知的·情意的·身體的 발달과 성장을 잘 이루도록 도와 주려는 일련의 人爲的 過程으로 볼 수 있다. 人爲的 過程이라 함은 教育을 계획하고 主導하는 사람이나 社會의 目的指向的 내지는 價値指向的 意圖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意圖를 成就하고 實現시키는 데 必須不可缺한 「理論」을 연구하여 教育實踐에 지침이 되는 規範이나 法則을 밝혀 주는 것이 教育學의 目的이다. 그리고 「教育理論」은 의도된 價値로운 것을 성취하기 위한 教育의 行爲 및 教育現象을 哲學的·心理學的·社會學的·制度的 등등의 측면에서 記述하고 說明하고 教育實際에 적용할 수 있는 처방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教育에 관련된 책들을 들추어 보더라도 그 책의 제목이나 내용이 시사하는 바 만큼 교육 실천에 說得力과 效用性を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또한 소개되고 있는 모든 이론들이 절대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할 만큼의 超理論(absolute principles)적인 성격을 띤 것도 없으므로, 教育實踐家들은 ‘그것은 理論上으로는 모두 수궁이 가는데 실제에 적용하려면 안될 거야’라는 반응을 흔히 들을 수 있다. 때로는 ‘實踐(practice)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理論」에 대한 懷疑마저 제기된다. 그렇다고 理論에 대한 懷疑 때문에 理論이 배척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단지 기대하는 것 만큼 理論이 實踐過程에 機能的인 效用性を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론 자체도 教育現象을 바탕으로 하여 창출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實踐」을 도의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기계를 통하여 프라스틱 제품을 의도하는 대로 다양하게 적어 낼 수 있듯이, 교육이라는 觸媒者를 통하여 인간을 의도하는 대로 양성해 낼 수 있는 教育理論을 만들어 낸다면, 哲學, 社會學, 人類學, 歷史學者들 중에는 「教育萬能主義」에 대하여 밋발 같은 비판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 교육만능주의 그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人間價値의 실현을 위해서만 능적인 교육적 기능을 여하히 활용하느냐에 비난의 여부가 달려 있다.

醫·藥學에서 보면 소화 불량에는 소화제를 처방해야 하고 체온이 높아지면 해열제를 처방하듯이, 병의 징후에 따라 「특효약」이라는 것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학」 또는 「教育科學(science of education)」에서도 教育實踐의 生態(ecological characteristic of practice)에 부합되도록 처방할 수 있는 만능의 교육적 이론(grand theory)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는 理論이란 찾아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 수궁이 갈만하다. 그 이유는 實際狀況에 있어서의 모든 가능성을 예언한다는 뜻으로써 理論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논리적으로 理論과 實踐은 合一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多樣성과 多變的 本質 때문에 그와 같이 완벽한 이론(elegant theory)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이론이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한 適切性を 함유할 수 없기 때문에

\* 교육과정연구부 책임연구원·철학 박사.

이론의 效用性을 예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흔히들 科學的 論理性, 妥當性을 지니고 있는 이론이라 하더라도, 教育實踐에 의미있는 效驗이나 示唆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론은 가치가 없는 혹은 불필요하다는 이론바 「理論의 無價値性」 혹은 좀 더 극단적으로 「理論의 不必要性」을 주장하게도 된다. 그렇다면 과연 教育者들은 이론을 알 필요가 없으며, 教育實踐에 교육 이론은 아무런 시사점을 주지 못하고 있는가?

## II

우선 教育理論 定立의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구별해야만, 教育理論과 教育實踐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가지 理論定立의 접근 양식으로는 실천으로서의 「教育에 관한 理論定立(theorizing about education)」과 實踐의 개선이나 개혁을 지향한 「教育的 理論定立(educational theorizing)」이 그것이다. 「教育에 관한 理論定立」의 한 예로는 構造的-機能的 理論(structural-functional theory)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教育의 性格을 규명하기 위하여 教育의 目的, 機能, 役割 등을 社會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밝혀 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이론은 教育現象에 대한 概念的 설명에 그 목적을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教育實際를 위한 規範的인 方向提示는 해주지만 구체적인 方法提示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와 대조적인 입장으로는 「教育的 理論定立」에 관한 것으로 確認照會裝置(monitorial system)로서의 이론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테면, 어떤 技能을 가르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 가르쳐야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혀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現狀의 설명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設定된 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教育實踐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節次나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상의 이론에 대한 두 가지 理解方式을 기초로 하여 앞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解答의 실마리는 教育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通念을 중심으로 그 신빙성(adequacy)을 진단해 봄으로써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논의하는 방식으로는 教育實踐의 生態를 이해하는 데 이론의 기여 정도를 살펴보거나, 教育實踐을 중심으로한 이론의 실제적인 功過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教育實踐에는 理論이 不必要하다」는 주장의 저변에 흐르는 通念은 「가르치는 방법이나 기술을 교사가 어떻게 체득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와 같은 주장은 教授技術이 理論的인 知識의 활용에서 보다는 제속적인 山 經驗을 통해서 터득되며 內面化되어 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된다. 만약 이러한 생각이 옳다면, 敎生實踐은 학교 현장에서 教授技術을 습득하는 과정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만이 유능한 교사는 길러질 수 있고, 그러한 경험을 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經驗이 풍부한 敎師가 敎生들에게 示範을 보여 주고 그의 教授技術을 모방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이론이란 教育實踐에 의미있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 理論自體도 생산적이지 못한다. 따라서 많은 教育者들은 敎師訓練過程의 핵심 영역으로 敎生實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實際經驗 그 자체로 훌륭한 敎師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떤 實際的 狀況에서 겪게 되는 경험이란 그때의 時間的·空間的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다른 學習事態에서는 또 다른 경험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경험의 일반화 또는 授業技術의 일반화가 매우 어렵다. 교육 실천 과정에 대한 이러한 논의의 초점을 되새겨보더라도 理論不在 혹은 理論 不必要性을 주장할 만한 뚜렷한 근거는 없다. 오히려 教育現象 또는 教授-學習過程의 관찰은 現象이나 사실에 대한 解釋過程이거나, 가지고 있는 知識 또는 이론에 더한 說明過程을 의미한다. 인간이 관찰하는 모든 것은 자신들의 理論的 體系를 바탕으로 관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實踐過程에 대한 觀察」은 「理論胎胎的(theory impregnated)」이다. 이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는 教育實踐의 본질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 教育實踐이란 目的 指向的인 행동이다. 병원에서 修練醫들은 환자들의 건강을 돌본다는 목표로 醫術實踐을 하게 된다. 물론 이 예에도 는

쟁거리가 될 만한 헛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건강」이란 개념이 可視的이거나 촉감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우기 「精神健康」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하는지를 밝히기가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 영역을 다루는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코 건강이라는 개념 보다 단순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教育實習」에서 교육 현상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고 또 어떤 활동을 전개시켜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教育實踐이 目的指向의인 活動이기 때문에, 달성하여야 할 目的·內容·方法 등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는 실질적인 측면보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며, 教育實踐의 觸媒者(regulator)로서 教育理論은 필요한 것이다. 이를테면, 한 학생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선생은 적어도 읽기 학습이나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론 자체가 교육 실천의 充分條件은 될 수 없지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이해하는데 밑받침이 될 수 있다. 어떤 교사가 이론적인 배경을 갖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가르치기 위한 그 나름대로의 目的·내용·방법은 최소한 선별하고, 가르칠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理解와 眼目を 가지고 시작하게 됨이 틀림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정확한 이해와 안목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알려진 이론들을 활용함이 더욱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일 것이다.

### III

아직까지는 「完璧한 이론」이라고 교단에 선 교사들에게 서슴치 않고 안겨 줄 수 있는 교수 이론이나 모형은 없다. 그러나 이론이란 교육 실천의 생태를 照明하여 볼 수 있는 道具的 價値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의 過程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론과 실천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參照해 보아야 할 것은 「人間的 多變的 本質(multivariate essence of human ability)」이다. 인간이란 정신적인 차원에서 매우 복잡하고 복

합적인 본질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萬人에 有效한 教授—學習理論이나 技法은 아직도 많은 연구가 요청된다. 만약에 인간의 多變的인 복잡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새롭게 통합된 이론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教育科學史의 크나큰 轉機가 될 것이다. 教育理論 研究의 特徵 중의 하나는 刺戟—反應, 投入—產出, 또는 環境—行動 등의 因果論的 관계로 귀착되는 「決定論的 立場(determinism)」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간 생활이라는 것은 決定論的 접근으로 설명하고 통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教授過程을 因果論的 立場에서 볼 때, 계획된 연구 과정에서의와 같이 단순한 통로를 경유하여 교육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많은 변인이 教授—學習過程에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學習行爲도 그 진가를 찾아 보면 교사 특성, 학생 특성, 교과 내용, 물리적·심리적 환경 등등의 무수한 변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 작용 효과가 특이한 하나의 교수-학습 實體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중 어떤 변인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며, 각 변인들에 대하여 설명되고 있는 모든 이론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의미있는 教育過程을 전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 IV

이상에서 理論定立의 두 가지 理論方式과 아울러 教育實際 혹은 教育實踐에서 教育理論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면서 教育實踐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인간의 多變的 本質과 함께 理論의 適用이라는 측면과 教育現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가를 진술하였다.

요컨대, 이론과 실천의 관계는 相補的인 것으로서, 이론은 실천을 指向하고 있고, 實踐은 理論胚胎의이어서 이론을 교정해 주고 보완해 줄 때 바람직한 교육의 場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場에 임하고 있는 教育者의 교육적 眼目에 따라 이론과 실천은 邂逅할 수 있으리라 본다.

知는 行의 始이고, 行은 知의 成이다.

—王陽明의 글에서—



## 수업 장학의 과정과 방법(3)

金 洪 遠\*

### 3) 임상 장학의 가정

임상 장학은 몇 가지 주요한 이론적 가정을 가지고 있다. 그 가정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sup>

첫째, 교사가 이상으로 신봉하는 이론과 현재 자기가 수업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론 사이에 차이가 있다. 모든 교사는 나름대로의 교육적 platform 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platform 은 교사의 행동을 유발하고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sup>2)</sup> 교사가 가지고 있는 platform 은 교실에서의 교사 행동의 성격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교사의 platform 은 가정, 이론, 신념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데 이들은 수업의 형태, 목적, 내용을 결정짓는다.<sup>3)</sup> 자신이 가지고 있는 platform 이 수업에 미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platform 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의식하고 있는 platform(교사가 이상으로 신봉하는 이론)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platform(교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론) 사이에 모순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의견 표현을 억압하

나 유발하지 못하는 교사는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임상 장학은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platform 사이의 괴리를 없애주는 역할, 즉 교사가 이상으로 신봉하는 이론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론 사이의 괴리를 없애주거나 줄이는 역할을 한다.

둘째, 모든 교사는 본태적으로 옹호하며 자신을 개발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교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상 장학의 이론적 가정은 Y이론과 일치한다. 스스로의 성장 욕구와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풍부한 전문적 성장을 기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임상 장학은 이러한 여건을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교실에서 수업하는 교사의 행동은 규칙적이고 일관성을 지닌 어떤 형태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형태는 관찰되고 감지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관찰 분석된 자료가 교사에게 피이드백 되었을 때 교사는 자신의 수업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 임상 장학을 실시하는 장학 상담자는 수업을 참관하고 여기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교사에게 즉각적인 피이드백을 제공한다.

넷째, 효과적인 장학은 피상적이고 즉흥적인

\* 교육과정연구부 연구원.

1) 변 영계, 「수업 개선과 수업 장학」, 『교육개발』, 1983. 2; 주 삼환, 「임상 장학의 적용 가능성」, 『새교육』, 1983. 1; Thomas J. Sergiovanni & Robert J. Starratt, *Supervision: Human Perspectives*, 2nd ed., (N.Y.: McGraw Hill Book Co., 1979).

2) platform 은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3) Thomas J. Sergiovanni, et al., *op. cit.*, pp. 313~314 참조.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전략적이다. 아무런 계획없이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기분에 많이 좌우되는 장학은 교사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 임상 장학은 명확한 목적 의식과 치밀한 방법적 계획하에 이루어진다.

다섯째, 교사와 장학 담당자 간의 관계가 상호 협조적일 때 장학의 효과는 높아진다. 도움을 주고 받는다는 관계보다는 공동의 문제를 같이 책임지고 해결하여 간다는 분위기가 이루어질 때 장학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임상 장학에서 교사와 장학 담당자 간의 동호적, 협동적 관계는 특히 중요시된다.

#### 4) 임상 장학의 과정

장학에 대하여 교사가 갖는 부정적 태도는 장학 그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의 방법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임상 장학은 매우 치밀하고도 조심스러우며, 체계적인 과정을 따른다. 임상 장학의 과정을 Cogan은 ① 교사와 장학 담당자 간의 관계 확립, ② 공동 수업 계획, ③ 수업 관찰 계획 수립, ④ 수업 관찰, ⑤ 교수-학습 과정 분석, ⑥ 협의회 준비 계획, ⑦ 협의회, ⑧ 후속 계획의 8단계로, Goldhammer는 ① 관찰 전 협의회, ② 수업 관찰, ③ 분석과 전략 수립, ④ 장학 협의회, ⑤ 장학 협의회 분석의 5단계로, Acheson과 Gall은 ① 계획 협의회, ② 수업 관찰, ③ 환류 협의회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Goldhammer의 5단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sup>

##### ◆ 1단계 : 관찰 전 협의회

장학 담당자는 장학 활동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얻고 기초 계획을 수립한다. 이 단계에서의 주요한 일은 다음과 같다.

(1) 정보 획득 : 교사는 학급의 상황, 관찰될 수업의 목표, 과정, 방법 및 평가 준거 등을 설명한다.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확인 : 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 문제점이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설명한다. 개선 방향은 장학 담당자와 협의하여 모색할 수도 있으며, 관찰 가능한 외현적 행동 용어로 표현한다.

(3) 관찰 계획 수립 : 관찰의 내용, 방법, 도구 및 자료, 시간, 장소 및 교실 내에서의 장학 담당자의 역할, 위치, 행동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한다.

(4) 관찰될 수업 장면의 명료화 : 교사는 자신이 할 수업을 언어적 예행 연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실히 한다. 이는 장학 담당자와의 확실한 협약 및 의사 소통을 위해서이다.

(5) 친화감(rapport) 형성 : 이전에 교사와의 신뢰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장학 담당자는 친화감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친화감은 장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장학 담당자는 정보 획득,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의 확인은 가급적 질문을 통하여 얻도록 하며,<sup>5)</sup> 관찰될 수업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 비난, 암시, 지나친 낙관이나 불안의 표현 등은 삼가하여야 한다. 또한 도움을 준다는 표시나 평가한다는 자세 등도 보이지 말아야 한다.

##### ◆ 2단계 : 수업 관찰

장학 담당자는 계획대로 교사의 수업 행위를 관찰한다. 비디오테이프, 오디오테이프, 사진기, 관찰 기록지 등이 관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장학 담당자는 수업 관찰의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며, 자료 수집에 있어 기분, 편견 등에 좌우되지 않는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수업을 감독하는 듯한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하며, 특정한 행위나 학생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도록 한다.

##### ◆ 3단계 : 분석 및 전략 수립

장학 담당자는 얻은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교사를 돕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1) 자료 분석 및 수업 분석 : 장학 담당자는

4) Robert Goldhammer, Robert H. Anderson, & Robert J. Krajewski, *Clinical Supervision: Special Methods for the Supervision of Teachers*, 2nd ed.,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9).

5) 정보 획득,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의 확인은 장학 담당자의 사고나 용어, 이론적 참조 준거보다는 교사의 사고나 용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자료를 분석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수업을 분석한다.

(2) 문제점 확인 및 수업 개선 방법 모색 : 분석된 수업을 관찰 전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수업 목표, 평가 준거 등)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고 문제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나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3) 관찰 후 협의회 계획 수립 : 다음 협의회 목표, 내용, 과정, 시간 등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자료의 수집은 특이성, 친밀성, 희소성을 준거로 하고, 관찰 후 협의회 목표는 개념적 결과, 행동적 결과, 준거 행동의 3종류로 설정한다.<sup>6)</sup>

#### ◆ 4 단계 : 장학 협의회

장학 담당자는 교사에게 피이드백을 제공하며 교사와 함께 수업 개선 방법을 모색한다. 이 단계에서의 주요한 일은 다음과 같다.

(1) 장학 담당자가 협의회 내용 및 절차를 간략히 설명한다.

(2) 진행 사항 확인 : 장학 담당자와 교사는 관찰 전 협의회 때 합의된 사항 및 관찰된 사항을 재확인한다.

(3) 피이드백 제공 : 장학 담당자와 교사는 분석된 자료에 근거하여 수업의 장·단점을 논의한다. 장학 담당자는 교사의 장점에 대하여 보상을 제공하여 주고 교사와 함께 수업상의 문제점을 확인하며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4) 자기-장학 훈련 : 장학 담당자는 교사가 자기-장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심어주고 기술을 제공하여 준다.

장학 담당자가 피이드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7)</sup>

① 교사의 인성 또는 인간 자체보다는 교사의 행동에 초점을 둔다.

② 추론, 추측보다는 관찰된 내용에 근거하여 피이드백을 제공한다.

③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평가적 피이드백보다는 설명적 피이드백을 제공한다.

④ 양자 택일의 용어보다는 “다소간”의 용어를 사용하는 피이드백을 제공한다.

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피이드백보다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피이드백을 제공하며, 과거의 행동보다는 현재의 행동에 피이드백을 제공한다.

⑥ 도움, 조언을 제공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호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한다는 의미에서 피이드백을 제공한다.

⑦ 특정한 해답이나 해결책보다는 대안적 방법을 탐구하고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피이드백을 제공한다.

⑧ 자신의 필요보다는 교사의 필요에 근거하여 피이드백을 제공한다.

⑨ 교사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의 피이드백을 제공한다.

⑩ 행동의 이유보다는 행동 자체에 초점을 두어 피이드백을 제공한다.

협의회가 시작되는 처음 몇 분간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장학 담당자는 처음 몇 분간의 대화, 질문, 교사의 반응 등을 미리 예상하고 고려하여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학 담당자는 자신의 역할, 위치 등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의회를 시작해서 칭찬, 격려의 내용으로 협의회를 마치도록 한다. 협의회 내용은 비디오, 오디오, 필기 등을 통하여 기록하여 두는 것이 좋다.

#### ◆ 5 단계 : 장학 협의회 분석

장학 담당자는 장학 협의회 결과 분석하고 자신의 장학 기술을 평가한다.

(1) 협의회 평가 : 장학 담당자는 자신의 의도, 장학 자체의 준거, 협의회가 교사에게 준 의미 등을 준거로 삼아 협의회를 평가한다.

(2) 장학 기술의 평가 : 장학 담당자는 장학의 각 단계를 자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왔는가를 평가한다. 장학 담당자가 실시하였거나 가지고 있었던 장학 방법, 이론적 가정, 가치, 정서, 목표 등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장학 담당자는 먼저 장학의 대상이 된 교사나

6) R. G. Goldhammer, et al., *op. cit.*, pp.97~116, 121~127 참조.

7) Robert Alfonso, Gerald Robirth, & Richard F. Neville, *Instructional Supervision: A Behavior System*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75), p. 257.

동료, 또는 전문가와 함께 이러한 평가를 한 다음에 혼자서 평가를 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학 협의회의 분석 결과는 장학의 효과를 평가하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고 장학 담당자의 장학 기술을 수정하여 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상 장학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교사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교사와 장학 담당자가 직접 1대 1로 접촉하며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적이다. 교사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며 여러 가지 방법상의 불합리한 점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장학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있어, 임상 장학의 방법은 이를 개선하여 줄 수 있는 한 가지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2. 마이크로티칭

마이크로티칭은 1963년 스탠포드 대학의 MacDonald, Allen 등이,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을 특정한 교수 기술이나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처음 개발하였으며, 그 뒤 Berliner, Ryan, Borg 등이 더욱 개발시켰다. 마이크로티칭은 교사를 위한 적절 교육과 현재 교육의 혁신적 방법으로서 외국에서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 1) 마이크로티칭의 개념

마이크로티칭이란 실제 학습 사태에 적용 가능한 특정의 학습 지도 방법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교사 또는 교사 연수생을 실습시키는 실습 체계의 일종이다. 마이크로티칭에 있어 피훈련자는 소규모 시범 수업(대상: 인원 최대한 10명 내외, 훈련 내용: 2~4개의 교수 기술, 시간: 30분 또는 40분 이하)<sup>8)</sup>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피이드백 및 평가를 제공받고 다시 수업을 실시하

는 과정을 통하여 특정한 교수 기술을 습득한다. 환경, 시간, 대상, 인원, 환류 방법 등은 엄격하게 통제되며, 피훈련자의 수업 행동은 즉각적이고 집중적으로 피이드백을 제공받는다. 따라서 마이크로티칭은 짧은 시간 내에 축소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압축된 수업 사태에서 일정한 과정에 따라 교수-평가-재교수의 단계를 되풀이하며 특정한 학습 지도 기술을 배우게 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 2) 마이크로티칭의 과정

Warr는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sup>9)</sup>

① 배경: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피훈련자들의 요구 및 그들이 습득해야 할 기술을 파악해야 한다.

② 투입: 활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파악해야 한다.

③ 과정: 어떠한 과정에 의해 훈련을 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④ 결과: 훈련의 결과가 즉각적인 태도의 변화로서 나타나기를 바라는지, 또는 자신의 과업(교직)을 수행하여 가는 도중에 있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지 또는 조직에 있어서의 장기적인 변화로서 나타나기를 바라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의 수립은 피훈련자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마이크로티칭의 일반적 과정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 ◆ 1단계: 목표 설정 및 교사 기술 확인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가 수행하여야 할 행동적 목표와 습득해야 할 기술들을 확인한다.

#### ◆ 2단계: 학습 지도안 및 평가안 구상

설정된 목표 및 확인된 교사의 기술을 준거로 삼아 마이크로 학습 지도안 및 피훈련자의 교수 기술을 평가하는 평가안을 만든다. 이때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사의 기술은 훈련

8) 제시된 숫자는 절대적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의 경우가 일반적임을 의미한다.

9) Peter Warr, "Evaluating Management Training," *Journal of the Institute of Personnel Management*, Vol. 2, No. 2, 1969. 2, pp. 26~29 참고.

이 끝난 후에 교사가 할 수 있으며 관찰이 가능한 외현적 행동 용어로 표현한다. 이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피이드백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 구체적이면서도 최대한도의 효과를 얻기 위한, 마이크로티칭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술들 중 훈련받아야 할 기술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은 피훈련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0)</sup>

◆ 3단계 : 방법의 모색 및 선택

마이크로티칭은 학습자, 피이드백 방법, 재교수, 평가를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1) 학습자 : 학습자는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동료 또는 교사가 될 수도 있다. 학생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의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료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직전 교육에 좋다. 학생과 동료 또는 교사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동료 또는 교사를 먼저 가르치고, 학생을 가르친다.

(2) 피이드백 방법 : 비디오테이프, 오디오테이프, 전문가, 학습자를 통한 환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비디오테이프는 명확한 주관적 피이드백을 제공하여 주고, 전문가는 객관적 피이드백을 명확하게 제공하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일반적이다.

(3) 재교수 :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을 때는 재교수를 실시하지 않는다. 피훈련자 모두 재교수를 하는 체제적 교수법과, 첫번째 교수에서 일정한 수준을 넘지 못하는 사람만 재교수를 하는 준거 재교수법이 있다.

(4) 평가 : 자기가 자신의 교수 행동을 평가하는 주관적 평가법과, 학습자 또는 전문가가 평가하는 객관적 평가법,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

용하는 혼합 방법이 있다.

◆ 4단계 : 실시

3단계에서는 사전 훈련을 실시한 다음 채택된 방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다. 3단계에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전 훈련 : 피훈련자, 학습자, 전문가에게 훈련의 목적·내용·방법,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의 유의점 등을 설명한다.

(2) 시범 수업 관찰 : 피훈련자는 테이프나 실제 인물의 시연을 통하여 자신이 습득해야 할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교사의 수업을 관찰한다.

(3) 교수 : 피훈련자는 계획된 수업을 실시한다(수업이 녹화된다).

(4) 피이드백 : 피훈련자의 교수 행위에 대하여 피이드백을 제공한다(녹화된 수업이 방영된다).

(5) 평가 : 평가안을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6) 재교수 : 일정한 성취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피훈련자는 절차를 반복한다(준거 재교수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 5단계 : 평가

장학 담당자는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의 전체 과정을 평가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추후 전략을 위한 일반화 계획을 수립한다.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평가와 자신 혼자서 하는 평가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이크로티칭은 학습 지도 방법 뿐만 아니라 진로 지도, 직업 교육, 면담 기술, 산업체의 직원 연수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인원을 효과적으로 연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이크로티칭의 사용은 미래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장학 방법으로 기대될 수 있다. ◇

(수업 장학의 과정과 방법은 이번호로 마칩니다.)

10) 마이크로 학습 지도안 및 평가안의 실례는 Richard N. Jensen의 *Microteaching: Planning and Implementing A Competency-Based Training Program*, (Springfield: Charles Thomas publisher, 1974), pp. 37~61 참조.

# 教育變化를 위한 研究·開發活動

金 鎮 殷\*

## I. 教育變化的 過程

教育發展의 기본 요건은 기존 教育目的이나 課程, 組織의 構造, 또는 運營面의 計劃的이고 意圖的인 변화이며, 이러한 教育變化를 造成·促進시키는 것이 연구와 개발 활동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教育變化的 過程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첫째, 教育現場에 있어서 문제의 발견과 해결 또는 기관의 自體改善(selfrenewal)을 위한 노력이다. 리피트 등(Lippitt, Watson, & Westley, 1958, pp. 135~141)은 變化的 過程으로서 ① 변화의 필요성 인식 ② 변화를 위한 組織·關係의 설정 ③ 문제의 진단 ④ 代案의인 목표의 검토와 계획 작성 ⑤ 변화를 위한 계획의 실천 ⑥ 변화의 일반화 및 안정, ⑦ 새로운 관계의 성취 등 7단계를 들고 있다. 이러한 過程을 거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주요한 것은 機關自體의 변화를 위한 動機誘發이다. 自體內의 動機(self-motivation) 유발 없이는 教育變化的 課業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마일즈와레이크(Miles & Lake, 1967, pp. 81~88)는 教育機關의 自體改善을 위한 戰略으로 변화의 필요를 인식하는 사람들로 하

여금 계획된 변화를 위한 主動體의 역할을 담당케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教育變化的 過程으로서 연구, 개발, 보급 및 受用(RDDA) 등 一聯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모든 변화는 연구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前提下에 연구자의 理論과 受用者의 實際間의 격차를 좁히는데 힘쓰는 것이다. 구바(Guba, 1968, pp. 42~43)는 새로운 知識이나 아이디어를 探索하는 연구와 새로운 知識 및 아이디어를 문제 해결에 應用하는 개발 활동을 구별했으며, 普及活動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問題解決方案에 대한 理解增進과 관심을 갖게 하는 傳播와 具體的인 資料를 보여주는 示範으로 분리했다. 끝으로 受用活動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問題解決方案을 試驗하고 定置하며 制度化하는 過程이라 했다. 이런 RDDA 接近模型에 대하여 批判이 가해지고 있다. 즉, 一聯의 활동이 線型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受用者의 입장을 무시하고 연구자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를 補完하는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회적 交互作用 모형이 提示되고 있다.

셋째, 社會的 交互作用과의 연계를 통한 教育變化的 過程이다. 로저스와 슈메이커(Rogers & Shoemaker, 1971, p. 77)는 사회 변화의 過程을

\* 미국 카톨릭 대학교 교육행정학 교수·철학 박사. 1983년 5월부터 본원 교육발전연구부 자문 교수 겸 객원 연구원으로 「직업기술 교육과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產出하여 普及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난 결과를 助長하는 단계로 보았다. 그들은 사회 변화에 있어 무엇보다도 주요한 것은 意思疎通이며, 잠재적인 受用者와 그의 準據集團間的 사회적 交互作用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한 의사 소통의 관건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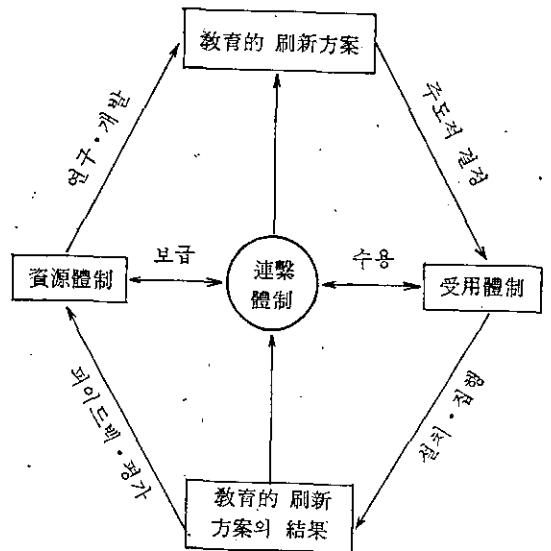
한편 해브락(Havelock, 1971, pp. 21~29)은 연구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雙務的인 交互作用을 중시하는 연계 이론의 7가지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즉, (1) 개인적인 접촉도와 相互間的 意思疎通關係를 나타내는 連繫性(linkage) (2) 研究로부터 활용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諸般要素를 體系의으로 組織하고 조정하는 機關 (3) 새로운 情報를 주고 받을 수 있는 公開的인 분위기 (4) 人的, 財政的, 政治的 資源 (5) 肯定的인 補償 (6) 物理的 施設 (7) 새로운 아이디어의 受用 단계에 있어서의 肯定的 또는 否定的 反應 등이다. 이러한 연계 이론의 주된 핵심은 새로운 知識을 受用者에게 연관시키고 知識의 活用過程에 있어 體系的인 接近을 강조하며 (Paul, 1974, p. 51), 또한 새로운 知識의 광범한 보급과 效果的인 使用을 위한 機關間的 연계를 강조하기도 한다(Chase, 1970, p. 302). 이와 같이 連繫接近方式은 個人的인 意思疎通보다 오히려 機關間的 交互作用의 維持에 중점을 둔다.

## II. 概念的 模型(A Conceptual Framework)

이상의 教育變化的 過程을 說明하는 세 가지 接近方式을 통합하는 입장에서 필자는 教育刷新을 위한 研究·開發活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戰略을 樹立하는데 사용될 하나의 概念的 模型을 試圖해 보았다. 그것은 RDDA 과정에 있어서의 연구자와 使用者間的 交互關係와 教育改善을 위한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의 생산, 활용 및 결과의 평가 등 一聯의 순환 과정을 개념화한 것이다. 거기에는 네 개의 주요한 요건, 즉 資源體制, 教育的인 刷新方案, 受用體制, 刷新方案에 따른 效果 등이 있고 이들을 연결시키는 순환 과정으로서 資源體制的 연구·개발 활동, 受用體制的 主導的인 決定과 刷新方案의 設置와 執行, 그

리고 刷新方案結果에 대한 評價와 資源體制에 대한 피이드백 등이 포함된다. 또한 資源體制와 受用體制間的 相互關係를 돕는 連繫體制를 中間에 두고 그 交互作用을 보급과 受用活動으로 연결지을 수 있다(그림] 참조).

**資源體制**: 資源體制는 專門的인 연구자 또는 연구 집단 내지 연구 기관을 지칭하는 것이나 연구·개발 및 보급 활동에 참여하는 광범한 영역에 걸친 전문가들을 포함한다. 개인적 또는 기관별로 각 기능이 分化되기도 하지만 資源體制的 主된 기능은 교육적 刷新方案을 연구·개발하는 동시에 직접 또는 連繫體制를 통해 普及活動을 전개하는 것이다. 한편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서 受用者의 參與는 受用體制에 의하여 最終的으로 執行될 刷新方案을 생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資源體制와 受用體制間的 個人別 또는 機關別 交互關係의 維持는 普及過程에 있어 필요할 뿐만 아니라 刷新方案의 評價結果를 받아들여 차후 연구에 反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림] 教育刷新을 위한 研究·開發活動 分析을 위한 概念的 模型

**教育的 刷新方案**: 教育的 刷新方案은 資源體制에 의해서 연구·개발된 새로운 知識이나 아이디어, 實際資料 및 방법 등을 총괄한다. 一例를 들면 위스콘신 대학교 教育 연구 개발 센터에서는 教育改善을 위한 綜合的인 刷新方案으로서

個別指導教育(Individually Guided Education)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IGE 프로그램은 學年別, 教室別로 편성된 학급 조직을 몇 개의 단위로 편제된 학교 조직으로 바꿈으로서 아동들의 교육적 기회의 개선과 직원들에 의한 自體改善의 필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연구·개발의 촉진을 강조한다. 그 내용은 ① 경영 체제의 쇄신을 위한 多單位의 학교 조직 ② 測定道具와 評價過程 개발을 위한 모형 ③ 個別的인 授業體制를 위한 모형 ④ 교육과정 資料 ⑤ 家庭·學校·地域社會 유대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⑥ 刷新方案 促進을 위한 環境造成, 그리고 계속적인 연구·개발 등 7個 構成要素를 包括하는 종합적인 刷新方案이다. 韓國教育開發院에서 推進했던 EM 課題나 教育發展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 政策活動方案, 教育과정 개선 方案, 教育放送을 통한 教育刷新 방안 등 많은 實例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注目해야 할 것은 受用體制에 의하여 필히 고려되는 刷新方案의 여러 가지 屬性이다. 로저스와 슈메이커(Rogers & Shoemaker, 1971)는 刷新方案의 受用率을 說明하는데 가장 주요한 屬性으로서 ① 相對的인 有益性 ② 受用體制의 既存 價値나 過去經驗과 필요에 一致하는 程度 ③ 複雜性 ④ 實踐 可能性 ⑤ 效果의 可視性을 들었다. 이 외에 헐 등(Hull, Kester, & Martin, 1973)은 刷新方案의 採擇與否를 決定하는 과정에서 經費, 時間的 配慮, 空間的 需要, 價値指向性, 그리고 필요한 補助 등을 考慮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受用體制:** 資源體制를 教育的 刷新方案의 ‘생산자’라고 한다면 受用體制는 그것을 採擇·活用하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受用體制는 刷新方案에 관한 情報를 얻는데 能動的이어야 하며 採擇與否를 決定하는데 자유로워야 한다. 刷新方案이 일단 採擇되었다면 部分的인 試驗을 거쳐 定置하고 전체적으로 擴大實踐해야 한다. 성공적인 遂行을 위해서는 機關與件에 適合하도록 刷新方案을 修正하거나 刷新方案의 要件을 充足시키도록 機關自體의 變化를 許容하는 相互修正 내지 補完的 關係가 이루어져야 한다(Greenwood, Mann, & McLaughlin, p. 31).

**教育的 刷新方案의 結果:** 執行된 刷新方案의 結果는 세 가지 측면에서 評價될 수 있다. 즉, ① 機能的, 또는 역기능적 結果 ②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결과, 그리고 ③ 현재적 또는 잠재적 결과이다. 이러한 分類는 教育的 刷新方案의 성과에 대한 適切性, 方向性, 推進性 등을 決定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핀커스(Pincus, 1974, p. 117)는 學校運營面에 있어서의 효과로 ① 資源의 효율적인 活用 ② 資源投資方式의 變化 ③ 授業過程과 方法의 개선 ④ 行政·管理方式의 變化 ⑤ 學校 運營體制와 外部機關과의 關係改善 등을 列舉했다. 이와 같이 教育刷新方案은 그 本業的인 目的에 따라 학생이나 교사 또는 行政家에 미치는 효과로서 分別될 수도 있다.

教育的 刷新方案의 成果에 대한 評價가 끝난 후, 그 結果가 資源體制에 傳達되어 새로운 研究過程에 投入되어야 한다. 이런 피이드백 과정은 資源體制와 受用體制間의 交互作用으로 教育的 刷新方案의 성과를 높이는 데 寄與하게 될 것이다.

**連繫體制:** 連繫體制는 資源體制와 受用體制間의 交互作用, 즉 教育的 刷新方案의 보급 및 受用過程을 돕는다. 해브락(Havelock, 1971, p. 4)은 連繫體制의 세 가지 機能으로서 ① 刷新方案을 생산자로부터 사용자에게 傳授하는 것 ② 刷新方案에 따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③ 세미나, 월샷 등을 통하여 刷新方案에 대한 理解를 증진시키는 것을 들었다. 이러한 機能은 資源體制나 受用體制 내의 한 部署에 의해 部分的으로 수행될 수도 있으나 현재 미국에서는 독립된 機關이나 특수한 課題로서 組織的이며 體系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聯邦 및 州政府의 補助金으로 운영되는 10여개의 地域 센터에서 研究資料를 수집·보급하며, 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및 諸般 情報資料를 수집하여 體系的으로 整備하여 마이크로 휘셔로 저장하고 있는 教育資料情報 센터(ERIC)시스템, 그리고 分野別로 연구 보고서 및 발표된 論文들을 수집·정리하여 要約版을 보급하는 클리어링하우스(clearinghouse) 등은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런 사업을 위해 많은 補助費가 研究費못지 않게 투입되고 있음은 주목할만 하다.



### Ⅲ. 結 論

우리는 이상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敎育刷新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보다 效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事項에 留意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연구자와 一線學校間의 긴밀한 紐帶關係가 助成維持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사용자의 필요와 當면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研究計劃書를 작성시부터 研究進行, 結果의 執行과 評價에 이르는 過程에 有關한 敎員이나 行政家들의 自發적이고 積極적인 參與를 권장해야 한다.

둘째, 연구자의 創意的인 노력에 의해 質 높은 보고서와 유용한 자료가 개발되고 一線學校에서는 研究·開發資料를 受用하는데 自律적으로 決定하고 敎育刷新에 主導적인 役割을 遂行하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各種研究 및 敎育刷新方案의 効果적인 보급을 위해 連繫體制가 강화되어야 하며, 지

도·보급 연계 활동에 연구·개발 활동 못지 않게 適切한 補助費가 지출되어야 하겠다. 현재 地方敎育行政機關, 특히 市·道敎育研究院에서 전국 各大學이나 專門研究機關에서 연구·개발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 동시에 連繫體制의 機能을 수행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째, 연구자에게 한 領域에 걸쳐 長期間 계속 연구할 수 있게 하고, 敎育刷新方案의 執行·成果를 分析評價하는 事後研究가 持續되어야 연구의 專門性和 實效性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끝으로 敎育刷新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은 연구자와 일선 학교 간의 共通의인 理解와 協調를 요한다. 각자는 專門의인 관심과 實際의인 필요를 서로 理解하고 尊重하면서 敎育의 질의 향상이란 共同目標를 달성하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의 創意的인 노력과 일선 학교의 自發의이며 能動的인 參與와 결정은 敎育刷新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推進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㉔

### 參 考 文 獻

- Chase, F.S., "R&D in the remodeling of education," *Phi Delta Kappa*. February 1970, *LI*, 299-304.
- Greenwood, P.W., Mann, D., & McLaughlin, M.W. *Federal Programs Supporting Educational Change (Vol. III): The Process of Change*.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1975.
- Guba, E.G. Development, diffusion, and evaluation. In T.L. Eidell & J. Kitchel(Eds.), *Knowledge Production and Utilization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Columbus, OH: University Counci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1968.
- Havelock, R.G. *Planning for Innovation through Dissemination and Utilization of Knowledge*. Ann Arbor, MI: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1971.
- Hull, W.L., Kester, R.J., & Martin, W.B.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in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Columbus, OH: The Center for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1973.
- Miles, M.B., & Lake, D. *Self-renewal in school systems: A Strategy for Planned Change*; In G. Watson(Ed.), *Concepts for Social Change*. Washington, DC: NTL Institute for Applied Behavioral Science, 1976.
- Paul, D.A. *The Diffusion of an Innovation through Interorganizational Linkages: A comparative Case Study*(Tech. Rep. No. 308). Madison, WI: Wisconsin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Cognitive Learning, 1974.
- Pincus, J. "Incentives for Innov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Winter, 1974, Vol. 1
- Rogers, E.M., & Shoemaker, F.F. *Communication of Innovations: A Crosscultural Approach* (2nd ed.). New York: The Free Press, 1971.

# 情報處理 理論

高 鎮 榮\*

## 1. 情報處理 理論의 배경

情報處理 理論은 學習을 자극과 반응의 기계적 결합으로 보려는 입장인 S-R 이론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人間을 情報處理者로 규정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情報處理 理論이 형성되기까지 情報理論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computer simulation) 연구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情報處理 理論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概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情報理論은 Shannon 에 의해서 具體化된 것으로서 情報의 量的 測定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情報理論은 情報의 量的 測定은 물론 感覺樣式 (sensory modalities) 간의 과제 난이도와 과제 성취도에 대한 보편적인 測定值를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심리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통신 장치와는 다르고 또한 情報理論은 인간의 情報組織化 (예 : chunking) 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제공하여 주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상실되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접근은 인간의 情報處理 과정을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에 비유하려는 입장이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을 인간의 情報處理 능력에 비유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입장에서 인간은 情報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몇 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정보 처리 조작들이

동시적 (parallel) 이기 보다는 순서적 (serially) 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입장은 인간의 情報處理 과정을 컴퓨터의 자료 처리 과정에 비유하기 때문에 人間學習을 기술함에 있어서 컴퓨터 공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概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론 자체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형태로 쓰여지고 그에 대한 컴퓨터 처리 과정과 인간 학습의 조작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이론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인간의 認知過程과는 여러 면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인간의 情報處理를 컴퓨터에 시뮬레이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을 밝힘으로써 인간을 컴퓨터와는 다른 情報處理者로 보고자 하고 있다. 여기에는 Neisser의 구성적 인지 과정 이론과 Hunt의 분배 기억 이론 등이 있다. Neisser는 인간의 인지 과정을 구성적 행동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을 제 1차 과정과 제 2차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제 1차 과정은 자극 직후에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자극에 대한 변형이 비교적 적고 자동적이며 이미 저장된 정보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서 지각 과정과 유사하다. 제 2차 과정은 제 1차 과정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이미지를 구성하는 과정이며 의식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미 저장된 情報 이외에도

\* 교육자료국 연구원.

그 순간의 소원, 의도, 기대 등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Neisser 는 제 2 차 과정을 학습 과정이라 보고 있다.

Hunt 는 인간의 여러 가지 저장 구조, 기억 내용 뿐만 아니라 조직 시스템에 관련되는 처리 전략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기억을 단기 기억, 중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구분하면서, 단기 기억은 의식적 사고에 의해서 비교적 적게 영향을 받으나, 장기 기억은 의식적 사고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學習은 장기 기억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저장되는 자료와 이의 처리를 위한 능력 요소 및 처리 전략과도 관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단순한 수준의 學習은 all or none 의 형태로 일어나지만 복잡한 수준의 학습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情報處理 이론이 처음에는 情報理論에 의해서 자극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인간의 情報處理 모델이 제시되었으며 현재는 인간 고유의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탐구가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자마다 강조하고 있는 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情報處理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 처리 이론은 기억과 조작 과정에 관한 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 2. 情報處理 理論의 主要 研究領域

情報處理의 주요 특징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나오기까지 인간의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認知過程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보 처리 단계를 가정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정보 처리 단계는 일반적으로 기억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경우와 조작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경우로 구분되어 연구되어 오고 있다.

기억 과정을 중심으로 한 정보 처리 단계 모델에서는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을 기호화(encoding) 과정, 단기 기억 과정, 장기 기억 과정, 회상(retrieval) 과정으로 설명한다.

기호화 과정이란 들어오는 자극을 개인이 그 나름대로의 기호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단기 기억 과정이란 기호화 된 것을 잠깐 동안

(수초 또는 수십초 정도) 저장하는 과정을 뜻하며, 장기 기억 과정이란 단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호에 기존의 認知構造(지식 시스템: 구체적으로는 장기 기억 속에 들어 있는 지식의 총체)에 대하여 어떤 조작을 가하여 새로운 概念이나 원리, 규칙 등을 生成하여 이를 다시 既存의 인지 구조에 통합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한편 인지 과정은 기억 과정을 포함하여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전개되는 조작 활동의 단계를 지칭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研究者들은 인지 과정을 투입 과정, 저장 과정, 산출(또는 검색) 과정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보다 구조 주의적 개념에 해당되는 용어를 이용하여 지각 과정, 기억 과정, 개념화 과정, 규칙 생산 과정, 규칙 응용 과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최근 Sternberg 는 知能에 관한 그의 componential theory 에서 類推課題의 해결을 위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操作過程을 기호화 과정, 속성 비교 과정으로 나누고 있다. 기호화 과정이란 자극의 속성(특징)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속성 비교 과정은 추론하고, 비교하고, 응용하고, 조작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속성 비교 과정 내의 下位過程은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비록 정보 처리 이론에서 기억 과정과 인지 과정이 구분되어 연구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기억 과정과 인지 과정이 별개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기억 과정과 인지 과정은 상호 의존적 관계로서 情報를 처리하는 과정에 통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은 인지적 조작 활동의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이러한 이유로 working memory 라 함)을 발휘하며, 장기 기억 과정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은 認知的 操作活動의 準據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情報處理 이론에서 최근에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영역으로서 戰略에 관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전략이란 情報處理를 위한 작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記憶에 있어서의 전략으로서는 暗誦, 組織化, 精巧化 등이 집중적으로 연

구되고 있다.

暗誦이란 복잡하고 정교한 過程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비교적 평범한 記憶戰略이며 일종의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모양이나 흉내라고 볼 수 있다.

組織化란 암송보다 좀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學習者는 단기 기억 내의 기호(code)를 概念的으로 같은 것끼리 群集化하게 된다.

精巧化란 서로 관련이 없는 기호 간에 어떤 有意味的(客觀的이 아니라 主觀的인) 관계를 形成하는 과정을 말한다. 組織化 과정이나 精巧化 과정에는 長期記憶內의 知識體系가 작용을 하게 된다.

### 3. 情報處理 理論의 適用

情報處理 이론은 인간의 知的 活動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Biggs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보 처리 이론은 인간의 知的 活動을 概念化하는 새로운 접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정보 처리 이론이 學習活動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Gagné의 學習理論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 처리 이론이 知能研究에서 어떤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結論을 맺고자 한다.

Gagné의 學習에 대한 概念은 비록 그가 그의 學習理論이 行動主義的인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情報處理的인 모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 예로서 그의 conditions of learning(3rd

ed.)에서 學習에 介在된 事態(events)를 情報處理的인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편 知能의 성격 또는 구조에 대한 연구는 종래 要因分析 方法에 의해서 연구되어 왔다. 즉, 知能檢査問의 요인 분석을 통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이 요인들 간의 位階的인 관계를 밝힘으로써 知能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要因分析 方法에 의한 지능 연구의 부적절성이 Guilford나 Sternberg 등의 여러 학자에 의해서 지적되었다.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점은, 要因分析은 個人差에 기초하기 때문에 개인차가 없는 능력은 요인으로 추출되지 않고, 요인은 rotation 관과 그 分析에 이용되는 자료의 성격과 수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인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可變的인 수 밖에 없으며 認知過程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다.

要因分析에 대한 對案의 研究方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情報處理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정보 처리 모델은 요인 및 rotation의 단점을 피할 수 있으며, 認知過程을 규명할 수 있고, 한 개인에 대해서도 理論이 성립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예로서 Evans는 정보 처리 이론에 입각하여서 類推課題 해결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Mulholland는 圖形類推課題 해결 과정을 認知活動의 성격과 그 발생 순서에 따라서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종래 要因分析 方法에 의해서는 규명되기 어려웠던 認知活動의 特性과 過程이 정보 처리 이론에 의해서 규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

## ◁ 원 내 동 정 ▷

### ● 주요 세미나 및 협의회 ●

- 5월 31일 본원 제 3회의실에서 국가 발전 장기 구상 중 「교육 및 인력 개발」 부문 연구를 위한 기획 위원 협의회를 원외 이영덕 서울대 교수 외 4명, 원내 신 세호 부원장 외 담당 연구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6월 7일 본원 제 3회의실에서 「지방 교육 재정 전망과 대책」에 관한 협의회를 원외 이 수 중 문교부 교육재정과장 외 1명, 원내 윤정일 교육발전연구부장 외 담당 연구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6월 9일 본원 제 2회의실에서 「국민학교 특 활용 영어 수업 지도서 개발」을 위한 협의회를 원외 김 옥순 외국어대 교수 외 5명, 원내 교육과정연구부 유 완영 책임 연구원 외 담당 연구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6월 16일 본원 제 3회의실에서 「도서 벽지 초·중등학교 교사 인구 교육 연수 기본 방향」 협의회를 원외 박 수경 문교부 교육연구 장학관 외 4명, 원내 홍 응선 원장의 담당 연구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본원 제 1회의실에서 2000년대를 향한 국가 발전 장기 구상 중 「교육 및 인력 개발」 부문 분과별(9개 분과) 정책 자문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6월 23일 본원 강당에서 「영재 교육 세미나」를 원내의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부로 나누어 개최하였다.
-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본원 제 2회의실에서 「1종 도서(중학 도서 1, 2, 3학년 2학기 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진 협의회를 원외 강 윤 호 이화 여대 교수 외 13명, 원내 남 미영 연구원 외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6월 29일~30일까지 1종 도서 「기초 조리」과목, 7월 7일~8일까지는 「가사」 과목 개발을 위한 연구진 협의회를 본원 제 3회의실에서 원외 현 기순 명지대 교수 외 9명, 원내 교육과정연구부 이옥임 책임연구원의 담당 연구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7월 1일 본원 제 2회의실에서 「통합 교과용 도서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문자 지도 방안」 협의회를 원외 이 응백 서울대 교수 외 14명, 원내 한 종하 교육과정연구부장 외 담당 연구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7월 4일 본원 제 2회의실에서 「국민학교 진로 교육 사업 관련 교수 프로그램(자연, 실과) 샘플 조정」 협의회를 원외 서울 농대 이 무근 교수 외 3명, 원내 신 세호 부원장 외 담당 연구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7월 5일부터 6일까지 본원 제 2회의실에서 「1종 도서(가정) 개발」을 위한 연구원 협의회를 원외 중앙대 윤서석 교수 외 17명, 원내 교육과정연구부 이 옥임 책임연구원의 담당 연구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본원 제 3회의실에서 「교원 자격 제도 개선 방안 탐색」을 위한 협의회를 남 억우 인천 교대 학장 외 11명, 원내 홍 응선 원장의 담당 연구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7월 28일 본원 강당에서 「고등학교 성교육」 세미나를 원내의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 내방 인사 ○

- 6월 9일 Dr. M.V. Mathar(UNDP Consultant) 외 2인으로 구성된 UNDP의 아시아 교육혁신 사업(APEID) 평가단이 본원을 방문하였다.
- 6월 15일 전매청 공무원 교육원 교관 31명이 본원을 방문, 본원 현황 및 교육 방송 시설을 살펴 보았다.
- 6월 21일 서울대학교 부설 교육행정연수원 연구생 40(국민학교 교장) 명이 내방하였다.
- 6월 27일 한·미 교육재단 주최 「한국의 문화와 역사」 세미나에 참석차 내한한 Dr. Jary P. Tipton 외 19명이 내방하였다.
- 7월 4일 미국 Seton Hall 대학 총장 Dr. Edward R. R'Alessio 부처가 본원을 방문하였다.
- 7월 21일 일본 Tsukuba대학 교수 Hisao Suzuki씨가 한국의 직업 기술 교육 사업 현황을

## ◁ 원 내 동 정 ▷

돌아 보기 위해 본원을 방문하였다.

### ◎ 원내 소식 ◎

- 6월 3일 제42차 이사회가 제 2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6월 11일 본원 제 1회의실에서 김 진은(미국 카톨릭 대학 교수, 본원 자문 교수)박사의 「미국에서의 교육 연구 및 개발(R&D)활동」이란 주제로 제 4차 월례 학술 세미나가 있었다.
- 6월 14일 미국 뉴욕 주립대학 교수 Robert M. Pauzek 박사가 본원을 방문, 「통계 자료 수집과 분석에 관한 방법 이론」이란 주제 강연을 하였다.
- 스티탕카 문교부 생활지도담당관 Mr. U.M. Abeywardhama가 교육발전연구부 청소년 문제연구실에서 Guidance and Counselling 분야에 관해 6월 17일부터 10개월간 연수 중이다.
- 7월 9일 본원 제 1회의실에서 교육과정연구부 박 성익 책임연구원의 「CBI와 효율적 개별화 학습 모형」이란 주제로 제 5차 원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7월 12일 본원을 방문 중인 미국 시카고 주립대학 교수 B.S. Bloom 박사가 「Human Variation and Learning」과 「Talent Development Process in U.S.」란 주제 강연을 가졌다.
- 1983년도 본원 하계 연수회가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동해안 망상 해수욕장에서 실시 중이다.

### ◎ 해외 출장 ◎

- 한 중학 교육과정연구부장은 한·미 교육 협력 각서에 의한 교육 전문가 교환 계획에 의해 세미나 참석 및 교육 연구 기관 시찰차 6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미국을 다녀 왔다.
- 교육과정연구부 진 권장 책임 연구원과 최 진 황, 안 희천, 권 치순, 강 옥기 연구원은 7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캐나다 알버타 대학에서 주최한 교육 과정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 교육과정연구부 임 재석, 한 승희 연구원은 7

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교수·학술 자료 교환 요원 연수 훈련차 미국 오하이오 주립 대학 국립지업연구소에 다녀 왔다.

- 홍 기형 기획조정실장은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진로 지도 일반에 관한 실천적 자료 수집 및 협의차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 왔다.

### ◎ 대외 활동 ◎

- 교육과정연구부 박 병선 책임연구원은 6월 16일 노동부 교육 개발 자문 위원에 위촉되었다.
  - 교육발전연구부 허 운나 책임연구원은 6월 22일 한양 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가 주최한 1983년도 제 2회 학술 발표회에서 「교육 공학과 교육 발전」이란 주제 발표를 하였다.
  - 사무처 이 덕선 서무재장이 6월 28일 서울 제 6지구 의료보험조합 운영 위원에 위촉되었다.
  - 홍 웅선 원장은 7월 4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미국 독립 기념일 행사에, 5일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 「1983년도 한국 과학 기술자 학술 회의 하계 심포지움」에 참석 하였다.
  - 최 중은 교육방송부 기획국장은 7월 7일부터 9일까지 전남 담양에서 개최된 한국사회교육 협회가 주최한 「사회 교육 프로그램 계획기법」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 교육과정연구부 박 병선 책임연구원은 7월 9일 문교부의 「교실 개혁 운동 추진을 위한 장학 자료」 집필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홍 웅선 원장은 7월 20일 공주 사범대학에서 중등 교원 자격 연수생에게 「평생 교육과 학교 교육」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 ### ◎ 인사 동정 ◎
- 이 군현 박사는 5월 28일자로 책임연구원으로 발령되었으며, 교육발전연구부 인구조육 및 고등학교 성교육 연구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 박 달하, 박 주하 방송원이 7월 16일자로 교육 방송부 TV제작 2실에 발령되었다.

# 韓國教育開發院 叢書案內

## 1 教育制度 發展의 方向探索

高級洋裝 / 新菊判 / 364 面 / 定價 5,500 원  
韓國教育開發院 編

## 2 學校教育制度 및 教育課程 發展 方向探索

高級洋裝 / 新菊判 / 396 面 / 定價 6,000 원  
韓國教育開發院 編

## 3 初·中學校 教育發展事業 綜合報告書

高級洋裝 / 新菊判 / 542 面 / 定價 7,000 원  
韓國教育開發院 編

## 4 2000 年代의 社會發展과 教育

高級洋裝 / 新菊判 / 220 面 / 定價 5,000 원  
韓國教育開發院 編

## 5 統合教育課程의 理論과 實際

高級洋裝 / 新菊判 / 216 面 / 定價 5,000 원  
韓國教育開發院 編

發行處：韓國教育開發院 代行出版

教育科學社 (電話：28-0855·0551)

격월간 **교육개발**

제 5 권 4 호 (통권 25 호)

1983년 8월 5일 인쇄

1983년 8월 10일 발행

발행인 홍 응 선

발행처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면동 산 20-1

전화 567-5021·5121

인쇄처 신성인쇄사

전화 725-9788

등록번호 등록바-574  
등록년월일 1975년 8월 20일

